

#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 누가복음

LUK · 복음서 · 헬라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24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 누가복음 1장

LUK-001 · 복음서 · 헬라어

두 어머니, 두 노래. 막힌 입과 열린 입 사이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가 울린다.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서문 책상(1-4절) → 성전·분향단(8-23절) → 나사렛 마리아의 집(26절) → 산골 엘리사벳의 집(39절) → 빈 들(80절)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 = "헤롯 때"(5절), 두 잉태를 잇는 "여섯째 달"(26·36절).
- 소품 = 분향단·향연(10절), 서판(63절), 두 태에 깃든 두 아기.
- "은혜를 받은 자여"(28절)는 kecharitomene — charis(은혜)의 완료수동분사.
- "주"(Kyrios)가 한 장에 거듭 울린다(6·9·11·15·25·28·32·38·45·46·58·66·68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막힘과 열림이 함께. 사가랴의 입이 막히고(20절) 끝에 열린다(64절).
- 두 수태고지·두 노래가 평행으로 깔려 분위기를 만든다.
- 늙음(엘리사벳)과 처녀(마리아)의 잉태가 한 시계 안에서 맞물린다.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4절: "데오빌로 각하여...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 한 사람에게 보내는 서문으로 열림.
- 80절: "아이가 자라며... 빈 들에 있으니라" — 한 생애의 조용한 시작으로 닫힘.
- 책상에서 빈 들로, 막힌 입에서 열린 입으로 좁혀진다.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데오빌로(3) / 사가랴·엘리사벳(5) / 가브리엘(19·26) / 마리아(27) / 두 아기(요한·예수) / 이웃·친족(58·65).
- 두 번의 "두려워하지 말라"(13·30절)와 두 반응 — 사가랴 막힘, 마리아 받음(38절).
- 후반 사상 = 두 노래. 마리아의 노래(46-55절)·사가랴의 예언(67-79절).
- "찬양하며"(46절)는 megalynei(높이다) — 라틴 첫 단어를 따 Magnificat.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서문.
- 컷 2 (5-25): 성전·분향,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입 막힘, 엘리사벳 잉태.
- 컷 3 (26-38): 나사렛,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루어지이다".

- 컷 4 (39-56): 산골, 태중 아기 뿔, 마리아의 노래.
- 컷 5 (57-66): 요한 출생·작명, 입 열림.
- 컷 6 (67-80): 사가랴의 예언, 빈 들로 자라는 아이.

## 6 — (1) 원어 카드

- charis(χάρις) — 은혜. "은혜를 받은 자"(28·30절)의 결.
- kecharitomene(κεχαριτωμένη) — 은혜 입은 자. 28절, charis의 완료수동분사.
- megalynei(μεγαλύνει) — 높다·크게 하다. 46절 "찬양하며" (Magnificat).
- splanchna(σπλάγχνα) — 창자·깊은 긍휼. 78절 "긍휼"의 결.
- Kyrios(κύριος) — 주. 한 장에 거듭.
- soter(σωτήρ) — 구주. 47절 "내 구주".
- diatheke(διαθήκη) — 언약. 72절 "거룩한 언약".

## 6 — (2) 문학 구조

- 서문(1-4) → 두 수태고지 쌍(5-38) → 만남·마리아의 노래(39-56) → 출생·사가랴의 예언(57-80).
- 두 천사 임함의 같은 틀 — 임함 → 두려움 → "두려워 말라" → 표적·말씀 → 반응.
- 두 노래의 병치 — 마리아(46-55)·사가랴(67-79).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제비뽑아 분향하는 직무(9절)는 평생 한 번 올까 한 자리 — 배경으로만.
- 마리아의 노래는 한나의 노래(삼상 2장)와 가락이 겹친다 — 교차 참조.
- "데오빌로 각하"(3절)의 호칭은 당시 고관 경칭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1:46-55 ↔ 삼상 2:1-10 (한나의 노래 / 마리아의 노래)
- 눅 1:17 ↔ 말 4:5-6 (엘리야의 심령으로 돌이킴)
- 눅 1:32-33 ↔ 삼하 7:12-16 (다윗 위·영원한 나라)
- 눅 1:73 ↔ 창 22:16-18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 눅 1:1-4 ↔ 행 1:1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권의 서두)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다는 서문으로 연다. 헤롯 때 제사장 사가랴가 제비뽑혀 분향할 때, 가브리엘이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한다. 사가랴가 "무엇으로 알리요" 묻자 입이 막히고, 엘리사벳이 잉태한다.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나사렛 마리아에게 임해 "은혜를 받은 자여" 하고,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다. 산골 엘리사벳의 집에서 태중 아기가 뛰놀고,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노래한다. 달이 차 요한이 태어나 작명을 두고 다투다, 사가랴가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자 입이 열려 찬송하고 예언한다. 끝으로 아이가 빈 들에서 자라며 나타나는 날을 기다린다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막힌 입, 열린 입 — 두 어머니의 노래"

- 초벌 부제: "막힌 입에서 두 노래로, 빈 들로 자라는 아이까지"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분향 직무·한나의 노래·데오빌로 경칭)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두 반응(사가랴 막힘·마리아 받음)을 우열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본문이 보고하는 사실만 기록.
- 마리아의 노래를 마리아론으로 끝지 않도록 → megalynei의 대상이 "주"임만 보존.
- "은혜를 받은 자"(kecharitomene)의 신학화는 보류, 어휘 위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1장은 한 책상의 서문에서 두 수태고지와 두 노래를 지나, 막힌 입이 열려 찬송으로 터지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쓴다는 서문으로 열린다. 성소에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임하자 의심한 입이 막히고, 여섯째 달에 같은 천사가 나사렛 마리아에게 임하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가 받아들인다. 두 어머니가 산골에서 만나 마리아의 노래가 터지고, 요한이 태어나 작명되는 순간 사가랴의 막힌 입이 열려 예언이 흐른다. 끝은 빈 들로 자라는 한 아이의 조용한 한 줄이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서문 책상(1-4) → 성전·분향단(8-23) → 나사렛(26) → 산골(39) → 빈 들(80). 두 잉태를 잇는 "여섯째 달"(26·36). kecharitomene·Kyrios가 거듬.
2 첫 느낌·분위기	막힘과 열림. 늠름과 처녀의 잉태. 두 수태고지·두 노래의 평행.
3 시작과 끝	시작 — 데오빌로 서문(1절). 끝 — 빈 들의 아이(80절). 책상에서 빈 들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사가랴·엘리사벳 / 가브리엘 / 마리아 / 두 아기. 두 반응 — 막힘·받음. 사상 = 두 노래, megalynai.
5 장면 컷	컷 1 서문(1-4). 컷 2 사가랴(5-25). 컷 3 마리아(26-38). 컷 4 노래(39-56). 컷 5 출생·작명(57-66). 컷 6 예언(67-80).
6 의문·발견·정보	태중 아기의 뱀(41·44). 두 반응의 갈림. "궁홀"(splanchna) 두 번(72·78). "주"의 뻑뻑함.
7 동영상	서문 → 성소 → 나사렛 → 산골 노래 → 출생·작명 → 예언 → 빈 들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막힌 입, 열린 입 — 두 어머니의 노래". 부제 — "막힌 입에서 두 노래로, 빈 들로 자라는 아이까지".
9 동영상 안건기·기도	성소와 산골 집과 빈 들을 걸으며 "이루어지이다"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막힘과 열림**: 사가랴의 입이 막히고(20절) 작명의 순간 열린다(64절). 침묵이 찬송으로 풀린다.
2. **결 2 — 두 수태고지의 쌍**: 같은 천사가 같은 "두려워 말라"로 두 집에 임한다. 늠름과 처녀, 의심과 받음이 나란하다.
3. **결 3 — 두 노래**: 마리아의 노래(46-55절)와 사가랴의 예언(67-79절)이 "궁홀"과 "높임"으로 이어진다. 본문은 잉태를 노래로 받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1:1-4** ↔ **행 1:1**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권의 서두).
- 다른 권 — **삼상 2:1-10** (한나의 노래), **말 4:5-6** (엘리야의 심령), **삼하 7:12-16** (다윗 위).
- 정경 흐름 —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 찬가들의 가락을 누가복음 서두에 다시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데오빌로처럼 차례대로 쓰인 글 앞에 앉는다.
- **멈춤 1**: 사가랴의 입이 막히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막힌 입이 열려 찬송이 터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막힌 입도 때가 차면 열려 노래가 된다\*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이루어지이다**"는 받음 **결\***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쓴 서문이 있다
- [x] 사가랴의 입이 막혔다가 작명에서 열린다
- [x] 마리아가 "이루어지이다"로 받는다
- [x] 두 어머니가 산골에서 만난다
- [x] 마리아의 노래가 터진다
- [x] 사가랴가 예언으로 "공홀"과 "돋는 해"를 노래한다
- [x] 끝은 빈 들로 자라는 한 아이다

---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이 책은 사도행전의 전서(前書)로, 개개인의 내면에 임한 통치가 끝내 땅끝으로 폭발하는 호(arc)의 첫 국면을 연다. 1장은 그 호의 서막이다. 말라기 이후 닫혔던 침묵을 깨고 두 잉태(세례 요한·예수)가 한 장 안에 나란히 임하는 것은, 옛 언약의 마지막 제사장(사가랴)과 비천한 처녀(마리아)를 통해 새 언약의 통치가 동트기 시작했음을 알린다. 가브리엘이 약속한 "다윗의 위"·"영원한 나라"(32-33절)는 삼하 7장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73절)는 창 22장을 다시 여는 자리다. 구속사의 긴 약속이 한 성소와 한 산골 집에서 다시 살아나는 — 그 좌표에 1장이 선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막힌 입(사가랴)→열린 찬송 / 옛 언약의 저물→새 언약의 동틈("돋는 해", 78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침묵에서 노래로 미는 운동이다. 책상의 서문 → 의심으로 막힌 입(20절) → "이루어지이다"의 받음(38절) → 작명의 순간 열린 입(64절) → 두 노래의 터짐 → 빈 들의 기다림.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닫힘이 열림을 향해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천사·잉태·작명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비천한 자의 내면에 임하는 인격적 통치**다. 무대에 선 이들은 모두 작은 자다 — 늙어 아이 없던 엘리사벳,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 통치는 거창한 왕궁이 아니라 그 작은 태(胎)와 집 안에서 시작된다. 마리아의 노래(Magnificat, 라틴 관례명)는 이 전복을 노래로 받는다 — "비천한 자를 높이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신다"(52절). 권세의 방향이 뒤집히는 통치가, 외적 정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루어지이다" 안에서 동튼다. 빙산의 수면 위는 천사의 방문이지만, 아래는 권세의 전복과 내면에 임하는 나라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막힌 입이 열려 찬송이 되는 그 운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의 받음 한 마디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사가랴의 침묵 결과 마리아의 받음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이루어지이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빈 들에서 기다리던 약속이 구유로 — 동튼 통치가 마침내 한 마을(베들레헴)에 태어나, 천사의 노래가 들판의 목자에게로 번져간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같은 물음인데 왜 사가랴는 막히고 마리아는 막히지 않았는가?

- "무엇으로 알리요"(18절)와 "어찌 있으리이까"(34절)가 비슷해 보인다.
- 두 반응의 갈림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태중의 아이가 "뛰논다"(41·44절)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말보다 태의 움직임이 먼저 반응한다.
-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으므로 위치만 보존.

Q3. 마리아의 노래와 사가랴의 예언은 왜 나란히 놓이는가?

- 두 노래(46-55·67-79)가 한 장 안에 쌍으로 있다.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4. "금홀"(splanchna)이 노래 안에 두 번 울리는 까닭은?

- 72·78절에 같은 결의 단어가 놓인다.
- 반복의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분포만 보존.

Q5. 왜 마지막은 찬가가 아니라 "빈 들"(80절)로 조용히 닫히는가?

- 구원·빛의 노래 뒤에 침묵의 광야가 온다.
- 대비의 까닭은 관찰로는 보류.

Q6. "은혜를 받은 자여"(kecharitomene)의 완료형은 무엇을 답는가?

- "이미 은혜 입은 상태"의 결만 기록.
- 신학적 함의는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누가복음 2장

LUK-002 · 복음서 · 헬라어

구유의 강보에서 성전의 칼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 영광이 내리고, 한 노인이 '평안히 떠나게 하소서' 한다.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호적령의 천하(1-3절) → 베들레헴 구유(4-7절) → 들의 목자들(8절) → 예루살렘 성전(22·41절) → 나사렛(39·51절)으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 = 율법의 절기. 팔 일 할례(21절), 정결예식(22절), 해마다 유월절(41절). 율법(nomos)의 결.
- 소품 = 강보·구유(7·12·16절), 하늘 군대(13절), 산비둘기·집비둘기 한 쌍(24절, 가난한 자의 제물).
- "구주"(11절)는 soter, "그리스도"는 Christos.
- "지극히 높은 곳"의 doxa(영광)와 "땅"의 eirene(평화)가 위·아래로 갈림(14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낮아짐(호적·여관·구유)과 영광(하늘 군대)이 같이 있다.
- 강보·구유의 반복이 따뜻하면서도 낮은 표적을 만든다.
- 성전의 두 노인(시므온·안나)의 오랜 기다림이 채워진다.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 황제의 천하령으로 열림.
-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 한 소년의 자람으로 닫힘.
- 천하에서 한 아이로, 강보에서 자람으로 좁혀진다.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아구스도(1) / 요셉·마리아(4-5) / 아기 예수 / 목자들(8) / 천사·하늘 군대(13) / 시므온(25) / 안나(36) / 성전 선생들(46).
- 두 노인의 기다림이 채워짐 — 시므온(26절), 안나(38절).
- 사상 = 시므온의 노래(29-32절)와 칼의 예고(34-35절). 빛(phos, 32절)과 칼이 한 입에서.
- 천사들의 노래 = doxa/eirene(14절). 위·아래로 갈림.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 호적령, 베들레헴, 구유의 아기.
- 컷 2 (8-20): 목자들, 하늘 군대의 노래, 구유를 찾아옴.
- 컷 3 (21-24): 할례·작명, 성전의 정결예식.

- 컷 4 (25-35): 시므온의 노래, 칼의 예고.
- 컷 5 (36-40): 안나의 증언, 나사렛으로.
- 컷 6 (41-52): 열두 살 예수, "내 아버지 집".

## 6 — (1) 원어 카드

- soter(σωτήρ) — 구주. 11절 "구주가 나셨으니".
- Christos(χριστός) — 그리스도·기름 부음 받은 자. 11·26절.
- doxa(δόξα) — 영광. 14·32절.
- eirene(εἰρήνη) — 평화·평강. 14·29절.
- phos(φῶς) — 빛.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
- nomos(νόμος) — 율법. 22·23·24·27·39절 "주의 율법대로".
- rhema(ῥῆμα) — 말씀·일. 15·17·19·29·51절.

## 6 — (2) 문학 구조

- 탄생(1-20) → 성전 봉헌(21-40) → 열두 살(41-52)의 세 묶음.
- 세 번의 증언 — 목자(17절), 시므온(28절), 안나(38절).
-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반복(19·51절)이 두 장면을 묶음.
- "율법대로"가 봉헌 단락에 거듭(22·23·24·27·39절).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24절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은 레위기 12장 가난한 자의 제물 — 배경으로만.
- "가이사 아구스도"·"구레뇨"(2절)의 호적은 시대 표지 — 무대 장치로만.
- 열두 살은 율법 교육에 들어서는 나이의 결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2:14 ↔ 눅 19:38 (영광·평화의 노래가 입성에서 되울림)
- 눅 2:24 ↔ 레 12:8 (가난한 자의 제물)
- 눅 2:32 ↔ 사 49:6 (이방의 빛)
- 눅 2:34-35 ↔ 사 8:14 (걸림의 돌·표적)
- 눅 2:49 ↔ 요 2:16 ("내 아버지 집"의 결)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가이사의 호적령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아기가 나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눕는다. 들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구주가 나셨다" 전하고, 하늘 군대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를 노래한다. 목자들이 구유를 찾아와 전하고,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긴다. 팔 일 만에 할례·작명하고 성전에 올라 가난한 자의 제물을 드릴 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평안히 떠나게 하소서" 노래하며 "칼이 네 마음을 찌르리라" 예고하고, 안나도 나아와 증언한다. 일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온다. 열두 살에 유월 절로 올라갔다가 성전에 남아 선생들과 묻고 답하니, 부모가 찾아 묻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다시 내려가 순종하며 자라간다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강보에 싸여 구유에 — 영광과 칼"
- 초벌 부제: "구유의 강보에서 성전의 칼까지, 자라가는 한 소년으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가난한 자의 제물·호적령·열두 살)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구유의 낮음을 곧장 교훈으로 굳히지 않도록 → 강보·구유의 위치만 기록.
- 시므온의 "칼"(35절)을 마리아론으로 끝지 않도록 어휘·위치만 보존.
- "내 아버지 집"(49절)의 기독교론은 보류, 누가가 처음 둔 "아버지"라는 사실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2장은 천하의 호적령이 한 구유로 좁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영광이 내려 성전의 노래와 칼로 이어지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황제의 호적령으로 열려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 구유로 데려간다. 들의 목자들에게 하늘 군대가 "영광과 평화"를 노래하고, 그 노래가 가리키는 곳은 강보에 싸인 아기다. 성전에 올라 가난한 자의 제물을 드릴 때 시므온은 "평안히 떠나게 하소서" 노래하면서 곧 "칼"을 예고하고, 안나도 증언한다. 끝은 열두 살 소년이 "내 아버지 집"을 말하고 다시 순종하며 자라가는 한 줄이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호적의 천하(1-3) → 구유(4-7) → 들(8) → 성전(22·41) → 나사렛(39·51). 율법 절기의 결. 소품 = 강보·구유·가난한 자의 제물. soter·Christos.
2 첫 느낌·분위기	낮아짐과 영광이 같이. 강보·구유의 반복. 두 노인의 기다림이 채워짐.
3 시작과 끝	시작 — 천하 호적(1절). 끝 — 한 소년의 자람(52절). 천하에서 한 아이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아구스도 / 요셉·마리아 / 목자 / 시므온·안나. 시므온의 노래·칼의 예고. doxa/eirene(14), phos(32).
5 장면 컷	컷 1 구유(1-7). 컷 2 목자·노래(8-20). 컷 3 할레·봉헌(21-24). 컷 4 시므온(25-35). 컷 5 안나(36-40). 컷 6 열두 살(41-52).
6 의문·발견·정보	"마음에 새기어"(19·51). 강보의 표적. 가난한 자의 제물(24). 빛 곁의 칼(35). "내 아버지 집"(49).
7 동영상	호적의 천하 → 구유 → 목자의 노래 → 성전의 노래·칼 → 자라가는 소년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강보에 싸여 구유에 — 영광과 칼". 부제 — "구유의 강보에서 성전의 칼까지, 자라가는 한 소년으로".
9 동영상 안건기·기도	구유와 들과 성전을 걸으며 낮은 자리의 영광을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낮음과 영광:** 구유의 강보(7절)와 하늘 군대의 영광(13-14절)이 한 장에 있다. 가장 낮은 자리가 표적이 된다.
- 결 2 — 빛과 칼:** 시므온의 "이방을 비추는 빛"(32절)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리라"(35절)가 한 입에서 나온다. 축복과 아픔이 나란하다.
- 결 3 — 자라가는 소년:** 강보의 아기(7절)가 열두 살 소년(42절)으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52절)로 이어진다. 본문은 탄생에서 자람으로 흐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2:14의 "영광·평화"가 눅 19:38 입성에서 되올린다.
- 다른 권 — 레 12:8 (가난한 자의 제물), 사 49:6 (이방의 빛, 32절).
- 정경 흐름 — 시므온·안나의 증언은 1장의 두 노래에 이어 누가복음 서두의 증언을 잇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호적의 천하 가운데 한 사람이 구유 곁에 선다.
- 멈춤 1: 영광의 노래가 강보를 가리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시므온의 빛과 칼 사이에서 멈춘다.
- 멈춤 3: "내 아버지 집"이라는 소년의 말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가장 낮은 자리에 영광이 내린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구유 곁\*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호적령으로 베들레헴에 이른다
- [x] 아기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눕는다
- [x] 하늘 군대가 영광과 평화를 노래한다
- [x] 시므온이 "평안히 떠나게 하소서" 한다
- [x] 시므온이 칼을 예고한다
- [x] 안나가 증언한다
- [x] 열두 살 예수가 "내 아버지 집"을 말한다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이 책은 사도행전의 전서(前書)로, 개개인의 내면에 임한 통치가 끝내 땅끝으로 폭발하는 호(arc)의 첫 국면을 연다. 2장은 그 호의 **성육신 국면**이다. 1장이 두 잉태로 약속을 열었다면, 2장은 그 약속이 마침내 한 마을(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살(肉)이 된 자리다. 천사가 노래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10절)과 시므온이 부른 "이방을 비추는 빛"(32절, 사 49:6의 결)은, 이 통치가 한 민족을 넘어 열방을 향함을 서두에서부터 가리킨다. 호적의 천하령(로마 제국)이 도리어 약속의 베들레헴(미 5장의 결)으로 한 가정을 옮겨, 제국의 큰 무대가 구유의 작은 통치를 섬기게 되는 — 그 좌표에 2장이 선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천하의 호적 → 한 구유의 강보 / 가장 낮은 자리 → 가장 높은 영광("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14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높음에서 낮음으로 내려와 다시 영광으로 미는 운동이다. 황제의 천하령 → 베들레헴 구유(7절) → 들의 목자에게 임한 영광의 노래(13-14절) → 성전의 빛과 칼(32-35절) → "내 아버지 집"을 아는 소년(49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가장 높은 칭호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거기서 영광이 솟는 한 운동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호적·탄생·봉헌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는 인격적 통치**다. 표적은 화려한 왕좌가 아니라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눕인 아기"(12절)다. 통치는 제국의 명령(아구스도) 위가 아니라 그 명령에 떠밀려 간 한 가정의 구유 안에서 시작된다. 가난한 자의 제물(24절, 레 12:8)을 드리는 부모, 늙어 죽음을 앞둔 두 증인(시므온·안나) — 작은 자들이 이 통치의 첫 증인이 된다. 빙산의 수면 위는 황제의 호적과 천사의 방문이지만, 아래는 권세의 방향이 뒤집혀 가장 낮은 구유로 임하는 나라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가장 낮은 구유 곁에 서서, 그 낮은 자리의 영광을 곧장 설명하지 않고 마음에 새겨 두는 자리에 내가 머물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목자들 곁과 마리아의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나라"(19·51절)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린 영광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구유.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구유에 누인 아기가 광야로 — 자라난 그가 요한의 외침과 갈라진 하늘 아래 서고,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 온 인류를 한 호적에 담는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표적이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12절)인가?

- 가장 낮은 것이 표적이 된다.
- 낮음이 표적인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빛의 노래 직후 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리라"(35절)가 붙는가?

- 축복 곁에 칼이 바로 놓인다.
- 두 말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3.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19·51절)는 두 번 왜 반복되는가?

- 마리아의 마음이 같은 자리에 두 번 선다.
- 반복의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분포만 보존.

Q4. "지극히 높은 곳"과 "구유"는 왜 한 장에 함께인가?

- 높은 데의 노래가 가장 낮은 자리를 가리킨다.
- 위·아래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5. 부모는 왜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50절)인가?

- "내 아버지 집"의 말을 부모가 알지 못한다.
- "깨닫지 못함"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6. 두 노인(시므온·안나)의 기다림은 왜 같이 놓이는가?

- 늙은 두 사람의 오랜 기다림이 나란히 채워진다.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3장

LUK-003 · 복음서 · 헬라어

광야의 외침이 골짜기를 메우고, 갈라진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며,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오른다.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빈 들·광야(2절) → 요단강 부근(3절) → 요단강 세례(21절) → 족보의 목록(23-38절)으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 = "디베료 황제... 빌라도... 헤롯... 안나스와 가야바"(1-2절)로 한 시점을 못 박음.
- 소품 = 골짜기·산·평탄케 함(5절, 사 40장), 도끼·나무뿌리(9절), 키·곳간·알곡·쪽정어·불(17절).
- "회개"(3·8절)는 metanoia, "세례"는 baptisma.
- 4-6절은 이사야 40장 인용 —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외침(소리), 뒤는 침묵(긴 족보). 소리와 침묵이 한 장에.
- 가르는 말이 거듭 — 알곡·쪽정어, 좋은 나무·나쁜 나무.
- 시선이 땅(광야)에서 하늘(열림)로 올라간다.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황제·총독·분봉왕·대제사장의 이름으로 한 시점을 못 박으며 열림.
- 38절: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 시원으로 닫힘.
- 당대의 이름에서 아담·하나님까지, 외침에서 음성으로 좁혀진다.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요한(2) / 무리(7) / 세리(12) / 군인(14) / 헤롯(19) / 세례 받으시는 예수(21).
- "무엇을 하리이까"의 세 물음(10·12·14절)과 일상으로 내려온 답.
- 요한의 자기 낮춤 —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 한다"(16절).
- 세례 장면(21-22절) = 하늘·성령·음성. "아들"(huios)·"소리"(phone).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시대의 이름들, 광야의 외침, 이사야 인용.
- 컷 2 (7-9): "독사의 자식들", 회개의 열매, 도끼.
- 컷 3 (10-14): "무엇을 하리이까", 무리·세리·군인의 답.
- 컷 4 (15-18): "능력 많으신 이", 성령과 불, 알곡·쪽정어.

- 컷 5 (19-20): 헤롯 책망, 요한의 갇힘.
- 컷 6 (21-38): 예수의 세례, 하늘의 음성, 아담까지의 족보.

### 6 – (1) 원어 카드

- metanoia(μετάνοια) — 회개·돌이킴. 3·8절.
- baptisma(βάπτισμα) — 세례. 3절 "회개의 세례".
- karpos(καρπός) — 열매. 8·9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
- pneuma(πνεῦμα) — 성령·영. 16·22절.
- phone(φωνή) — 소리. 4절(외치는 소리)·22절(하늘의 음성).
- huiois(υἱός) — 아들. 22절 "내 사랑하는 아들".
- soterion(σωτήριον) — 구원. 6절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 6 – (2) 문학 구조

- 외침(1-18) → 요한의 갈무리(19-20) → 세례·족보(21-38)의 세 묶음.
- "무엇을 하리이까"의 세 변주(10·12·14)가 같은 틀로 반복.
- "소리"(phone)가 광야(4절)와 하늘(22절)에 두 번.
- 족보가 역순(예수→아담)으로 올라 보통의 내림차순과 반대.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2절의 통치자 명단은 누가가 세계사 속 한 시점에 사건을 놓는 표지 — 배경으로만.
- "성령과 불로 세례"(16절)의 "불"은 정련·심판의 곁을 함께 — 어휘로만.
- 족보가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까지 가는 것은 누가복음의 보편 지향과 곁이 이어짐 — 관찰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3:4-6 ↔ 사 40:3-5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 눅 3:8 ↔ 마 3:9 (아브라함의 자손 사랑을 끊음)
- 눅 3:22 ↔ 시 2:7 / 사 42:1 (내 아들·내 택한 자)
- 눅 3:38 ↔ 창 5:1-3 (아담의 계보)
- 눅 3:16 ↔ 행 2:3-4 (성령과 불)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디베료 황제 때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사야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뤄진다. 물려온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도끼의 경고를 둔다. 무리·세리·군인이 "무엇을 하리이까" 묻자 옷을 나누고 정한 것 외에 받지 말라 답하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한다. 헤롯을 책망한 요한이 옥에 갇히고, 백성이 세례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리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온다. 끝으로 예수의 족보가 요셉에서 거슬러 올라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른다는 한 줄로 달한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 갈라진 하늘과 아담까지"
- 초벌 부제: "광야의 외침에서 갈라진 하늘로, 아담까지 거슬러"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통치자 명단·이사야 인용·아담 계보)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성령과 불"(16절)을 곧장 특정 체험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어휘·위치만 기록.
- 세례 시 삼중 장면(하늘·성령·음성)을 교의로 정식화하지 않도록 본문 보고만 보존.
- 족보의 "하나님"(38절)을 신학화하지 않고, 역순·아담까지라는 사실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3장은 광야의 외침이 골짜기를 메우고, 갈라진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며,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오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당대의 통치자 이름으로 한 시점을 못 박고, 빈 들의 요한에게 임한 말씀으로 연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외치며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물음에 일상의 답을 주고, 자기를 낮추어 "능력 많으신 이"를 가리킨다. 헤롯에게 갇힌 뒤,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는 예수 위로 하늘이 열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온다. 끝은 예수에서 아담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오르는 족보의 한 줄이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광야(2) → 요단강(3·21) → 족보(23-38). 통치자 명단(1-2). 이사야 40장 인용. 도끼·키·불. metanoia·baptisma.
2 첫 느낌·분위기	외침(소리)과 긴 족보(침묵). 가르는 말. 땅에서 하늘로 시선이 오름.
3 시작과 끝	시작 — 당대의 이름(1절). 끝 — 아담·하나님(38절). 한 시점에서 시원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요한 / 무리·세리·군인 / 헤롯 / 세례 받으시는 예수. "무엇을 하리이까" 셋. 하늘·성령·음성. phone·huios.
5 장면 컷	컷 1 외침(1-6). 컷 2 도끼(7-9). 컷 3 답(10-14). 컷 4 성령과 불(15-18). 컷 5 갇힘(19-20). 컷 6 세례·족보(21-38).
6 의문·발견·정보	세 물음의 같은 틀(10·12·14). "기도하실 때에"(21, 누가만). 두 결의 "불". 역순 족보. "요셉의 아들" 단서(23).
7 동영상	광야의 외침 → 회개의 답 → 능력 많으신 이 → 세례·하늘의 음성 → 아담까지의 족보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 갈라진 하늘과 아담까지". 부제 — "광야의 외침에서 갈라진 하늘로, 아담까지 거슬러".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광야와 요단강과 갈라진 하늘 아래를 걸으며 "무엇을 하리이까" 묻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두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4절)와 하늘에서 오는 "음성"(22절)이 같은 phone 계열로 놓인다. 땅의 외침이 하늘의 음성으로 이어진다.
2. **결 2 — 회개와 일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8절)가 곧 옷·양식·정직·만족(10-14절)으로 내려온다. 외침이 일상의 답으로 좁아진다.
3. **결 3 — 거슬러 오르는 족보:** 족보가 예수에서 아담과 하나님까지(23-38절) 역순으로 오른다. 본문은 한 시점에서 시원으로 거슬러 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3:22**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눅 9:35** 변화산의 음성으로 되올린다.
- 다른 권 — **사 40:3-5** (광야의 소리), **창 5:1-3** (아담의 계보).
- 정경 흐름 — 아담까지의 족보는 4장 광야 시험의 "둘째 아담" 결로 이어지는 자리를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광야의 외침 앞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물음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갈라진 하늘의 음성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아담까지 거슬러 오르는 이름들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외침은 일상의 열매로, 하늘의 음성은 아들 됨으로 닿는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갈라진 하늘 아래\*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친다
- [x] "무엇을 하리이까"에 일상의 답이 주어진다
- [x] 요한이 자기를 낮추어 다른 분을 가리킨다
- [x] 요한이 옥에 갇힌다
- [x] 예수가 세례 받고 기도하신다
- [x]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음성이 온다
- [x] 족보가 아담·하나님까지 오른다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이 책은 사도행전의 전서(前書)로, 개개인의 내면에 임한 통치가 끝내 땅끝으로 폭발하는 호(arc)의 첫 국면을 연다. 3장은 그 호의 **출발선이 그어지는 자리**다. 말라기 이후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 임한 말씀(2절)이 이사야 40장의 "광야의 소리"를 다시 열고, 세례의 자리에서 하늘이 갈라져 "내 사랑하는 아들"(22절)을 선언한다. 무엇보다 족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까지**(38절) 거슬러 오르는 것은, 이 통치가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다는 누가복음 고유의 좌표를 못 박는다. 내면의 통치가 열방을 향해 번지기 직전, 그 보편적 기반이 놓이는 자리에 3장이 선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야의 외침 → 갈라진 하늘의 음성 / 한 시점(당대 통치자) → 아담까지의 온 인류.**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땅의 외침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솟았다가, 한 시점에서 인류의 시원으로 거슬러 가는 운동이다. 통치자의 이름들(1-2절) → 광야의 소리(4절) → 회개의 일상(10-14절) → 갈라진 하늘의 선언(22절) → 아담·하나님까지의 족보(38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한 점에서 온 인류로 폭이 열리는 한 운동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세례·하늘의 음성·족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온 인류를 향해 열리는 인격적 통치의 기반**이다. 요한이 외친 회개는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옷·양식·정직·만족이라는 일상의 결(10-14절)로 내려온다 — 통치는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복된다. 그리고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오르는 것은, 곧 이어질 4장의 광야 시험에서 "둘째 아담"으로 서실 자리를 미리 연다. 빙산의 수면 위는 한 사람의 세례이지만, 아래는 첫 사람 아담부터 막힌 인류의 회복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외침을 들은 내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10절) 묻고, 내 자리의 일상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광야의 외침 앞과 갈라진 하늘 아래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내 사랑하는 아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하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른 그분이 곧 광야로 이끌려, 아담이 무너졌던 자리에서 둘째 아담으로 세 번의 시험을 물러서지 않고 통과한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부르러 온 자리에서 "독사의 자식들아"(7절)로 거칠게 여는가?

- 책망으로 회개를 부른다.
- 여는 어조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무엇을 하리이까"(10·12·14절)는 왜 세 번 같은 틀인가?

- 묻는 이는 다른데 물음은 같다.
- 반복의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분포만 보존.

Q3. "성령과 불로 세례"(16절)의 두 결은 어떻게 함께인가?

- 물·성령·불이 한 자리에 놓인다.
- 관계는 답하지 않고 어휘 위치만 보존.

Q4. 왜 세례 장면에서 "기도하실 때에"(21절)가 들어가는가?

- 하늘이 열린 자리에 기도가 있다(누가만 됨).
- 됨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5. 왜 족보 앞에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23절) 단서가 붙는가?

- 족보 첫머리에 한 단서가 놓인다.
- 단서의 까닭은 관찰로는 보류.

Q6. 족보가 왜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하나님까지 오르는가?

- 역순으로 시원까지 거슬러 오른다.
- 거슬러 오름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4장

LUK-004 · 복음서 · 헬라어

광야에서 세 번 물리서지 않은 입이, 회당에서 '오늘 이 글이 이루어졌다' 하자 같은 고향이 그를 밀어낸다.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광야(1-13절) → 갈릴리 회당(15절) → 나사렛 회당(16-30절) → 가버나움 회당·시몬의 집(31-44절)으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 = 안식일의 회당(16·31절), 사십 일의 시험(2절).
- 소품 = 돌·떡(3절), 천하 만국(5절), 성전 꼭대기(9절), 회당의 두루마리·이사야의 글(17절).
- "시험하더라"(2절)는 peirazo, "전파하게"(18절)는 euangelizo.
- 18-19절은 이사야 61장 인용 —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은혜의 해".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광야의 팽팽한 긴장과 회당의 갑작스런 뒤집힘(칭찬→분노).
- "성령"이 거듭 따라온다(1·14·18절).
- "오늘"(21절)·"권위"(32·36절)의 무게가 분위기를 끈다.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이끌리시며" —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며 열림.
-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 여러 회당의 사역으로 닫힘.
- 광야의 고립에서 여러 동네의 사역으로, 고향의 밀려남에서 펼침으로 좁혀진다.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마귀(2) / 나사렛 회당 사람들(16·22) / 귀신 들린 사람(33) / 시몬 장모(38) / 병자·귀신들(40-41).
- 세 시험에 "기록되었으되"의 같은 틀(4·8·12절).
- 나사렛의 뒤집힘 — 칭찬(22)→엘리아·엘리사의 예(25-27)→분노·쫓아냄(28-29).
- 가버나움의 "권위"(32·36절). "자유"(aphesis, 18절), "은혜의 해"(eniautos, 19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3): 광야의 사십 일, 세 시험.
- 컷 2 (14-15):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옴, 회당에서 가르침.
- 컷 3 (16-22): 나사렛, 이사야 낭독, "오늘 이루어졌다".

- 컷 4 (23-30): 엘리야·엘리사, 분노, 쫓겨남.
- 컷 5 (31-37): 가버나움, 권위 있는 말씀, 귀신 쫓음.
- 컷 6 (38-44): 장모의 열병, 저녁의 병자, 다른 동네로.

## 6 – (1) 원어 카드

- peirazo(πειράζω) – 시험하다. 2절.
- pneuma(πνεῦμα) – 성령·영. 1·14·18절.
- exousia(ἐξουσία) – 권위. 6·32·36절.
- euangelizo(εὐαγγελίζω) – 복음을 전하다. 18·43절.
- aphasis(ἄφρασις) – 놓아줌·자유·사면. 18절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 eniautos(ἐνιαυτός) – 해·년. 19절 "은혜의 해".
- dektos(δεκτός) – 받으실 만한·환영받는. 19·24절 "은혜의 해"."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 6 – (2) 문학 구조

- 시험(1-13) → 사역의 시작(14-15) → 나사렛(16-30) → 가버나움(31-44)의 네 묶음.
- 세 시험의 같은 틀 – 제안 → "기록되었으되" → 물러섬.
- 나사렛의 뒤집힘 삼단 – 칭찬·예시·분노.
- "성령"이 여는 절마다 박힘(1·14·18절).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세 시험의 답은 모두 신명기 인용(8:3·6:13·6:16) – 교차로만.
- 엘리야(시돈 과부)·엘리사(나아만)는 이방으로 간 은혜의 예(25-27절) – 배경으로만.
- 회당의 두루마리 낭독은 안식일 예배의 결 – 무대 장치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4:18-19 ↔ 사 61:1-2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 눅 4:4·8·12 ↔ 신 8:3 / 6:13 / 6:16 (세 시험의 답)
- 눅 4:25-26 ↔ 왕상 17:8-16 (시돈의 과부)
- 눅 4:27 ↔ 왕하 5:1-14 (나아만)
- 눅 4:24 ↔ 요 4:44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함)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께서 광야로 이끌려 사십 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다. 돌을 떡으로, 천하 만국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세 제안에 "기록되었으되"로 물러서지 않으시니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와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를 읽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신다. 사람들이 칭찬하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엘리야·엘리사의 예를 드시자 분이 가득하여 동네 밖으로 끌고 가나 그들 가운데로 지나 떠나신다. 가버나움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귀신을 쫓으시며, 시몬 장모의 열병과 저녁의 많은 병을 고치신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치니 막으시고,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하시며 여러 회당으로 가신다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오늘 이 글이 이루어졌느니라 — 시험과 밀려남"
- 초벌 부제: "광야의 시험에서 회당의 '오늘'로, 그리고 여러 동네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신명기 인용·이사야 61장·엘리아·엘리사)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세 시험을 단계별 적용 설교로 풀지 않도록 → "기록되었으되"의 인용 위치만 기록.
-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18절)를 사역론으로 정식화하지 않고 낭독 사실만 보존.
- 나사렛의 분노(28-29절)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칭찬→예시→분노의 순서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4장은 광야에서 세 번 물러서지 않은 입이 회당에서 "오늘 이 글이 이루어졌다" 하자 같은 고향이 그를 밀어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 떡·나라·성전 꼭대기의 세 시험을 "기록되었으되"로 물리치는 장면으로 연다.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를 읽고 "오늘 이루어졌다" 하자, 칭찬하던 고향이 곧 분노로 뒤집혀 동네 밖으로 끌고 간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로 지나 가벼나움으로 옮겨, 권위 있는 말씀과 고침을 베푸신다. 끝은 "다른 동네에서도" 전하여야 한 다며 여러 회당으로 가는 한 줄이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광야(1-13) → 나사렛 회당(16-30) → 가버나움(31-44). 안식일·두루마리. 이사야 61장 인용. peirazo·euangelizo.
2 첫 느낌·분위기	광야의 긴장과 회당의 뒤집힘. "성령"이 거듭. "오늘"·"권위"의 무게.
3 시작과 끝	시작 — 성령에 이끌린 광야(1절). 끝 — 여러 회당의 전도(44절). 고립에서 펼침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마귀 / 나사렛 사람들 / 귀신·병자. 세 시험의 "기록되었으되". 나사렛의 뒤집힘. aphasis·exousia.
5 장면 컷	컷 1 시험(1-13). 컷 2 돌아옴(14-15). 컷 3 "오늘"(16-22). 컷 4 분노(23-30). 컷 5 가버나움(31-37). 컷 6 저녁의 고침(38-44).
6 의문·발견·정보	신명기 세 인용. "얼마 동안 떠나니라"(13). 귀신의 외침을 막음(41). "오늘"의 멈춤(21). 이방으로 간 은혜(25-27).
7 동영상	광야의 세 시험 → 회당의 "오늘" → 고향의 분노 → 가버나움의 권위·고침 → 여러 동네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오늘 이 글이 이루어졌느니라 — 시험과 밀려남". 부제 — "광야의 시험에서 회당의 '오늘'로, 그리고 여러 동네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광야와 나사렛 회당과 가버나움의 저녁을 걸으며 "오늘 이루어졌다"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셋의 시험:** 떡·나라·성전 꼭대기의 세 제안이 모두 "기록되었으되"(4·8·12절)로 물러난다. 같은 틀이 세 번 반복된다.
2. **결 2 — "오늘"의 한 단어:** 긴 이사야 인용 뒤에 "오늘 이 글이 이루어졌다"(21절)로 멈춘다. 본문은 한 단어에 무게를 실는다.
3. **결 3 — 고향의 밀려남:** 칭찬(22절)이 분노(28-29절)로 뒤집혀 고향이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여러 동네로 펼쳐진다(43-44절). 줍힘과 펼침이 한 장에 있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4:18**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가 **눅 3:22** 세례의 성령으로 이어진다.
- 다른 권 — **사 61:1-2** (은혜의 해), **신 8:3·6:13·6:16** (세 시험의 답), **왕상 17 / 왕하 5** (엘리아·엘리사).
- 정경 흐름 — 나사렛 회당의 선포는 누가복음 사역 전체의 표제(programmatic) 자리로 읽히는 문을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광야의 시험 끝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기록되었으되"로 세 번 물러서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오늘 이 글이 이루어졌다"는 선포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고향이 밀어내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밀려난 자리에서도 사역은 다른 동네로 펼쳐진다\*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오늘"이라는 선포 결\*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광야에서 세 시험을 받으신다
- [x] "기록되었으되"로 세 번 물러서지 않으신다
- [x]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를 낭독하신다
- [x] "오늘 이 글이 이루어졌다" 하신다
- [x] 고향이 분노하여 밀어낸다
- [x] 가버나움에서 권위 있는 말씀과 고침을 베푸신다
- [x] "다른 동네에서도" 전하여야 한다며 떠나신다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이 책은 사도행전의 전서(前書)로, 개개인의 내면에 임한 통치가 끝내 땅끝으로 폭발하는 호(arc)의 첫 국면을 연다. 4장은 그 통치가 **인격 안에서 먼저 검증되고, 공적 사명으로 선포되는 자리**다. 앞 장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오른 직후, 한 분이 광야에서 아담이 무너졌던 시험을 둘째 아담으로 통과한다.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펴 "포로된 자에게 자유"·"눌린 자를 자유롭게"(18절)를 읽고 "오늘 이 글이 이루어졌다"(21절) 선포한다 — 이 한 절은 누가복음 전체 사역의 표제(programmatic)로 읽히는 문이다. 내적 통치가 인성 안에서 곧게 선 뒤 공적으로 선언되는, 그 좌표에 4장이 선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야의 시험(물러서지 않은 입)→회당의 "오늘 이루어졌다" / 고향의 밀려남→여러 동네의 펼침.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시험의 광야에서 사명의 회당으로 미는 운동이다. 세 번의 "기록되었으되"(4·8·12절) → "오늘"의 한 단어(21절) → 칭찬의 뒤집힘(28·29절) → 가버나움과 여러 동네로(43·44절). 한 마을이 밀어낸 그분이 더 넓은 들로 펼쳐지는, 좁힘과 펼침이 한 장에 함께 있는 운동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시험·설교·축귀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둘째 아담 안에서 회복되는 인성, 그리고 그 회복이 곧 해방의 선포가 되는 일**이다. 떡·나라·성전 꼭대기의 세 제안은 아담이 무너졌던 욕망·권세·시험의 자리이며, 한 분이 그 앞에서 곧게 섬으로 인성이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18절의 "자유"(aphesis)는 곧 죄 사함을 가리키는 단어 계열이다 — 외적 해방의 선포 아래에 내면의 용서라는 통치가 깔린다. 빙산의 수면 위는 회당의 설교이지만, 아래는 첫 사람부터 막혔던 인성이 다시 곧게 서고 해방되는 자리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오래된 약속이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21절) 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선포 앞에, 내가 받음으로 설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광야의 시험 결과 회당의 "오늘" 앞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오늘.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오늘 이루어졌다" 선포한 그분이 곧 호숫가로 내려가, 밤새 빈 그물을 찢어지도록 채우며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는 부름으로 첫 제자들을 일으킨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세 시험의 답이 왜 모두 "기록되었으되"(신명기)인가?

- 같은 책에서 세 번 길어 온다.
- 같은 출처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나사렛 사람들은 왜 칭찬에서 분노로 그토록 빨리 뒤집히는가?

-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22절) 뒤에 분노가 터진다.
- 뒤집힘의 까닭은 본문이 다 설명하지 않음. 순서만 보존.

Q3.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나라"(13절)는 무엇을 남기는가?

- 끝이 아니라 "얼마 동안"이다.
- 다시 올 결의 함의는 보류, 어휘 위치만 보존.

Q4. 왜 귀신들의 "하나님의 아들"(41절) 외침을 막으시는가?

- 바른 말인데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 막으심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5. 긴 인용(18절) 뒤에 왜 "오늘 이루어졌다"(21절)로만 하고 더 풀지 않는가?

- "오늘"이라는 한 단어에 멈춘다.
- 풀지 않으심의 까닭은 관찰로는 보류.

Q6. 엘리야·엘리사의 이방 예(25-27절)는 왜 이 자리에 놓이는가?

- 고향 아닌 밖으로 간 은혜의 예가 분노 직전에 놓인다.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5장

LUK-005 · 복음서 · 헬라어

빈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지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죄 사함이 중풍을 일으키며, 세관의 레위가 일어선다.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게네사렛 호숫가·배·깊은 데(1-11절) → 어느 동네(12절) → 사람 가득한 집(17-26절) → 레위의 세관·잔치(27-32절)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 = 일상의 노동. 밤새 수고한 어부(5절), 세관에 앉은 세리(27절).
- 소품 = 찢어진 그물(6절), 가라앉는 두 배(7절), 지붕을 뜯어 내린 침상(19절), 세관(27절).
- "잡은 것"(9절)은 agra, "깨끗하게 하다"(12절)는 katharizo.
- 17절 "바리새인·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로 지켜보는 눈이 자리를 잡음.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비었던 데가 거둬 채워진다 — 그물·병자·세관.
- 채워진 자리에서 베드로가 오히려 "떠나소서" 한다.
- "죄"가 두 번 크게 — 베드로의 "죄인", 중풍병자의 "죄 사함".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밀려들어" — 말씀에 밀려드는 무리로 열림.
- 39절: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 묵은 입맛으로 닫힘.
- 새 것을 받는 자리와 묵은 것을 고집하는 자리가 양끝. "버려두고 따름"이 11:28절에 두 번.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시몬 베드로(8) / 야고보·요한(10) / 나병환자(12) / 중풍병자·멘 사람들(18) / 바리새인·율법 교사(17·21) / 레위(27).
- 두 부르심 — "사람을 취하리라"(10절), "나를 따르라"(27절).
- 죄 사함과 고침이 함께(20·24절).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
-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32절)로 부름의 대상을 직접 말함. aphiemi·akoloutheo.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 호숫가·배·깊은 데, 찢어지도록 잡힘.
- 컷 2 (8-11): "나를 떠나소서", "사람을 취하리라", 다 버려두고 따름.
- 컷 3 (12-16): 나병환자, "깨끗함을 받으라", 제사장에게.

- 컷 4 (17-26): 지붕을 뜯어 내린 중풍병자, 죄 사함, 일어남.
- 컷 5 (27-32): 세관의 레위, 잔치, "죄인을 불러".
- 컷 6 (33-39): 금식 논쟁, 신랑 비유, 새 천·새 포도주.

#### 6 — (1) 원어 카드

- agra(ἄγρα) — 잡은 것·어획. 4·9절.
- metanoia(μετάνοια) — 회개. 32절 "회개시키러".
- lepra(λέπρα) — 나병. 12·13절.
- katharizo(καθαρίζω) — 깨끗하게 하다. 12·13절.
- aphiemí(ἀφίημι) — 놓아주다·용서하다. 20·23·24절 "죄 사함".
- telones(τελώνης) — 세리. 27·29·30절.
- akoloutheo(ἀκολουθέω) — 따르다. 11·27·28절.
- askos(ἄσκός) — 가죽 부대. 37·38절 "새 부대".

#### 6 — (2) 문학 구조

- 호수의 소명(1-11) → 두 치유(12-26) → 세관의 소명·잔치(27-32) → 새·묵음 비유(33-39)의 묵음.
- 두 소명의 같은 틀 — 부름 → 버림 → 따름(11·28절).
- "버려두고/버리고 따르니라"가 11·28절에 두 번.
- 대립의 시선이 자리 잡음 — 서기관(21), 바리새인(30), 금식 묵음(33).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4절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은 레위기 14장 나병 정결 예식 — 배경으로만.
- 지붕을 뜯어 내림(19절)은 당시 평평한 흙지붕의 구조 — 무대 장치로만.
- 세리는 동족에게 미움받던 직 — 잔치의 "세리와 죄인"(30절)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5:14 ↔ 레 14:1-32 (나병 정결 예식)
- 눅 5:24 ↔ 단 7:13-14 (인자의 권세)
- 눅 5:32 ↔ 눅 19:10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 눅 5:11 ↔ 눅 5:28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름)
- 눅 5:34-35 ↔ 요 3:29 (신랑의 결)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호숫가에 무리가 밀려들자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서 가르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밤 새 비었던 그물이 찢어지도록 차고 두 배가 가라앉게 된다. 베드로가 무릎 꿇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다 버려두고 따른다. 나병환자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제사장에게 보내신다. 사람 가득한 집에서 멘 이들이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내리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일어나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간다. 세관의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잔

치를 열고, 수군거림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며, 금식 물음에 신랑 비유와 새 천·새 포도주를 말씀하신다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채움과 따름"
- 초벌 부제: "빈 그물에서 찢어지도록, 세관에서 일어섬으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나병 정결 예식·흙지붕·세리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그물 가득함(6절)을 곧장 변영 교훈으로 굳히지 않도록 → "깊은 데"."찢어짐"의 위치만 기록.
- 죄 사함(20절)과 고침(24절)의 관계를 교의로 정식화하지 않고 본문 보고만 보존.
- 새·묵음 비유(36-39절)를 곧장 적용으로 풀지 않고 대비 어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5장은 빈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지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죄 사함이 증풍을 일으키며, 세관의 레위가 일어서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밤새 비었던 그물이 깊은 데에서 찢어지도록 채워지는 장면으로 연다. 풍성함 앞에서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하지만, "사람을 취하리라"는 부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다. 이어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지붕을 뜯어 내린 증풍병자에게 죄 사함과 일어남이 함께 임한다. 세관의 레위가 일어나 잔치를 열

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말씀과 새 포도주 비유로 이어진다. 끝은 묵은 입맛을 고집하는 한 줄이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호숫가·배·깊은 데(1-11) → 집(17-26) → 세관(27-32). 일상의 노동. 찢어진 그물·뜯긴 지붕·세관. agra·katharizo.
2 첫 느낌·분위기	비었던 데가 거둬 채워짐. 채움 앞의 "떠나소서". "죄"가 두 번 크게.
3 시작과 끝	시작 — 말씀에 밀려들(1절). 끝 — 묵은 입맛(39절). "버려두고 따름"이 두 번.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베드로 / 나병환자 / 중풍병자 / 레위 / 바리새인. 두 부르심(10:27). 죄 사함과 고침. aphiemi·akoloutho.
5 장면 컷	컷 1 그물(1-7). 컷 2 소명(8-11). 컷 3 나병(12-16). 컷 4 중풍(17-26). 컷 5 레위(27-32). 컷 6 새·묵은(33-39).
6 의문·발견·정보	채움 앞의 두려움(8). 알리지 말라·제사장에게(14). 멘 이들의 믿음(20). 인자의 권세(24). 새·묵은 대비(37-39).
7 동영상	찢어지도록 잡힘 → 소명 → 깨끗함·죄 사함 → 세관의 일어섬 → 새 포도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채움과 따름". 부제 — "빈 그물에서 찢어지도록, 세관에서 일어섬으로".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호숫가와 지붕 뜯린 집과 세관의 잔치를 걸으며 "깊은 데"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빈 데의 채움:** 밤새 비었던 그물이 "깊은 데"에서 찢어지도록 찬다(5-7절). 빈 자리가 채워질 때 부름이 온다.
- 결 2 — 죄 사함과 일어남:**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20절)와 "일어나 가라"(24절)가 한 장면에서 함께 보인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나란하다.
- 결 3 — 두 번의 따름:** 베드로(11절)와 레위(28절)가 같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로 일어선다. 호수와 세관에서 같은 결이 반복된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5:32**의 "죄인을 불러"가 **눅 19:10**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로 이어진다.
- 다른 권 — **레 14:1-32** (나병 정결 예식), **단 7:13-14** (인자의 권세).
- 정경 흐름 — 베드로의 소명은 누가복음 사도들의 부름과 사도행전의 "사람을 취함"으로 이어지는 자리를 연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밤새 빈 그물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찢어지도록 채워진 자리의 "떠나소서"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지붕을 뜯고 내린 믿음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세관에서 일어선 레위 곁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부름은 빈 자리가 채워질 때 일어섬으로 닿는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깊은 데" 결\*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깊은 데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찬다
- [x]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한다
- [x] 나병환자가 깨끗해진다
- [x]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내린다
- [x] 죄 사함과 일어남이 함께 임한다
- [x] 레위가 세관에서 일어나 따른다
- [x]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이 책은 사도행전의 전서(前書)로, 개개인의 내면에 임한 통치가 끝내 땅끝으로 폭발하는 호(arc)의 첫 국면을 연다. 5장은 그 통치가 **첫 사람들을 부르고, 죄 사함이라는 핵심을 드러내는 자리**다. 베드로의 소명("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10절)은 곧 누가복음의 열두 사도와 사도행전의 "사람 낚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놓는다. 또한 중풍병자 사건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24절)가 처음으로 명시되는데, 이는 외적 신유 아래의 내적 용서라는, 인격적 통치의 핵심을 드러낸다. 내면의 통치가 사람을 불러 세우고 죄 사함으로 시작되는, 그 좌표에 5장이 선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빈 그물(밤새 빙)→찢어지는 총만 / 보이지 않는 죄 사함→보이는 일어남(중풍이 걷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빙에서 넘침으로 미는 운동이다. 밤새 빈 그물(5절) → "깊은 데"의 찢어지는 채움(6-7절) → 무릎 꿇는 베드로(8절) → 죄 사함의 선언(20절) → 일어나 걷는 중풍병자(24-25절) → 일어서는 레위(28절). 채움이 사람을 일으키고, 그 일어남이 호수·집·세관에서 반복되는 한 운동이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만선·나병 정결·중풍 신유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죄 사함이 일으키는 회복**이다. 본문은 중풍병자 사건에서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집는다 — 먼저 보이지 않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20절)가 선언되고, 그것이 참임을 보이려고 "일어나 가라"(24절)가 따른다. 신유는 죄 사함의 가시적 증거일 뿐, 본질은 용서다. 그리고 "죄 사함"과 "모든 것을 버림"이 같은 *aphiemi* 계열로 묶이는 것은, 죄가 떠나간 자리에서 사람이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따른다는 결을 드러낸다. 빙산의 수면 위는 그물과 신유이지만, 아래는 죄가 떠나가고 사람이 일어서는 자리다.

####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밤새 빈 자리에서도 "다시 깊은 데로"(4절) 그물을 내리라는 한 말씀에, 내가 받음으로 응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빈 그물 앞과 죄 사함의 선언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깊은 데.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사람을 부르신 그분이 곧 밤을 새워 기도한 뒤 열들을 세우고, 평지로 내려와 복과 화를 나란히 두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새 나라의 윤리를 펼친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채워진 직후 베드로의 첫 말이 왜 "나를 떠나소서"(8절)인가?**

- 풍성함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을 일으킨다.
- 두려움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하시면서 "제사장에게 보이라"(14절) 하시는가?**

- 알리지 말라 하시며 절차는 밟게 하신다.
- 두 명령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3.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20절)에서 누구의 믿음인가?**

- 환자 본인이 아니라 메고 온 이들의 믿음이다.
- 주어의 곁은 본문 보고만 보존.

**Q4. 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24절)라고 굳이 말씀하시는가?**

- 고침으로 죄 사함의 권세를 보이신다.
- 말씀하심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5. 두 소명(베드로·레위)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름"으로 같은가?**

- 11·28절에 같은 곁이 두 번 놓인다.
- 반복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6. 새 것을 말하다 왜 "묵은 것이 좋다"(39절)로 달히는가?**

- 새 포도주 이야기 뒤에 묵은 입맛이 붙는다.
- 대비의 까닭은 관찰로는 보류.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6장

LUK-006 · 복음서 · 헬라어

안식일에 손을 펴게 하신 분이 열둘을 세우고, 복과 화를 나란히 두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밀밭(1-5절) → 회당(6-11절) → 기도의 산(12절) → 평지(17-49절)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 = 두 안식일(1·6절)과 밤샘 기도(12절).
- 소품 = 밀 이삭(1절), 손 마른 사람의 손(6·10절), 두 집—반석 위 주추와 주추 없는 집(48-49절).
- "안식일"(1·6·7·9절)은 sabbaton, "복"(20절)은 makarios, "화"(24절)는 ouai.
- 누가는 "평지에 서시니"(17절)로 무대를 둔다.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팽팽한 다툼(안식일), 뒤는 축복(평지의 "복이 있나니").
- 복 넷·화 넷이 거울처럼 마주 선다.
- "손"이 펴지는 장면과 "사랑하라"의 명령이 분위기를 끈다.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 안식일 논쟁으로 열림.
- 49절: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무너짐이 심하니라" — 두 집의 갈림으로 닫힘.
- 울음의 다툼에서 행함의 갈림으로 좁혀진다. "행함"이 9·47절에 걸림.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제자들 / 바리새인(2·7) / 손 마른 사람(6) / 열두 사도(13-16) / 평지의 큰 무리(17).
- 세 자리 — 다툼(안식일), 세우심(열둘), 가르침(평지).
- 사상 = 복과 화(20-26절), 원수 사랑(27절), 자비(36절).
- "비판하지 말라"(37절), "나무는 열매로 안다"(43-44절). agapao·echthros·eleemon.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밀밭, 이삭, "안식일의 주인".
- 컷 2 (6-11): 회당, "네 손을 내밀라", 분노.
- 컷 3 (12-16): 밤샘 기도, 열두 사도.
- 컷 4 (17-26): 평지, 네 복과 네 화.

- 컷 5 (27-38): 원수 사랑, 비판하지 말라, 헤아림.
- 컷 6 (39-49): 소경·들보·열매, 두 집 비유.

## 6 – (1) 원어 카드

- sabbaton(σάββατον) — 안식일. 1·6·7·9절.
- apostolos(ἀπόστολος) — 사도·보냄 받은 자. 13절.
- makarios(μακάριος) — 복 있는. 20-22절.
- ouai(οὐαί) — 화 있을진저. 24-26절.
- agapao(ἀγαπάω) — 사랑하다. 27·32·35절.
- echthros(ἐχθρός) — 원수. 27·35절.
- eleemon(ἐλεήμων) — 자비로운. 36절.
- themelios(θεμέλιος) — 터·기초. 48절 "주춧돌".

## 6 – (2) 문학 구조

- 논쟁(1-11) → 사도 세움(12-16) → 평지 수훈(17-49)의 세 묶음.
- 복 넷(20-22)과 화 넷(24-26)의 거울 대칭.
- "행함"이 양끝(9·46-49)에 걸림.
- 분별의 비유 묶음 — 소경·들보·나무·두 집(39-49).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밀밭에서 이삭을 비벼 먹음(1절)은 안식일 노동 논쟁의 배경 — 무대 장치로만.
-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예(3-4절, 삼상 21장)를 본문이 끌어옴 — 교차로만.
- 누가의 복은 "가난한 자"로 직접(20절), 화 짝(24-26절)을 둠 — 어휘 분포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6:3-4 ↔ 삼상 21:1-6 (다윗과 진설병)
- 눅 6:20-26 ↔ 마 5:3-12 (복; 누가는 화 짝을 둠)
- 눅 6:31 ↔ 마 7:12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 눅 6:36 ↔ 레 19:2 (거룩/자비의 결)
- 눅 6:47-49 ↔ 마 7:24-27 (두 집 비유)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따지니, 예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하신다. 다른 안식일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분노하여 의논한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열둘을 택해 사도라 이름하신다. 평지에 내려와 큰 무리 앞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비판하지 말라, 주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받으리라" 하신다. 소경과 들보,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춧돌 반석 위에 놓은 집 같다" 하시며 두 집 비유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네 손을 내밀라 — 복과 화, 원수 사랑"
- 초벌 부제: "안식일의 손에서 평지의 복과 화로, 또 두 집의 갈림으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안식일 규례·다윗 진설병·평지/산 차이)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안식일 논쟁(1-11절)을 율법 폐기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안식일의 주인"의 본문 보고만 기록.
- 복과 화(20-26절)를 곧장 적용 설교로 풀지 않고 거울 대칭의 어휘만 보존.
- "원수를 사랑하라"(27절)를 명령의 정확만 두고, 실천 지침으로 확장하지 않음.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6장은 안식일에 손을 펴게 하신 분이 열둘을 세우고, 복과 화를 나란히 두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안식일을 둘러싼 두 다툼—밀밭의 이삭과 회당의 마른 손—으로 열린다. "네 손을 내밀라"에 손이 회복되자 분노가 일고,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뒤 열둘을 사도로 세우신다. 평지에 내려와 복 넷과 화 넷을 거울처럼 두고,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주라"를 명하신다. 끝은 소경·들보·나무와 열매를 지나, 듣고 행함으로 갈리는 두 집의 한 줄이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밀밭(1-5) → 회당(6-11) → 기도의 산(12) → 평지(17-49). 두 안식일·밤샘 기도. 손·두 집. sabbaton·makarios·ouai.
2 첫 느낌·분위기	다툼에서 축복으로. 복 넷·화 넷의 거울. "손"과 "사랑하라".
3 시작과 끝	시작 — 안식일 논쟁(1절). 끝 — 두 집의 갈림(49절). 옳음에서 행함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제자 / 바리새인 / 손 마른 사람 / 열두 사도 / 큰 무리. 복과 화, 원수 사랑, 자비. agapao·eleemon.
5 장면 컷	컷 1 밀밭(1-5). 컷 2 손(6-11). 컷 3 열둘(12-16). 컷 4 복·화(17-26). 컷 5 원수 사랑(27-38). 컷 6 두 집(39-49).
6 의문·발견·정보	"평지"(17, 누가). 살린 자리의 분노(11). 누가의 직접 "가난한 자"(20). "주라"의 거듭. "주추"(48)의 터.
7 동영상	안식일 다툼 → 열둘의 세우심 → 평지의 복·화·원수 사랑 → 두 집의 갈림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네 손을 내밀라 — 복과 화, 원수 사랑". 부제 — "안식일의 손에서 평지의 복과 화로, 또 두 집의 갈림으로".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밀밭과 회당과 기도의 산과 평지를 걸으며 "원수를 사랑하라"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안식일의 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9절)이 마른 손을 펴게 한다. 옳음의 다툼이 한 손의 회복으로 답해진다.
2. **결 2 — 거울의 복과 화:** 복 넷(20-22절)과 화 넷(24-26절)이 가난·부요로 마주 선다. 누가는 둘을 짝으로 둔다.
3. **결 3 — 듣고 행함의 터:** 두 집의 차이는 외형이 아니라 "주추"(48절)에 있다. 듣고 행함이 보이지 않는 터로 갈린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6:12의 밤샘 기도가 눅 9:18·22:41 기도 장면으로 이어진다.
- 다른 권 — 삼상 21:1-6 (다윗과 진설병), 마 7:24-27 (두 집 비유).
- 정경 흐름 — 평지 수훈은 누가복음 윤리 가르침의 토대를 놓아 이후 비유들로 펼쳐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안식일의 다툼 끝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마른 손이 펴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복과 화가 마주 서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듣고 행함은 보이지 않는 터에서 갈린다\*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원수를 사랑하라" 결\*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안식일을 두고 다툼이 인다
- [x] "네 손을 내밀라"에 손이 회복된다
- [x] 밤샘 기도 뒤 열둘을 세우신다
- [x] 복 넷과 화 넷이 마주 선다
- [x]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다
- [x] "비판하지 말라, 주라" 하신다
- [x] 두 집이 주추로 갈린다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이 책은 사도행전의 전서(前書)로, 개개인의 내면에 임한 통치가 끝내 땅끝으로 폭발하는 호(arc)의 첫 국면을 연다. 6장은 그 통치의 **윤리적 현장이 놓이는 자리**다. 밤새 기도한 뒤 열둘을 세우는 일(12-16절)은 새 언약 공동체의 골격을 세우고, 평지 수훈(20-49절)은 그 나라가 어떤 마음과 행위로 살아가는지를 펼친다. 복과 화, 원수 사랑, 듣고 행함의 터는 외적 율법 준수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통치(신명기의 쉼마가 예고한 "마음에 새기는 언약")의 결을 잇는다. 내적 통치가 한 공동체의 윤리로 구체화되는, 그 좌표에 6장이 선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안식일의 마른 손→평지의 복과 화 / 규례의 다툼(외형)→마음의 터(주추).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한 손의 회복에서 한 삶의 터로 미는 운동이다. 안식일 논쟁(1-11절) → 마른 손이 퍼짐(10절) → 열둘을 세움(13절) → 평지의 복 넷·화 넷(20-26절) → 원수 사랑(27-36절) → 듣고 행하는 두 집의 터(47-49절). 다툼의 표면에서 마음의 보이지 않는 주추로 내려가는 한 운동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안식일 논쟁·사도 임명·설교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통치가 마음의 보이지 않는 터로 내려가는 일**이다. 복과 화는 행위의 등급이 아니라 가난·부요라는 처지와 방향으로 갈리고, 두 집의 운명은 외형이 아니라 "주추"(48절) — 듣고 행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터 — 에서 갈린다. 무엇보다 원수 사랑의 뿌리는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36절)이라는 성품에 놓인다. 빙산의 수면 위는 규례의 다툼이지만, 아래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마음의 터가 다시 놓이는 자리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깊음의 결을 거슬러, 아버지의 자비를 닮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27절)는 그 부름 앞에 내가 설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마른 손이 퍼지는 자리와 평지의 복과 화 앞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원수를 사랑하라.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새 나라의 윤리를 펼친 그분이 곧 긍휼의 손으로 내려가, 멀리 선 백부장의 믿음을 받고 멈춘 상여를 다시 세우며 많이 용서받은 여인의 향유를 받는다.

## 미해결 질문

### 누가복음 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 Q1. 살린 자리에서 왜 "분노가 가득하여" 의논하는가(11절)?

- 손이 회복된 선한 일 뒤에 분노가 있다.
- 분노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 Q2. 누가는 왜 "산"이 아니라 "평지"(17절)에 두는가?

- 가르침의 무대가 평지로 내려온다.
- 무대의 차이는 어휘로만 기록, 관계는 보류.

#### Q3. 복 넷과 화 넷(20-26절)은 왜 거울처럼 짝을 이루는가?

- 가난·주림·울음·미움과 부요·배부름·웃음·칭찬이 마주 선다.
- 대칭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 Q4.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38절)의 주고받음은 어떤 결인가?

- 받음보다 주는 결이 거듭 나온다.
- 주고받음의 결은 본문 보고만 보존.

#### Q5. 왜 끝에 "주여 주여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냐"(46절)를 두는가?

- 부름과 행함의 어긋남이 두 집 비유 앞에 놓인다.
- 됴의 까닭은 관찰로는 보류.

#### Q6. 두 집의 차이가 왜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주추"(48절)인가?

- 둘 다 집을 짓고 둘 다 창수가 난다. 다른 건 터뿐.
- 보이지 않는 터의 결은 위치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누가복음 7장

LUK-007 · 복음서 · 헬라어

멀리 선 믿음이 종을 낮게 하고, 멈춘 상여가 다시 서며, 많이 용서받은 자리에서 향유가 흘러 내린다.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가버나움(1-10절) → 나인성 문(11-17절) → 옥에서 온 사자(18-35절) → 바리새인 시몬의 집(36-50절)으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 = 장례 행렬(12절)과 식사 자리(36절). 죽음과 잔치가 한 장에.
- 소품 = 장로들·친구들(3·6절), 상여와 관(14절), 옥합·향유·눈물·머리털(37-38절).
- "믿음"(9·50절)은 pistis, "불쌍히 여기사"(13절)는 splachnizomai.
- 백부장이 군대 명령 체계로 말함(8절) — 로마 군의 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멀고 가까움이 장마다 바뀐다 — 멀리 선 백부장, 곁의 상여, 옥의 물음, 발치의 여인.
- 우는 자리가 둘 — 과부, 향유의 여인.
- "믿음"이 양끝(9·50절)에 박힌다.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 가르침을 마치고 행함으로 들어가며 열림.
- 50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 한 여인의 믿음으로 닫힘.
- "이만한 믿음"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로, 물음을 사이에 두고 양끝에 믿음.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백부장·종(2) / 장로들(3) / 과부·외아들(12) / 옥의 요한·제자들(18) / 시몬(40) / 향유의 여인(37).
- 네 만남의 거리가 다름 — 멀리, 곁에, 옥에서, 발치에서.
- 사상 = 용서와 사랑(47절), 빛 탕감 비유(41-43절).
- 요한에게 주신 답 = 보이는 표적(22절). aphiemi·soizo·myron.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0): 백부장의 종, "말씀만 하사", "이만한 믿음".
- 컷 2 (11-17): 나인성 문, 멈춘 상여, "짧은이야 일어나라".
- 컷 3 (18-23): 요한의 물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 컷 4 (24-35): 요한 증언, 이 세대의 어긋남.

- 컷 5 (36-43): 향유, 빛 탕감 비유.
- 컷 6 (44-50): "이 여자를 보느냐", 사함과 사랑, "평안히 가라".

## 6 – (1) 원어 카드

- pistis(πίστις) – 믿음. 9:50절.
- exousia(ἐξουσία) – 권위. 8절 "수하에... 권한 아래".
- splanchnizomai(σπλαγχνίζομαι) – 깊이 불쌍히 여기다. 13절.
- egeiro(ἐγείρω) – 일으키다. 14:22절 "일어나라".
- prophetes(προφήτης) – 선지자. 16:26·39절.
- skandalizo(σκανδαλίζω) – 실족하다. 23절.
- aphiemi(ἀφίημι) – 용서하다. 47·48·49절.
- myron(μύρον) – 향유. 37·38·46절.

## 6 – (2) 문학 구조

- 두 표적(백부장·과부, 1-17) → 요한 단락(18-35) → 향유 단락(36-50)의 묶음.
- "믿음"이 양끝(9·50)에 걸린 수미.
- 요한의 물음(19) ↔ 증언(24-28)의 대칭.
- 시몬의 안 한 것(44-46) ↔ 여인의 한 것의 대조 목록.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백부장은 로마 군 100인대장 — 이방인이 유대 장로를 통해 청함(3절) 배경으로만.
-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은 부양자를 잃은 처지 — 배경으로만.
- 발 씻음·입맞춤·감람유(44-46절)는 손님 환대의 관습 — 무대 장치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7:22 ↔ 사 35:5-6 / 61:1 (맹인이 보며·가난한 자에게 복음)
- 눅 7:14-15 ↔ 왕상 17:17-24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림)
- 눅 7:27 ↔ 말 3:1 (내 사자를 보내리니)
- 눅 7:48 ↔ 눅 5:20 (죄 사함의 권세)
- 눅 7:50 ↔ 눅 8:48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병든 종을 위해 장로들을 보내 청하고, 다시 친구들을 통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고 종이 낮는다. 나인성 문에서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상여를 만나 불쌍히 여기사 "젊은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자가 일어난다. 옥에 갇힌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묻자 "맹인이 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라" 하시고, 무리에게 요한을 증언하며 이 세대의 어긋남을 말씀하신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죄 많은 여인이 향유로 발치에서 울며 발을 적시고 닦으니, 빛 탕감 비유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고로 사랑함이 많다" 하시고,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다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말씀만 하사 — 믿음과 사함, 흘러내린 향유"
- 초벌 부제: "멀리 선 믿음에서 흘러내린 향유까지, 사함과 사랑으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백부장·과부 처지·환대 관습·엘리야 교차)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백부장의 "믿음"(9절)을 곧장 신학 정식으로 굳히지 않도록 → "이만한 믿음"의 본문 보고만 기록.
- 향유 여인의 사함(47절)을 공로 교리로 풀지 않고 사함·사랑의 어휘 위치만 보존.
- 요한의 물음(19절)을 의심·확신 도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물음·답의 순서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7장은 멀리 선 믿음이 종을 낮게 하고, 멈춘 상여가 다시 서며, 많이 용서받은 자리에서 향유가 흘러내리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가벼나움 백부장의 "말씀만 하사"라는 멀리 선 믿음으로 열린다. 나인성 문에서 청하기도 전에 과부의 상여가 멈추고 죽은 외아들이 일어난다. 옥에 갇힌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묻자 보이는 표적으로 답하시고, 이 세대의 어긋남을 짚으신다. 끝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 많은 여인이 눈물과 머리털과 향유로 발치에 엎드리고, "사함이 많은 고로 사랑이 많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한 줄이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가버나움(1-10) → 나인성 문(11-17) → 옥의 사자(18-35) → 시몬의 집(36-50). 장례와 잔치. 상여·옥합·향유. pistis·splanchnizomai.
2 첫 느낌·분위기	멀고 가까움이 바뀜. 우는 자리 둘. "믿음"이 양끝에.
3 시작과 끝	시작 — 가버나움(1절). 끝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50절). 물음을 사이에 둔 두 믿음.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백부장·종 / 과부·외아들 / 옥의 요한 / 시몬 / 향유의 여인. 용서와 사랑. aphiemi·soizo·myron.
5 장면 컷	컷 1 백부장(1-10). 컷 2 상여(11-17). 컷 3 물음(18-23). 컷 4 증언(24-35). 컷 5 향유(36-43). 컷 6 사함(44-50).
6 의문·발견·정보	먼저 "울지 말라"(13). 옥의 물음(19). 책망 대신 복(23). 안 한 것·한 것의 대조(44-46). 사함과 사랑(47).
7 동영상	멀리 선 믿음 → 멈춘 상여 → 옥의 물음 → 흘러내린 향유와 사함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말씀만 하사 — 믿음과 사함, 흘러내린 향유". 부제 — "멀리 선 믿음에서 흘러내린 향유까지, 사함과 사랑으로".
9 동영상 안 건 기·기도	가버나움과 나인성 문과 시몬의 집을 걸으며 발치의 여인 곁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멀리 선 믿음:** 백부장은 직접 오지 않고 "말씀만 하사"(7절) 청한다. 거리 너머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으로 받아진다.
- 결 2 — 먼저 다가감:** 나인성에서 청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13절) 하신다. 공허이 청을 앞선다.
- 결 3 — 사함과 사랑:** 안 한 것(시몬)과 한 것(여인)이 나란히 놓이고(44-46절), "사함이 많은 고로 사랑이 많다"(47절)로 묶인다. 용서와 사랑이 한 자리에 있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7:50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눅 8:48·17:19·18:42로 되올린다.
- 다른 권 — 왕상 17:17-24 (과부의 아들을 살림), 사 35:5-6 / 61:1 (요한에게 주신 답).
- 정경 흐름 — 백부장의 믿음은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이방을 향한 결을 미리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멀리 선 백부장의 청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멈춘 상여가 다시 서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발치에서 향유를 붓는 여인 곁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많이 용서받은 자리에서 사랑이 흘러내린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발치의 향유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백부장이 "말씀만 하사" 청한다
- [x]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신다
- [x] 멈춘 상여에서 외아들이 일어난다
- [x] 요한이 옥에서 "당신이오니까" 묻는다
- [x] 보이는 표적으로 답하신다
- [x] 여인이 눈물과 향유로 발치에 엎드린다
- [x]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다

---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이 책은 사도행전의 전서(前書)로, 개개인의 내면에 임한 통치가 끝내 땅끝으로 폭발하는 호(arc)의 첫 국면을 연다. 7장은 그 통치가 경계를 넘어 이방과 죄인에게로 번지는 자리다. 이방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9절)고 받으심은, 누가복음·사도행전이 향하는 이방 선교의 결을 미리 연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심은 엘리야·엘리사의 소생 이야기를 되풀이하며 "큰 선지자"(16절)의 도래를 알리고, 죄 많은 여인의 향유는 통치가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에까지 닿음을 보인다. 내적 통치가 유대의 경계를 넘어 이방과 죄인에게로 번지는, 그 좌표에 7장이 선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멀리 선 믿음(백부장)→멈춘 상여(나인성)→발치의 향유(죄인 여인) / 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간 공흠.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멀리 선 믿음에서 발치의 사랑으로 거리가 좁혀지는 운동이다. "말씀만 하사"(7절)의 거리 너머 믿음 → 청하기 전 "울지 말라"(13절)의 공흠 → 안 한 것과 한 것의 갈림(44-46절) → "사함이 많은 고로 사랑이 많다"(47절). 거리 너머에서 가장 가까운 발치까지 다가오는 한 운동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종의 신유·과부 아들의 소생·여인의 향유 부음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공흠과 용서가 청을 앞서 먼저 다가가는 일이다. 나인성에서는 누가 청하기도 전에 "불쌍히 여기사"(splachnizomai, 13절) 먼저 다가가고, 여인의 향유는 그 자체가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48절)는 용서의 결과로 흘러내린다. 신유와 소생은 표면의 사건이고, 그 아래에는 창자가 뒤틀리는 공흠과 먼저 베푸는 용서가 움직인다. 빙산의 수면 위는 기적이지만, 아래는 먼저 다가간 공흠과 많이 용서받은 자리의 사랑이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사함이 많은 고로 사랑이 많다"(47절) — 많이 용서받은 그 자리에서야 향유처럼 흘러내리는 사랑 앞에, 내가 설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멀리 선 백부장의 믿음 결과 발치에서 온 여인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멀리 선 믿음을 받으신 분이 곧 한 말씀을 네 땅에 뿌리고, 바람과 군대와 죽음 앞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며 그 믿음을 시험대에 세운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7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백부장은 왜 직접 오지 않고 "말씀만 하사"(7절) 청하는가?

- 멀리서 말로만 청하고 자기를 낮춘다.
- 거리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나인성에서 왜 청하기 전에 먼저 "울지 말라"(13절) 하시는가?

- 과부가 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다가간다.
- 먼저 다가감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3. 그를 가리켰던 요한이 왜 "당신시오니이까"(19절) 묻는가?

- 광야의 증언자가 옥에서 다시 묻는다.
- 물음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4. 물음 끝에 왜 책망 대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23절)인가?

- 묻는 자리에 복을 두신다.
- 됴의 까닭은 본문 보고만 보존.

Q5. 시몬이 옳게 답했는데 왜 곧 "이 여자를 보느냐"(44절)로 돌이키시는가?

- 옳은 답 뒤에 여인을 보게 하신다.
- 돌이킴의 까닭은 관찰로는 보류.

Q6. "사함이 많은 고로 사랑이 많다"(47절)에서 사함과 사랑의 순서는?

- 사함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가 한 절에 놓인다.
- 둘의 순서는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누가복음 8장

LUK-008 · 복음서 · 헬라어

한 말씀이 네 땅에 떨어지고, 바람과 군대와 죽음 앞에서 같은 물음이 돈다 —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전도의 길·비유 자리(1-21절) → 건너가는 배·풍랑(22-25절) → 거라사 땅(26-39절) → 다시 이편 야이로의 집(40-56절)으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 = 갈릴리 호수의 뱃길. 건너갔다 돌아옴(22·40절).
- 소품 = 씨와 네 땅(5-8절), 등불·그릇·평상(16절), 배와 물결(23절), 돼지 떼(32절), 옷 가(44절).
- "씨"(5·11절)는 sporos이며 곧 "하나님의 말씀"(logos, 11절). "군대"(30절)는 legion.
- "옷 가"(44절)는 옷단의 술(krapedon) — 율법이 명한 술의 결.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차분한 비유, 뒤는 바람·군대·죽음이 몰아침. 잔잔하다 거칠어짐.
- "두려움"이 자리마다 따라온다(25·35·37·50절).
- "믿음"의 물음이 거듭(25·48·50절).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 말씀을 뿌리는 길로 열림.
- 56절: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 살리신 뒤 침묵을 명하며 닫힘.
- 펼침에서 감춤으로. "들음"이 양끝(8·18절)에 걸림.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열둘 / 섬긴 여인들(2-3) / 큰 무리(4) / 제자들(22) / 군대 귀신 들린 사람(27) / 혈루증 여인(43) / 야이로·딸(41-42).
- 같은 물음 —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25),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48), "믿기만 하라"(50).
- 두려움과 믿음의 대비 — 제자(25), 거라사 사람(37).
- 씨 비유 풀이 = 네 땅의 들음과 맺음(11-15절). soizo·egeiro.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전도의 길, 섬긴 여인들.
- 컷 2 (4-21): 씨 비유·풀이, 등불, "내 어머니와 동생들".
- 컷 3 (22-25): 풍랑, "잔잔하라", "믿음이 어디 있느냐".

- 컷 4 (26-39): 거라사, 군대 귀신, 돼지 떼, 정신 든 사람.
- 컷 5 (40-48): 야이로의 청, 혈루증 여인,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 컷 6 (49-56): "잔다", 비웃음, "아이야 일어나라", 침묵 명령.

## 6 – (1) 원어 카드

- sporos(σπόρος) – 씨. 5·11절.
- logos(λόγος) – 말씀.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 pistis(πίστις) – 믿음. 25·48·50절.
- phobos(φόβος) – 두려움. 35·37절.
- legion(λεγιών) – 군대·로마 군단. 30절.
- soizo(σώζω) – 구원하다·낫게 하다. 48·50절.
- krapedon(κράσπεδον) – 옷단의 술. 44절.
- egeiro(ἐγείρω) – 일으키다. 54절 "일어나라".

## 6 – (2) 문학 구조

- 비유·들음(1-21) → 풍랑(22-25) → 거라사(26-39) → 끼어든 두 표적(40-56)의 묶음.
- 야이로 이야기 안에 혈루증 이야기가 끼어드는 끼움(샌드위치) 구조.
- "믿음"의 물음이 네 표적을 가로질러 반복.
- 두려움이 표적마다 따라오는 후렴(25·35·37·50).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군대"(legion, 30절)는 수천 규모의 로마 군단 이름 – 배경으로만.
- "옷 가"(44절)는 율법이 명한 옷단의 술(민 15장) – 무대 장치로만.
- 혈루증은 정결 규례상 부정으로 분류되던 처지(레 15장)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8:10 ↔ 사 6:9-10 (보아도 보지 못함)
- 눅 8:25 ↔ 시 107:28-29 (광풍을 잔잔케 하심)
- 눅 8:44 ↔ 민 15:38-39 / 레 15:25-27 (옷단의 술 / 혈루증)
- 눅 8:48 ↔ 눅 7:50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 눅 8:54-55 ↔ 왕상 17:21-22 (죽은 아이가 살아남)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큰 무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길가·바위·가시·좋은 땅의 네 들음을 풀어 주신다. 등불 비유와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를 두시고, 가족이 찾아오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라 하신다. 배로 건너가다 광풍을 만나 일어나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신다.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귀신을 돼지 떼로 보내시니 사람이 옷 입고 정신이 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떠나기를 구하자 그를 집으로 보내 전하게 하신다. 돌아오시자 야이로가 죽어가는 외딸을 위해 청하고,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이 옷 가에 손을 대 나오

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다. 아이가 죽었다는 기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집에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살아나매, 이 일을 말하지 말라 하신다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네 땅에 떨어진 한 말씀 — 바람과 죽음 앞의 믿음"
- 초벌 부제: "한 말씀의 네 땅에서, 바람과 죽음 앞의 한 물음으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legion·옷단의 술·혈루증 규례)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씨 비유 풀이(11-15절)를 곧장 적용 분류로 굳히지 않도록 → 네 땅의 들음·맺음 어휘만 기록.
- 거라사의 두려움(37절)을 심리 분석으로 풀지 않고 본문 보고만 보존.
- "잔다"(52절)와 비웃음(53절)을 곧장 부활 교리로 정식화하지 않고 어휘 위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8장은 한 말씀이 네 땅에 떨어지고, 바람과 군대와 죽음 앞에서 같은 물음—"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이 도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로 네 땅의 들음을 펼치며 연다. 곧 무대는 거칠어져, 풍량이 "잔잔하라"에 멎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묻힌다. 거라사에서 "군대"라는 귀신이 떠나 한 사람이 옷 입고 정신이 들지

만, 사람들은 두려워 떠나기를 청한다. 돌아오는 길에 혈루증 여인이 옷 가에 손을 대 낫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아이야 일어나라"에 살아난다. 끝은 이 일을 말하지 말라는 침묵의 한 줄이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전도의 길(1-21) → 풍랑의 배(22-25) → 거라사(26-39) → 야이로의 집(40-56). 호수의 뱃길. 씨·등불·돼지·옷 가. sporos·logos·legion.
2 첫 느낌·분위기	차분한 비유에서 몰아치는 표적으로. "두려움"이 따라옴. "믿음"의 거듭된 물음.
3 시작과 끝	시작 — 말씀의 뿌림(1절). 끝 — 침묵의 명함(56절). "들음"이 양끝에.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열둘 / 섬긴 여인들 / 제자들 / 군대 귀신 들린 사람 / 혈루증 여인 / 야이로·딸. 믿음과 두려움. soizo·egeiro.
5 장면 컷	컷 1 길(1-3). 컷 2 씨 비유(4-21). 컷 3 풍랑(22-25). 컷 4 거라사(26-39). 컷 5 여인(40-48). 컷 6 딸(49-56).
6 의문·발견·정보	들음의 "인내"(15). 거라사의 떠남 청함(37). "손을 댄 자"(45). "잔다"와 비웃음(52-53). 끼움 구조.
7 동영상	네 땅의 말씀 → 잔잔해진 풍랑 → 군대 귀신 → 여인의 닿음·딸의 일어남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네 땅에 떨어진 한 말씀 — 바람과 죽음 앞의 믿음". 부제 — "한 말씀의 네 땅에서, 바람과 죽음 앞의 한 물음으로".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비유의 자리와 풍랑의 배와 거라사 땅과 야이로의 방을 걸으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한 말씀, 네 땅:**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11절)이며, 길가·바위·가시·좋은 땅의 들음이 갈린다. 같은 씨가 땅에 따라 다르게 맺힌다.
- 결 2 — 한 물음의 반복:** 풍랑·여인·야이로에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25),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48), "믿기만 하라"(50)가 돈다. 표적마다 같은 물음이 따른다.
- 결 3 — 표적 뒤의 두려움:** 잔잔케 하심 뒤 제자들이, 군대 귀신 쫓음 뒤 거라사 사람들이 두려워한다(25·37절). 구원의 자리에 두려움이 따라붙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8:48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눅 7:50·17:19·18:42로 되올린다.
- 다른 권 — 시 107:28-29 (광풍을 잔잔케), 민 15:38-39 / 레 15 (옷단의 술 / 혈루증).
- 정경 흐름 — 네 표적은 9장의 권능 위임과 변화산으로 이어지는 자리를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씨가 떨어지는 네 땅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풍랑이 "잔잔하라"에 맞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옷 입고 정신 든 거라사 사람 곁에서 멈춘다.
- 멈춤 3: "아이야 일어나라"는 방 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바람과 죽음 앞에서도 같은 물음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이다\*는 걸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 걸\*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씨가 네 땅에 떨어진다
- [x]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 [x] 풍랑이 "잔잔하라"에 멎는다
- [x] 군대 귀신이 떠나 사람이 정신 든다
- [x] 혈루증 여인이 옷 가에 손을 대 낫는다
- [x] 죽은 딸이 "일어나라"에 살아난다
- [x] 끝에 이 일을 말하지 말라 하신다

####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이 책은 사도행전의 전서(前書)로, 개개인의 내면에 임한 통치가 끝내 땅끝으로 폭발하는 호(arc)의 첫 국면을 연다. 8장은 그 통치가 **말씀의 들음으로 마음에 뿌리내리고, 가장 두려운 영역들 위에서 검증되는 자리**다. 씨 뿌리는 비유는 통치가 외적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11절)을 듣고 지키는 마음의 땅에 임함을 보이고, 이어지는 네 표적(바람·군대·질병·죽음)은 그 말씀이 자연·악령·병·사망이라는 가장 두려운 권세 위에 미침을 드러낸다. 특히 거라사의 이방 땅으로 건너가심은 곧 열방을 향한 운동의 한 걸음을 미리 연다. 내적 통치가 말씀의 들음으로 뿌리내리고 두려움의 영역들 위에서 입증되는, 그 좌표에 8장이 선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 말씀의 네 땅(들음의 비유)→네 표적(바람·군대·죽음) / 한 물음—"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의 되돌.**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들음의 비유에서 들음의 시험으로 미는 운동이다. 한 씨가 네 땅에 떨어짐(5-15절) → 잔잔케 하심과 "믿음이 어디 있느냐"(24-25절) → 군대 귀신 쫓음(33절) →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48절) → "믿기만 하라"와 소녀의 일어남(50-54절). 표적마다 같은 pistis의 물음이 되도는 한 운동이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풍랑 잔잔·축귀·혈루증 치유·소녀 소생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한 말씀이 닿는 마음의 땅, 곧 들음과 믿음**이다. 본문은 씨를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11절)이라 풀고, 네 표적은 그 말씀이 가장 두려운 땅 — 자연·악령·병·죽음 — 에서도 맺히는지 시험한다. 그리고 구원이 임한 자리마다 두려움이 따라붙는다(제자들 25절, 거라사 사람들 37절). 표적은 표면이고, 그 아래에는 두려움을 넘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좋은 땅의 믿음이 움직인다. 빙산의 수면 위는 기적이지만, 아래는 한 말씀이 어느 땅에 떨어지는가의 갈림이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죽음의 소식 앞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50절)는 한 말씀에, 내가 두려움 대신 믿음 한쪽을 붙들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한 말씀이 떨어지는 네 땅 앞과 풍랑의 배 안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표적으로 권세를 보이신 그분이 곧 그 권능을 열둘에게 위임하고, 산 위에서 영광으로 빛나더니, 곧 십자가로 얼굴을 굳혀 예루살렘을 향한다.

### 미해결 질문

#### 누가복음 8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 Q1. 좋은 땅의 들음에 왜 "인내"(15절)가 붙는가?

-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 "인내"가 붙은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 Q2. 살린 자리에서 거라사 사람들은 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37절)인가?

- 구원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떠남을 청한다.
- 두려움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 Q3. 무리에 눌리는데도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45절)는 무엇을 찾는가?

- 에워싼 무리 가운데 한 달음을 아신다.
- 찾으심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 Q4. 같은 "잔다"(52절)는 말에 왜 비웃음(53절)이 나는가?

- 한 말에 비웃음이 따라온다.
- 비웃음의 까닭은 관찰로는 보류.

##### Q5. 야이로 이야기 안에 왜 혈루증 이야기가 끼어드는가?

- 한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가 박힌다.
- 끼어듦의 까닭은 본문 보고만 보존.

##### Q6. 큰 일을 두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56절) 하시는가?

- 살리신 뒤 침묵을 명하신다.
- 침묵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9장

LUK-009 · 복음서 · 헬라어

권능을 받은 손이 들을 채우고 산에서 빛나더니, 곧 십자가의 길로 얼굴을 굳히는 장.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자주 옮겨간다: 보내심의 여러 마을(1-6절) → 벧새다(10절) → 기도의 산(28절) → 산 아래(37절) → 예루살렘 향한 길(51절).
- 소품 = 떡 다섯·물고기 둘(13절), 무리를 오십 명씩 앉힘(14절), 남은 열두 바구니(17절).
- 보내실 때 "가지지 말 것" 목록 = 지팡이·배낭·양식·돈·두 벌 옷(3절).
- 변화산의 빛 = 용모 변함·옷이 희어짐(29절), 영광 중 나타난 모세·엘리아(30-31절), 구름(34절).
- dynamis(능력)·exousia(권위)가 1절에 나란히 주어지고, 그 향처는 basileia(하나님 나라, 2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환함(권능·넘치는 떡), 가운데는 산 위의 빛, 뒤는 무거움(십자가·죽임·예루살렘).
-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무능이 바로 붙는다(36-40절).
- "이 사람이 누구냐"는 물음이 분위기를 끈다(9·18·20절).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 보내심으로 열림.
-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 따름의 대가로 닫힘.
- 권능에서 십자가의 길로, 보냄에서 따름의 조건으로 좁혀진다. 51절(예루살렘으로 얼굴 굳힘)이 큰 전환점.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열두 제자 / 헤롯(7-9) / 오천 명 무리 / 베드로(20) / 모세·엘리아(30) /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38-42).
- 헤롯은 "심히 당황하여... 보고자" 하는 못 찾는 자(7-9절).
- 중심 물음 = "나를 누구라 하느냐"(18·20절). 고백(20) 직후 첫 수난 예고(22절).
- 사상 = 자기 부인·날마다 십자가(23절), 목숨(psyche)을 잃음으로 구원함(24절).
- 변화산의 "별세"가 exodos(떠남, 31절) — 어휘만 기록.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 열둘 보내심, 가져갈 것 목록, 헤롯의 당황.

- 컷 2 (10-17): 벧새다, 떡 다섯·물고기 둘, 오천 명, 열두 바구니.
- 컷 3 (18-27):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고백, 첫 수난 예고, 십자가.
- 컷 4 (28-36): 변화산, 희어진 옷, 모세·엘리아, 구름과 음성.
- 컷 5 (37-45): 산 아래 귀신 들린 아이, 고치심, 다시 수난 예고.
- 컷 6 (46-62): 누가 크냐 다툼, 사마리아 마을, 따름의 대가.

## 6 — (1) 원어 카드

- dynamis(δύναμις) — 능력. 1절, exousia와 나란히.
- exousia(ἐξουσία) — 권위. 1절.
- basileia(βασιλεία) — 나라. 2·27·60·62절 "하나님의 나라".
- metamorphoo(μεταμορφώω) 계열 — 용모 변함(29절, 누가는 풀어 씀).
- doxa(δόξα) — 영광. 31·32절 변화산.
- exodos(ἔξοδος) — 떠남·별세. 31절.
- apneuma / 더러운 영(πνεῦμα ἀκάθαρτον) — 42절 귀신 들린 아이.
- stauros(σταυρός) — 십자가. 23절 "제 십자가를 지고".
- psyche(ψυχή) — 목숨·생명. 24절.

## 6 — (2) 문학 구조

- "누구나"의 물음 세 번(9·18·20)이 고백을 향해 좁아짐.
- 수난 예고 두 번(22·44)이 영광의 산을 사이에 두고 놓임.
- 산 위 영광(28-36) ↔ 산 아래 무능(37-43)의 대비.
- 끝의 세 부름(57-62) "나를 따르라"의 세 변주.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보리떡" 대신 누가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적음(13절) — 단순 보고.
- 변화산을 누가만 "기도하실 때에"(29절)로 기도 배경에 둠.
- 51절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는 누가복음의 큰 전환 표지로 본문이 보고.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9 ↔ 마 16:13-28 / 막 8:27-9:1 (베드로 고백·수난 예고)
- 눅 9:28-36 ↔ 마 17:1-8 / 막 9:2-8 (변화산)
- 눅 9:31 "별세"(exodos) ↔ 출애굽의 결
- 눅 9:54 ↔ 왕하 1:10-12 (엘리아의 불)
- 눅 9:62 ↔ 왕상 19:19-21 (엘리사의 쟁기)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열둘이 권능을 받아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다. 헤롯이 소문에 당황하여 "그가 누구인가" 묻는다. 벧새다로 물러간 자리에서 떡 다섯과 물고기 둘로 오천 명이 배부르고 열두 바구니가 남는다.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곧 첫 수난 예고와 "날마

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이어진다. 여드레쯤 뒤 산에서 용모가 변하고 옷이 희어지며 모세·엘리야가 예루살렘에서의 떠남을 말하고, 구름 속 음성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한다. 산에서 내려오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다시 수난을 예고하시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크냐 다툰다. 끝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굳히시고, 따름의 대가가 길 위에서 선포되며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산 위의 빛, 산 아래의 십자가 — 예루살렘으로 굳어지는 얼굴"
- 초벌 부제: "넘치는 떡과 빛나는 산을 지나, 굳어지는 한 얼굴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변화산·기도 배경·엘리야 교차)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변화산의 영광이 교리로 굳지 않도록 → doxa·exodos 어휘 위치만 기록.
- "날마다 제 십자가"(23)가 적용 설교로 흐르지 않도록 어휘·위치만 보존.
- 45절 "숨긴 바 되었음이라"의 까닭은 보류, 본문 보고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9장은 권능을 받은 손이 들을 채우고 산에서 빛나더니, 곧 십자가의 길로 얼굴을 굳히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열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어 내보내고, 떡 다섯 개로 들을 채운다. 그러나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과 베드로의 고백 뒤에 곧 수난이 예고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따라붙는다. 산 위에서 옷이 희어지고 영광이 빛나지만, 산 아래에는 고치지 못한 무능이 기다린다. 끝에서 예수의 얼굴은 예루살렘으로 굳어지고, 따름의 대가가 길 위에 놓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여러 마을(1-6) → 벧새다(10) → 기도의 산(28) → 산 아래(37) → 예루살렘 길(51). 소품 = 떡 다섯·물고기 둘·열두 바구니. dynamis·exousia가 1절에.
2 첫 느낌·분위기	앞은 환함, 가운데 산 위의 빛, 뒤는 무거움. 영광과 무능이 붙음. "누구나"의 물음.
3 시작과 끝	시작 — 보내심(1절). 끝 — 따름의 대가(62절). 권능에서 십자가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열둘 / 헤롯 / 베드로 / 모세·엘리아 / 귀신 들린 아이. 고백 직후 수난 예고(20:22). 사상 = 자기 부인·psyche·exodos.
5 장면 컷	컷 1 보내심(1-9). 컷 2 오천 명(10-17). 컷 3 고백·수난(18-27). 컷 4 변화산(28-36). 컷 5 산 아래(37-45). 컷 6 따름의 대가(46-62).
6 의문·발견·정보	희어진 옷의 doxa. "별세"가 exodos. 산 위·아래 대비. "숨긴 바 되었음"(45). 누가만 "기도하실 때"(29).
7 동영상	권능의 들 → 영광의 산 → 산 아래 무능 → 굳어지는 얼굴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산 위의 빛, 산 아래의 십자가". 부제 — "넘치는 떡과 빛나는 산을 지나, 굳어지는 한 얼굴로".
9 동영상 안건기·기도	들과 산과 길을 걸으며 빛만 붙잡고 싶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채움과 비움:** 떡 다섯으로 들이 넘치는데도(17절), 곧 "자기를 부인하라"(23절)가 이어진다. 넘침과 부인이 한 자리에 있다.
- 결 2 — 영광과 십자가:** 산 위 "영광"(31-32절)과 22절·44절의 수난 예고가 한 장에 함께 놓인다. 빛과 죽임이 나란하다.
- 결 3 — 굳어지는 얼굴:** "얼굴을 굳히어 예루살렘으로"(51절)에서 방향이 한 곳으로 좁아진다. 본문은 권능에서 길로 좁아진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9:23** (제 십자가)와 **눅 14:27** (제자의 대가)이 결을 잇는다.
- 다른 권 — **마 16:13-28** / **막 8:27-9:1** (베드로 고백·수난), **왕상 19:19-21** (엘리사의 쟁기, 62절).
- 정경 흐름 — 51절의 "예루살렘으로 향함"은 누가복음 후반(9-19장) 여행 내러티브의 문을 연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권능으로 채워진 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산 위의 빛이 곧 사라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산 아래 고치지 못한 무능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영광과 십자가는 한 길이다\*는 걸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굳어지는 얼굴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열둘이 권능을 받아 나간다
- [x] 떡 다섯으로 오천이 배부르다
- [x]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베드로가 고백한다
- [x] 산 위에서 옷이 희어진다
- [x]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다
- [x] 수난이 두 번 예고된다
- [x] 얼굴이 예루살렘으로 굳어진다

####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이 책은 사도행전의 전서(前書)로, 개개인의 내면에 임한 통치가 끝내 땅끝으로 폭발하는 호(arc)의 첫 국면을 연다. 9장은 그 통치가 권능에서 십자가의 길로 방향을 굳히는 분기점이다. 열둘에게 권능을 위임하심(1-2절)은 곧 사도행전의 사명을 미리 열고,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 고백(20절)과 변화산의 영광(29-32절)은 메시아의 정체를 확증한다. 그러나 그 영광은 곧 수난 예고(22·44절)와 "얼굴을 굳히어 예루살렘으로"(51절)로 이어진다. 변화산에서 모세·엘리아와 나눈 일이 "별세"(exodos, 31절)로 불리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새 출애굽임을 가리킨다. 능력의 증명에서 고난의 길로 호가 꺾이는, 그 좌표에 9장이 선다 — 51절은 누가복음 후반 여행 내러티브(9-19장)의 문이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권능의 손(위임·오병이어)→굳어지는 얼굴 / 산 위의 영광("별세", exodos)→예루살렘의 십자가.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넓은 들의 권능에서 한 길의 결심으로 미는 운동이다. 권능 위임(1절) → 들을 채운 오병이어(17절) →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20절) → 수난 예고(22절) → 변화산의 영광(29절) → "얼굴을 굳히어 예루살렘으로"(51절). 권능에서 십자가로, 빛에서 길로 한 점에 모이는 운동이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권능 위임·오병이어·변화산의 빛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영광과 십자가가 한 분 안에 묶이는 일이다. 산 위에서 "영광"(32절)으로 빛난 그분이 같은 입으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22절) 하시고, 빛에 머물러는 베드로의 "초막 셋"(33절)에 하늘의 음성은 "그의 말을 들으라"(35절)며 산을 내려가게 한다. 변화산의 영광은 십자가를 가리는 빛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비추는 빛이며, 그 길은 "별세"(exodos)라는 새 출애굽으로 명명된다. 빙산의 수면 위는 권능과 영광이지만, 아래는 영광이 곧 십자가로 굳혀지는 자리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산 위의 빛만 붙들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23절)는 그 굳어진 얼굴을 내가 따라 내려설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변화산의 빛 결과 굳어진 얼굴이 향하는 길 위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얼굴을 굳히어.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굳히신 그분이 곧 일흔을 돌씩 앞서 보내며, 그 굳어진 길 위에서 추수의 일꾼을 향한 운동을 더 넓은 동네들로 펼친다.

### 미해결 질문

#### 누가복음 9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 Q1. 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33절)인가?

-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초막 셋" 제안이 곧 흩어진다고 본문이 덧붙임.
- 그 말이 굳지 않는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 Q2. 산 위 영광과 산 아래 무능은 왜 바로 붙는가?

- 36-40절에서 빛난 자리와 고치지 못한 자리가 잇닿음.
- 두 장면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 Q3. 왜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45절)인가?

- 두 번째 수난 예고를 제자들이 알지 못함.
- "숨김"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 Q4. 영광·수난의 말씀 사이에 왜 "누가 크냐"(46절) 다툼인가?

- 무거운 말씀 직후 제자들의 어긋난 다툼.
- 어긋남만 기록, 관계는 보류.

##### Q5. 51절 "얼굴을 굳히어"는 어떤 결인가?

-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한 곳에 잡힘.
- 표현의 무게는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 Q6. 끝의 세 부름(57-62)이 함께 놓인 까닭은?

- 따르려는 이와 머뭇거리는 이가 같은 끝에.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10장

LUK-010 · 복음서 · 헬라어

둘씩 보내신 일꾼의 들에서, '누가 이웃이냐'는 물음이 한 사람의 발걸음으로 닿는 장.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셋: 추수할 들(2절) →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30절) → 한 마을 마르다의 집(38절).
- 소품 = 기름·포도주(34절), 짐승·주막·두 데나리온(35절). 강도 만난 자는 "옷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30절).
- 보냄의 목록 = "전대·배낭·신발 갖지 말라"(4절), "그 집에 유하라"(7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3절).
- 집의 두 자리 = 분주한 마르다(40절), 발치에 앉은 마리아(39절).
- "이웃"이 plesion(29·36절). "누가 이웃이냐"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로 방향이 뒀.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분주함(보냄), 가운데는 길에서의 멈춤(자비), 끝은 방의 고요(한 가지).
- "둘씩"(1절)의 따뜻함, 혼자 보내지 않음.
- 분주함과 한 가지가 끝에서 대비됨(40·42절).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둘씩 앞서 보내시며" — 여럿의 보냄으로 열림.
-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 한 가지로 닫힘.
- 많음에서 하나로 좁아진다. 가운데 21절(숨김과 나타냄)이 축에 있음.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칠십 인 / 율법교사(25) / 제사장·레위인·사마리아인(31-33) / 마르다·마리아(38-39).
- 칠십 인은 "귀신 항복"에 기뻐하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돌려세움(17·20절).
- 사상 = 이웃. 지나가는 자(31-32)와 다가가는 자(33-34)의 대조.
- "불쌍히 여겨"가 splanchnizomai(33), "자비를 베푸 자"가 eleos(37).
- 마르다의 분주함(merimnao, 40)과 마리아의 한 가지(42)의 대조.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2): 칠십 인 보냄, 머물 집, 평안을 뵈.
- 컷 2 (13-16): 고라신·벧새다·가버나움에 화.
- 컷 3 (17-24): 돌아옴, "하늘에 기록", 어린 아이에게 나타냄.
- 컷 4 (25-29): 율법교사의 두 물음.

- 컷 5 (30-37): 선한 사마리아인, "너도 이와 같이 하라".
- 컷 6 (38-42): 마르다·마리아,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 6 – (1) 원어 카드

- plesion(πλησίον) – 이웃. 29·36·37절.
- eleos(ἔλεος) – 자비. 37절 "자비를 베푸는 자".
- splagchnizomai(σπλαγχνίζομαι) – 깊이 불쌍히 여기다. 33절.
- ergates(ἐργάτης) – 일꾼. 2·7절 "추수할 일꾼".
- merimnao(μεριμνάω) – 염려·분주하다. 40-41절 마르다.
- eirene(εἰρήνη) – 평안. 5-6절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 agape(ἀγάπη) 계열 – 사랑하라(27절, 율법 인용).

### 6 – (2) 문학 구조

- 보냄(1-16) → 돌아옴·감사(17-24) → 비유(25-37) → 집(38-42)의 네 묶음.
- 비유 속 "내려가다"(31)의 반복, 세 사람의 같은 길.
- 두 물음(25·29)이 비유를 끌어냄, "누가 이웃이냐"의 방향 전환(29→36).
- 사마리아인의 동사 연쇄(다가가·싸매·태워·데려가·돌보아·부탁, 34-35).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누가만 "칠십(이) 인"의 따로 보냄을 둠(1절) – 9장 열둘과 나란히.
- "두 데나리온"(35)은 당시 노동 이틀 품삯 정도 – 배경으로만.
-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예루살렘보다 고도가 낮아 실제 "내려감"(30) – 지리 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10:1 ↔ 눅 9:1-6 (칠십 인 보냄 / 열둘 보냄)
- 눅 10:27 ↔ 신 6:5 / 레 19:18 (사랑하라의 두 계명 인용)
- 눅 10:13-15 ↔ 마 11:21-23 (고라신·벳새다·가버나움)
- 눅 10:41 "분주" ↔ 눅 12:22-31 (염려, merimnao)
- 눅 10:38-42 ↔ 요 11:1 / 12:2-3 (마르다·마리아의 집)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칠십 인이 둘씩 앞서 보냄을 받아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며 마을마다 들어간다. 돌아온 그들이 귀신의 항복에 기뻐하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신다. 한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묻자,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본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다. 길을 가시다 마르다의 집에 드시니, 마르다는 분주하고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 듣는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 지나가는 자와 멈추는 자"
- 초벌 부제: "넓은 들과 좁은 길을 지나, 한 가지가 남는 방으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칠십 인·두 데나리온·여리고 지리·율법 인용)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37)가 적용 설교로 흐르지 않도록 → 비유 속 동사 위치만 기록.
- 마르다·마리아의 두 자리가 우열 교리로 굳지 않도록 → 본문의 "한 가지"(42) 표현만 보존.
- splanchnizomai·eleos는 어휘 분포만, 신학화 보류.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10장은 둘씩 보냄을 받은 일꾼의 들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는 물음이 한 가지 좋은 편으로 좁아지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칠십 인을 둘씩 보내고, 돌아온 기쁨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돌려세운다. 율법교사의 두 물음 앞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지나가는 자와 멈추는 자가 같은 길에 놓인다. "누가 이웃이냐"는 물음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로 방향을 돌리고, 끝에는 분주한 마르다와 발치의 마리아가 한 방에서 "한 가지"로 좁아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추수할 들(2) → 여리고 길(30) → 마르다의 집(38). 소품 = 기름·포도주·주막·두 데나리온. plesion의 두 결.
2 첫 느낌·분위기	분주함 → 멈춤 → 고요. "둘씩"의 따뜻함. 분주함과 한 가지의 대비.
3 시작과 끝	시작 — 여럿의 보냄(1절). 끝 — 한 가지(42절). 많음에서 하나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칠십 인 / 율법교사 / 제사장·레위인·사마리아인 / 마르다·마리아. 사상 = 이웃. splagchnizomai·eleos·merimnao.
5 장면 컷	컷 1 보냄(1-12). 컷 2 화(13-16). 컷 3 돌아옴(17-24). 컷 4 두 물음(25-29). 컷 5 사마리아인(30-37). 컷 6 두 자매(38-42).
6 의문·발견·정보	"내려가다"의 반복(31). 사마리아인의 동사 연쇄(34-35). 칠십 인의 따로 보냄. 두 데나리온 배경.
7 동영상	분주한 들 → 멈춰 선 자비 → 한 가지로 좁아지는 방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 지나가는 자와 멈추는 자". 부제 — "넓은 들과 좁은 길을 지나, 한 가지가 남는 방으로".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들과 길과 방을 걸으며 발치에 앉지 못하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보냄과 기쁨의 자리:** 칠십 인이 권능에 기뻐할 때(17절),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20절)며 기쁨의 자리를 옮긴다. 능력과 기록이 한 자리에 있다.
2. **결 2 — 이웃의 방향 전환:** "내 이웃이 누구냐"(29절)는 물음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36절)로 돈다. 같은 plesion이 대상에서 행함으로 옮긴다.
3. **결 3 — 분주함과 한 가지:** 마르다의 많은 일과 마리아의 한 가지(40·42절)가 한 방에 놓인다. 본문은 많음에서 하나로 좁아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9:1-6 (열둘 보냄)과 결을 잇고, 눅 12:22-31 (염려, merimnao)으로 이어진다.
- 다른 권 — 신 6:5 / 레 19:18 (사랑하라의 두 계명, 27절), 요 11:1 / 12:2-3 (마르다·마리아).
- 정경 흐름 — 10장의 "이웃" 비유는 9:51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여행 내러티브 안에서, 따름의 길이 무엇인지를 길 위에서 보여 준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둘씩 보냄 받는 일꾼의 들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능력의 기쁨이 다른 기쁨으로 옮겨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강도 만난 자 길을 지나는 두 사람을 보며 멈춘다.
- 멈춤 3: 분주함으로 발치에 앉지 못한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이웃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 주는 것이다\*는 결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분주한 부엌과 조용한 발치 사이\*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칠십 인이 들씩 보냄을 받는다
- [x] 기쁨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옮겨진다
- [x] 율법교사가 두 번 묻는다
- [x] 제사장·레위인은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멈춘다
- [x]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로 방향이 돈다
- [x] 마르다는 분주하고 마리아는 듣는다
- [x] 끝은 "한 가지 좋은 편"이다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이 책은 사도행전의 전서(前書)로, 한 사람의 내면에 임한 통치가 끝내 땅끝으로 폭발하는 호(arc)를 향한다. 10장은 그 호에서 통치가 처음으로 들씩 보내져 바깥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국면이다. 칠십(혹은 칠십이) 인이 들씩 앞서 보내져 동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9·11절)고 전하는 장면은, 12장의 사도 파송이 더 넓은 무리로 확장되는 자리다. 그러나 같은 장이 곧바로 안으로 좁아진다 — "누가 내 이웃이냐"는 따짐이 여리고 길의 한 사람 곁으로, 그리고 마르다의 집 발치로 좁아진다. 열방을 향한 보냄과 한 사람의 내면이 한 장에 맞물리는 — 그 좌표에 10장이 선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누가 내 이웃이냐'는 따짐 → '이웃이 되어 줌'으로 / 넓은 추수 들 → 한 사람의 발치(분주함 → 한 가지).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대상을 정하려는 물음에서 되어 주는 발걸음으로 미는 운동이다. 칠십 인의 넓은 들 → 율법교사의 따짐(25절) → 멈춰 다가간 사마리아인 →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37절) → 마르다의 분주함을 지나 마리아의 한 자리(42절). 넓은 들에서 길로, 길에서 한 방의 발치로 카메라가 좁혀 들어가는 한 운동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파송·비유·접대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멈춰 서서 가까이 다가가는 인격의 회복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멈춰 "불쌍히 여겨"(splagchnizomai, 창자가 움직이는 자비) 다가 손으로 싸맨다. 마르다는 분주함에 끌려가고, 마리아는 발치에 멈춰 듣는다. 권능의 기쁨조차 "귀신들이 항복하는" 데 있지 않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데로(20절) 멈춰 세워진다. 빙산의 수면 위는 이웃 논쟁과 접대지만, 아래는 분주함을 뚫고 멈춰 서서 한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통치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물음을 멈추고 손이 움직이는가 — '누가 내 이웃이냐'를 따지는 자리에서, 내가 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는 자리로 옮겨 서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여리고 길의 멈춤 결과 마리아의 발치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이웃이 되어 줌.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이웃에게로 다가가던 발걸음이 기도의 청함으로 —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11:1)로 좁아져, 바깥으로 향하던 운동이 아버지를 향한 두드림으로 돌아선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10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둘씩"(1절) 보내시는가?

- 혼자 보내지 않고 짝으로 보내심.
- 그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율법교사는 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29절) 두 번째를 묻는가?

- 옳게 보이려는 마음과 "이웃이 누구냐"는 물음이 함께 옴.
- 두 절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3. 왜 제사장·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가는가"(31-32절)?

- 같은 길을 같은 자리에서 비켜 감.
- 본문은 까닭을 말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4. "누가 이웃이냐"(29)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36)는 어떻게 다른가?

- plesion의 방향이 대상에서 행함으로 뒀.
- 두 절의 차이만 기록, 관계는 보류.

Q5. 마르다의 "많은 일"과 마리아의 "한 가지"는 어떻게 함께인가?

- 한 방의 두 자리가 나란히 놓임.
- 우열을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Q6. "하늘에 기록된 것"(20)으로 기쁨을 돌리심은 어떤 결인가?

- 귀신의 항복과 이름의 기록이 함께 놓임.
- 나란히 뒀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11장

LUK-011 · 복음서 · 헬라어

기도의 말을 청하는 자리에서 시작해, 끈질긴 두드림과 손가락의 권능을 지나, 거듭된 '화'로 굳어지는 장.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셋: 기도 마치신 한 곳(1절) → 무리 가운데의 논쟁(14절) → 바리새인의 점심 식탁(37절).
- 소품 = 떡 세 덩이(5절), 생선·알(11-12절), 등불·등잔대(33절), 잔과 대접의 걸(39절), 십일조 채소(42절).
- 14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으시자 말 못하던 자가 말함.
- "강청함"이 anaideia(8절), "하나님의 손가락"이 daktylos(20절, 누가 고유 표현).
- 빛의 묶음 = 등불·말·평상·눈·빛·어둠(33-36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조용한 청함(기도), 뒤는 날카로운 화. 잔잔함에서 날카로움으로.
- "구하라·찾으라·두드리라"(9절)의 세 동사 리듬.
- 끝의 "화 있을진저" 여섯 번(42-52절)이 굳어짐을 만듦.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 청함으로 열림.
- 53-54절: "거세게 달려들어... 책잡고자 하더라" — 적의로 닫힘.
- 배움의 청에서 책잡는 노여움으로 멀어진다. 가운데 28절(듣고 지키는 복).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제자 한 사람(1) / 무리 / "바알세불" 의심자(15) / 표적 구하는 자(16) / 한 여자(27) / 바리새인·율법교사(37-52).
- 상황 = 의심(15)과 시험(16)이 함께 옴.
- 사상 = 구하라(9-10)와 나라(20). 구함과 임한 나라가 한 장에.
- 바알세불(Beelzeboul) 논쟁(19), 나갔다 일곱 데려옴(24-26), 요나의 표적( semeion, 29-32).
- 여섯 화 = 바리새인 셋(42·43·44), 율법교사 셋(46·47·52).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청, 주기도문.
- 컷 2 (5-13): 끈질긴 친구, "구하라", 좋은 것을 주심.
- 컷 3 (14-28): 바알세불 논쟁, "하나님의 손가락", 듣고 지키는 복.

- 컷 4 (29-32): 표적 구하는 세대, 요나의 표적.
- 컷 5 (33-36): 등불과 눈.
- 컷 6 (37-54): 바리새인 식탁, 여섯 화, 거세지는 적의.

## 6 – (1) 원어 카드

- proseuchomai(προσεύχομαι) – 기도하다. 1-2절.
- anaideia(ἀναίδεια) – 부끄럼 없는 끈질김. 8절.
- daktylos(δάκτυλος) – 손가락. 20절 "하나님의 손가락".
- Beelzeboul(Βεελζεβούλ) – 바알세불, 귀신의 왕. 15·18·19절.
- semeion(σημεῖον) – 표적. 16·29·30절 "요나의 표적".
- lychnos(λύχνος) – 등불. 33·34·36절.
- ouai(οὐαί) – 화 있을진저. 42-52절 여섯 번.

## 6 – (2) 문학 구조

- 기도(1-13) → 논쟁(14-28) → 표적(29-32) → 빛(33-36) → 화(37-54)의 묶음.
- "구함" 세 변주 – 끈질긴 친구(5-8) / 구하라(9-10) / 좋은 것을 주심(11-13).
- "화 있을진저"(ouai)의 여섯 반복, 바리새인 셋·율법교사 셋의 대칭.
- 양 끝 대조 – 가르쳐 달라는 청(1) ↔ 책잡으려는 적의(53-54).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하나님의 손가락"(20)은 출 8:19의 직역 표현과 통함 – 누가 고유 선택.
- 주기도문의 누가본은 마태본보다 간결 – 본문 비교 배경.
- "박하·운향" 십일조(42)는 작은 채소까지의 율법 적용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11:2-4 ↔ 마 6:9-13 (주기도문)
- 눅 11:20 ↔ 출 8:19 (하나님의 손가락)
- 눅 11:29-32 ↔ 욥 1-3 / 왕상 10:1 (요나·스바 여왕)
- 눅 11:9-13 ↔ 마 7:7-11 (구하라·좋은 것)
- 눅 11:42-52 ↔ 마 23:1-36 (바리새인에 대한 화)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청한다. 짧은 기도를 주시고, 밤중에 떡을 청하는 끈질긴 친구를 들려주시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으시자 어떤 이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하고 어떤 이는 표적을 구한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쫓아낸다면 나라가 임한 것"이라 하시고, "이 세대가 요나의 표적밖에 받을 것이 없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신다. 한 바리새인의 점심 자리에서 잔의 겉, 십일조, 율법교사의 무거운 짐과 지식의 열쇠를 두고 화를 거듭 말씀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거세게 달려들어 책잡으려 하는 데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가르쳐 주옵소서에서 화 있을진저로 — 구함과 노여움 사이"
- 초벌 부제: "구하라는 말과, 책잡으려는 노여움 사이"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손가락·요나·십일조·주기도문 비교)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주기도문이 형식 교리로 굳지 않도록 → 누가본의 간결성만 기록.
- "하나님의 손가락"(20)이 신학화되지 않도록 → 출 8:19 배경 표현만 보존.
- 여섯 화(ouai)가 정죄 설교로 흐르지 않도록 → 반복 위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11장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청에서 시작해, 끈질긴 구함과 임한 나라를 지나 거둬진 화로 굳어지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청에 짧은 기도로 답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세 동사로 끈질긴 구함을 그린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으신 자리에서 바알세불 논쟁이 일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쫓아낸다면 나라가 임한 것"이라 하신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만이 주어지고, 끝에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향한 여섯 화가 식탁 위에 놓이며, 책잡으려는 적의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기도처(1) → 논쟁(14) → 식탁(37). 소품 = 떡 세 덩이·생선·알·등불·잔의 걸·십일조. anaideia·daktylos.
2 첫 느낌·분위기	조용한 청함 → 날카로운 화. "구하라·찾으라·두드리라"의 리듬. 여섯 화의 굳어짐.
3 시작과 끝	시작 — 가르쳐 달라는 청(1절). 끝 — 책잡으려는 적의(53-54절). 청함에서 노여움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제자 한 사람 / 의심자·표적 구하는 자 / 한 여자 / 바리새인·율법교사. 사상 = 구하라와 임한 나라. Beelzeboul·semeion.
5 장면 컷	컷 1 주기도(1-4). 컷 2 구하라(5-13). 컷 3 바알세불(14-28). 컷 4 요나의 표적(29-32). 컷 5 등불(33-36). 컷 6 여섯 화(37-54).
6 의문·발견·정보	누가본 주기도의 간결. anaideia의 까닭. "손가락"의 출 8:19 배경. 빛의 묶음. 나갔다 일곱 데려옴.
7 동영상	조용한 기도 → 끈질긴 두드림·논쟁 → 거듭된 화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가르쳐 주옵소서에서 화 있을진저로". 부제 — "구하라는 말과, 책잡으려는 노여움 사이".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기도처와 식탁을 걸으며 잔의 걸만 뒹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구함의 세 변주:** 끈질긴 친구(5-8절), "구하라"(9-10절),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11-13절)가 한 묶음으로 놓인다. 두드림과 받음이 한 자리에 있다.
2. **결 2 — 손가락과 임한 나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나라가 임한 것"(20절)에서 권능과 나라가 한 줄에 놓인다.
3. **결 3 — 청함과 화:** 가르쳐 달라는 청(1절)과 여섯 화(42-52절)가 같은 장에 놓인다. 본문은 배움에서 적의로 멀어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18:1-8** (끈질긴 과부의 기도)과 **결**을 잇고, **눅 12:1**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이어진다.
- 다른 권 — **마 6:9-13** (주기도문), **출 8:19** (하나님의 손가락), **욥 1-3** (요나의 표적), **마 23** (화).
- 정경 흐름 — 11장의 "임한 나라"는 누가복음 여행 내러티브 안에서, 구함과 논쟁이 한 길 위에 놓임을 보여 준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기도를 가르쳐 달라 청하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끈질김이 까닭이 되는 비유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손가락으로 쫓아낸다"는 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잔의 걸만 뒹던 식탁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구함과 화는 같은 입에서 나온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가르쳐 달라는 청과 책잡으려는 적의 사이\*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 청한다
- [x]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주어진다
- [x]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난다
- [x]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라를 가리킨다
- [x] 표적 구하는 세대에 요나의 표적만 주어진다
- [x] 여섯 화가 식탁 위에 놓인다
- [x] 끝은 책잡으려는 적의다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11장은 그 호(arc)에서 **나라가 어떻게 임하며 무엇에 부딪히는가**를 보이는 국면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20절)는 선언은, 옛 출애굽의 권능(출 8:19)이 다시 임해 통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린다. 그러나 임한 나라는 곧 두 저항에 부딪힌다 — 바알세불의 비방과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 누가의 나라가 외적 정복이 아니라 마음과 식탁을 파고드는 내면적 통치이기에, 그 충돌도 겉과 속, 정결과 탐욕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임한 나라와 그것을 거스르는 외식이 한 장에 맞물리는 — 그 좌표에 11장이 선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청함)→'책잡으려는 노여움'(적의) / **겉의 정결**→**드러나는 속**.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배우려는 청함에서 굳어 가는 적의로 미는 운동이다. 기도의 청(1절) → 끈질긴 두드림과 "구하라"(9절) → 손가락의 권능과 임한 나라(20절) → 표적을 구하는 세대 → 식탁의 여섯 화 → 책잡으려 달려들(54절). 기도처에서 논쟁으로, 논쟁에서 식탁으로 좁혀지며 적의가 또렷해지는 한 운동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기도 교훈·축귀·논쟁·식탁의 화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겉과 속의 자리바꿈, 곧 속이 드러나는 통치**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39절)는 말은,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35절)를 묻는 등불의 비유와 한 걸로 겹친다. 십일조의 정밀함과 윗자리의 영광이라는 겉이,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 앞에서 벗겨진다. 빙산의 수면 위는 논쟁과 화의 선언이지만, 아래는 외식의 겉을 벗기고 속의 빛을 묻는 인격적 통치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부끄러움 없이 거듭 두드리는가 — 잔의 겉만 닦으며 윗자리를 찾는 자리에서, 밤중의 문을 끈질기게 두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옮겨 서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끈질긴 친구의 두드림 결과 식탁의 화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바리새인의 누룩.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식탁의 외식을 향한 화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12:1)로 — 걸을 벗기던 운동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날과 깨어 기다림으로 이어진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1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우정이 아니라 "끈질김"(8절, *anaideia*)이 까닭인가?**

- 벗 됨이 아니라 강침함으로 일어나 준다고 함.
- 그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하나님의 손가락"(20절)은 왜 "성령" 대신인가?**

- 누가만 "손가락"으로 적음.
- 어휘 선택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3. 나갔다 일곱을 데려온 귀신(24-26절)은 어떤 결인가?**

-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다고 함.
- 그 그림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4. 왜 "요나의 표적밖에"(29절)인가?**

- 표적 구하는 세대에 다른 표적을 주지 않음.
- 까닭은 보류, 본문 보고만 기록.

**Q5. 복을 비는 여자에게 왜 "듣고 지키는 자"(27-28절)로 돌려세우는가?**

- 뱀과 돌려세움이 나란히 놓임.
- 두 결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6. 기도의 청함과 거듭된 화는 왜 한 장에 함께인가?**

- 가르쳐 달라는 청과 책잡는 적의가 같은 장에.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누가복음 12장

LUK-012 · 복음서 · 헬라어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는 말로 열려, 공간을 짓는 부자와 들의 백합을 지나, 깨어 기다리는 중으로 닫히는 장.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모인 한 자리(1절). 한 곳에서 말씀이 길게 이어짐.
- 소품 = 참새 다섯·두 앓사리온(6절), 곳간·곡식(18절), 까마귀·백합·솔로몬의 영광(24·27절), 등불·띠·땀허리(35절).
- 13절: 무리 중 하나가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끼어들.
- "누룩"이 zyme(1절), "탐심"이 pleonexia(15절).
- 35절 이후 무대가 밤 — 등불·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도둑의 시각.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긴장(조심하라·두려워하라), 가운데는 숨 트임(백합), 끝은 다시 팽팽함(깨어 있으라·분쟁).
- "감추인 것이 드러나리라"(2절)가 첫 분위기를 정함.
- "염려하지 말라"의 반복(22-29절)이 가운데를 채움.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 경고로 열림.
- 59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 셈의 다급함으로 닫힘.
- 드러남에서 셈으로 좁혀진다. 가운데 34절(보물과 마음).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제자들 / 수만 명 무리 / 유산 청하는 한 사람(13) / 어리석은 부자(16-20) / 깨어 있는 중·주인·도둑(35-40).
- 부자는 "내" 곡식·곳간·영혼을 되뇌다 "어리석은 자"(aphron)로 불림(19-20절).
- 사상 = 염려(merimnao, 22-29)와 보물(thesauros, 33-34), 깨어 있음(gregoreo, 35-40).
- "두려워 말라"(4·7·32)와 "두려워할 자"(5)가 한 자리에.
- 알고도 행치 않은 좋은 많이, 알지 못한 좋은 적게 맞음(47-48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2): 누룩, 드러남, 참새 다섯, 두려워할 이.
- 컷 2 (13-21): 유산 다툼, 탐심, 어리석은 부자.

- 컷 3 (22-34):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백합, 보물과 마음.
- 컷 4 (35-40): 띠·등불, 깨어 기다림, 도둑의 시각.
- 컷 5 (41-48): 충성된 청지기, 알고도 행치 않은 종.
- 컷 6 (49-59): 불·분쟁, 시대 분간, 화목하라.

#### 6 — (1) 원어 카드

- zyme(ζύμη) — 누룩. 1절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
- pleonexia(πλεονεξία) — 탐심. 15절.
- aphron(ἄφρων) — 어리석은 자. 20절.
- psyche(ψυχή) — 영혼·목숨. 19·20·22·23절.
- merimnao(μεριμνάω) — 염려하다. 22·25·26절.
- thesauros(θησαυρός) — 보물. 33·34절.
- gregoreo(γρηγορέω) — 깨어 있다. 37절(누가는 풀어 씀).

#### 6 — (2) 문학 구조

- 누룩·드러냄(1-12) → 부자(13-21) → 염려(22-34) → 깨어 있음(35-48) → 분쟁·분간(49-59)의 묶음.
- "두려워 말라"(4·7·32)와 "두려워할 자"(5)의 대조.
- 까마귀(24)와 백합(27)의 짝, "심지도 거두지도"."길쌈도 아니하고".
- 쌓음(부자)과 깨어 있음(종)의 양 끝 대조.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참새 두 앓사리온"(6)은 당시 가장 값싼 양식 새 시세 — 배경으로만.
- "솔로몬의 모든 영광"(27)은 왕상 10장의 영화 — 배경 인용.
- 밤의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36)·"이경·삼경"(38)은 야경 시각 구분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12:22-31 ↔ 눅 10:41 (염려, merimnao)
- 눅 12:27 ↔ 왕상 10:4-7 (솔로몬의 영광)
- 눅 12:33-34 ↔ 마 6:19-21 (보물과 마음)
- 눅 12:35-40 ↔ 마 24:42-44 (깨어 있으라·도둑)
- 눅 12:51-53 ↔ 미 7:6 (분쟁·집안의 갈림)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모인 자리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리라", "참새 다섯도 잊히지 않는다" 하신다. 무리 중 하나가 유산을 나누게 해 달라 하자,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고 공간을 더 크게 짓다 그 밤에 영혼을 찾으신 어리석은 부자를 들려주신다. 이어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까마귀와 백합을 보라 하시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으리라" 하신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기다리라" 하시며 도둑의 시각과 충성된 청지기를 말씀하신다. 끝으로 "불을 던지려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 하시고, "이 시대를 분간하라", "화목하라" 하시는 데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곳간을 짓던 그 밤 — 쌓음과 깨어 있음 사이"
- 초벌 부제: "쌓아 두려는 손과, 깨어 기다리는 손 사이"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참새 시세·솔로몬·야경 시각·미가 인용)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불·분쟁"(49-51)이 종말 교리로 굳지 않도록 → 본문 표현·미 7:6 배경만 기록.
- 어리석은 부자가 도덕 설교로 흐르지 않도록 → "내"의 반복과 aphron 위치만 보존.
- "두려워 말라"와 "두려워할 자"의 긴장은 어휘 위치만, 관계는 보류.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12장은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는 말로 열려, 곳간을 짓는 손과 깨어 기다리는 손 사이로 흐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경고와 "감추인 것이 드러나리라"는 말로 시작한 다. 유산을 다투는 자리에서 탐심을 물리치고, 곳간을 더 크게 짓던 밤에 영혼을 찾기신 어리석은 부자를 들려준다. 이어 까마귀와 백합을 보라 하며 염려를 거두게 하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으리라" 한다. 끝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채 깨어 기다리는 종이 놓이고, 불과 분쟁과 시대 분간의 다급함으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수만 명의 한 자리(1). 소품 = 참새 다섯·곳간·까마귀·백합·등불·띠. zyme·pleonexia.
2 첫 느낌·분위기	긴장 → 숨 트임(백합) → 다시 팽팽함. "감추인 것이 드러나리라". "염려하지 말라"의 반복.
3 시작과 끝	시작 — 누룩 경고(1절). 끝 — 썸의 다급함(59절). 드러남에서 썸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제자들 / 무리 / 유산 청하는 한 사람 / 어리석은 부자 / 깨어 있는 중. 사상 = 염려·보물·깨어 있음. aphron·thesauros·gregoreo.
5 장면 컷	컷 1 누룩(1-12). 컷 2 부자(13-21). 컷 3 염려(22-34). 컷 4 깨어 기다림(35-40). 컷 5 청지기(41-48). 컷 6 분쟁·분간(49-59).
6 의문·발견·정보	두 결의 두려움. 부자의 "내". 참새의 값과 기억. 까마귀·백합의 짝. 알고도 행치 않은 중.
7 동영상	드러나는 군중 → 곳간을 짓는 부자·들의 백합 → 깨어 기다리는 중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곳간을 짓던 그 밤". 부제 — "쌓아 두려는 손과, 깨어 기다리는 손 사이".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군중과 곳간과 밤의 문 앞을 걸으며 "평안히 쉬자" 하던 밤을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드러남:**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2절)로 열려, 외식의 누룩(1절)이 벗겨진다. 가려 짐과 드러남이 한 자리에 있다.
2. **결 2 — 쌓음과 그 밤:** 곳간을 더 크게 짓던 손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20절)가 같은 줄에 놓인다. 쌓음과 떠남이 붙어 있다.
3. **결 3 — 보물과 깨어 있음:**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34절)와 "깨어 기다리라"(37절)가 한 장에 놓인다. 본문은 쌓음에서 깨어 있음으로 좁아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10:41** (염려, merimnao)과 결을 잇고, **눅 16:13-31** (재물·부자)로 이어진다.
- 다른 권 — **마 6:19-21** (보물과 마음), **마 24:42-44** (깨어 있으라), **미 7:6** (집안의 분쟁), **왕상 10** (솔로몬의 영광).
- 정경 흐름 — 12장의 "깨어 있으라"는 누가복음 여행 내러티브 안에서, 쌓음과 기다림의 갈림을 한 무리 앞에 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서로 밟힐 만큼 모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는 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곳간을 짓던 밤에 영혼을 찾하시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까마귀와 백합이 입혀지는 그림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쌓아 둔 손은 그 밤을 모른다\*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곳간의 문턱과 깨어 기다리는 문 사이\*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신다
- [x]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 [x] 어리석은 부자가 곳간을 짓다 영혼을 찾긴다
- [x] 까마귀와 백합을 보라 하신다
- [x]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 [x] 깨어 기다리는 종이 복되다
- [x] 끝은 시대 분간과 화목의 다급함이다

####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이며, 누가의 한 특징은 **구원자의 능동적 고대(에타는 갈망)**다. 12장은 그 호(arc)에서 **임할 나라를 향한 마음의 준비와, 그 나라를 던지려는 이의 타오르는 갈망**이 만나는 국면이다.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31절)와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32절)가 곳간을 움켜쥔 손과 대조되고, 그 한가운데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49절)가 박힌다. 닫혔던 침묵을 깨고 임한 나라(11:20)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불로 던져지기를 애타게 고대하는 자리 — 그 좌표에 12장이 선다. 깨어 기다리는 종(35-40절)은 그 고대에 마음으로 응답하는 모습이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쌓아 두려는 손'(곳간)→'깨어 기다리는 손'(등불) / "내"의 움켜쥔→"그의 나라"를 구함 — 그 한가운데 던져진 한 불(49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움켜쥔에서 깨어 기다림으로 미는 운동이다. 누룩을 주의하라(1절) → 곳간을 짓는 부자의 밤(18-20절) → 까마귀·백합의 숨 트임(24·27절) → "그의 나라를 구하라"(31절) → 띠 띠고 등불 켜 종(35절) → 던져진 불과 분쟁(49·51절) → 시대 분간과 화목의 다급함. 대낮의 군중에서 밤의 등불로 좁혀지며, 그 밤이 던져진 불의 빛과 겹치는 한 운동이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유산 다툼·곳간·염려·밤의 기다림·시대 분간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두 걸로 만져진다. 첫째, "내"에서 "그의 나라"로 옮겨지는 **마음의 회복**이다. 어리석은 부자는 "내 곡식·내 곳간·내 영혼"이라 "내"를 되뇌다(17-19절) 그 밤에 영혼(psyche)을 도로 찾긴다. 움켜쥔 "내"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31절)가 열린다. 둘째, 더 깊은 수면 아래에 **구원자 자신의 에타는 고대**가 있다.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49절)과 "받을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50절)는, 던지는 이가 그 불이 붙기를 짓눌리듯(synechomai) 갈망함을 드러낸다. 빙산의 수면 위는 재물과 깨어 있음의 교훈이지만, 아래는 한 사람의 마음에 던져지기를 애타게 고대하는 한 불이다.

##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이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가 — 공간을 짓느라 꺼져 있지는 않은가. 던지는 이가 그토록 애타게 불기를 고대할 그 불이, 내 마음에서 깨어 등불로 타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공간의 밤과 던져진 불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불 앞에 머물러 "이 불이 내 안에 타오르는가" 묻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깨어 있으라.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시대를 분간하라는 다급함이 "회개하라"(13:3·5)로 — 던져진 불 앞에서 깨어 있으라 던 부름이, 한 해 더 두어진 열매 없는 나무와 좁은 문의 다급함으로 이어진다.

### 미해결 질문

#### 누가복음 1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 Q1. "두려워 말라"(4·7·32)와 "두려워할 자"(5)는 어떻게 함께인가?

- 한 자리에 두 결의 두려움이 놓임.
-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보존.

#### Q2. 부자의 "내"(17-19절)는 왜 어리석음으로 불리는가?

- 곡식·공간·영혼을 "내"라 되님.
- 까닭은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 Q3. 참새의 "값"과 "기억"(6절)은 어떻게 나란한가?

- 가장 값싼 새가 잊히지 않는다 함.
- 두 결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 Q4. 백합의 평안과 "분쟁"(49-51)은 어떻게 함께인가?

- 같은 장에 평안과 분쟁이 놓임.
- 관계는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 Q5. 알고도 행치 않은 종과 알지 못한 종(47-48)의 매의 무게는?

- 앎의 정도에 따라 매가 다르다 함.
- 그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 Q6. 쌓음과 깨어 있음은 왜 한 장에 함께인가?

- 공간을 짓는 손과 깨어 기다리는 손이 같은 장에.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13장

LUK-013 · 복음서 · 헬라어

회개를 묻는 자리에서 열매 없는 나무를 한 해 더 두고, 굵은 여인이 퍼지며 좁은 문과 한 탄식으로 닫히는 장.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여럿: 소식 전하는 자리(1절) → 포도원(6절) → 안식일 회당(10절) → 각 성·마을 길(22절) → 예루살렘을 바라봄(34절).
- 소품 = 무화과나무·거름(6-8절), 굵은 여인(11절), 겨자씨·누룩·가루 서 말(19·21절).
- 회당장이 "옛새 동안에 일할 것"(14절) 따짐.
- "회개하라"가 metaneo(3·5절), "꼬부라져"가 synkyptousa(11절), "좁은 문"이 stene(24절).
- 끝의 "암탉(ornis)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34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무거운 소식(피·망대), 가운데는 퍼짐의 환함(여인), 끝은 슬픈 탄식(예루살렘).
- "회개하라"(3·5절)의 똑같은 두 번 반복.
- 작음→큼(겨자씨·누룩)의 자람이 가운데 숨을 틔움.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3절: 갈릴리 사람들의 피 소식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 회개의 부름으로 열림.
- 35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 탄식으로 닫힘.
- 회개의 부름에서 도성의 탄식으로 흐른다. 가운데 24절(좁은 문).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소식 전한 사람들(1) / 포도원 주인·과원지기(6-9) / 굵은 여인·회당장(11-14) / 바리새인·헤롯·예루살렘(31-34).
- 굵은 여인은 열여덟 해 매였다가 퍼져 영광 돌림(13절); 회당장은 분히 여김(14절).
- 사상 = 회개(3·5)와 열매(6-9), 좁은 문(24).
- "아브라함의 딸"(16)과 안식일 짐승 "풀어"(15)의 대조.
-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나중 된 자로서 먼저"(30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피·망대 소식, 두 번 "회개하라".
- 컷 2 (6-9): 열매 없는 무화과,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

- 컷 3 (10-17): 안식일 굶은 여인의 퍼짐, 회당장의 분노.
- 컷 4 (18-21): 겨자씨·누룩.
- 컷 5 (22-30): 좁은 문, 닫힌 문, "먼저와 나중".
- 컷 6 (31-35): 헤롯·바리새인, 예루살렘 탄식.

## 6 — (1) 원어 카드

- metanoeo(μετανοέω) — 회개하다·생각을 돌이키다. 3·5절.
- syke(συκῆ) — 무화과나무. 6-7절.
- synkruptousa(συγκόπτουσα) — 완전히 굶은. 11절.
- stene(στενή) — 좁은 (문). 24절.
- zyme(ζύμη) — 누룩. 21절(자람의 비유).
- ornis(ὄρνις) — 암탉. 34절 "새끼를 날개 아래에".
- Ierousalem(Ἱερουσαλήμ) — 예루살렘. 34절(두 번 부름).

## 6 — (2) 문학 구조

- 회개(1-9) → 안식일 치유(10-17) → 자람 비유(18-21) → 좁은 문(22-30) → 탄식(31-35)의 묶음.
-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3·5)의 똑같은 후렴.
- 겨자씨(19)·누룩(21)의 짝, 작음→큼.
- "매임"(16)과 "풀음"(15)의 대조, "먼저와 나중"(30)의 뒤집힘.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실로암 망대"(4)는 예루살렘 남동쪽 실로암 못 근처 — 지리 배경.
- "아브라함의 딸"(16)은 언약 백성의 곁을 가리키는 호칭 — 배경으로만.
- "가루 서 말"(21)은 큰 분량의 반죽 — 일상 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13:6-9 ↔ 사 5:1-7 (포도원·열매 없음)
- 눅 13:18-21 ↔ 마 13:31-33 (겨자씨·누룩)
- 눅 13:24-30 ↔ 마 7:13-14 / 8:11-12 (좁은 문·먼저와 나중)
- 눅 13:34-35 ↔ 마 23:37-39 (예루살렘 탄식)
- 눅 13:35 ↔ 시 118:26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가 흘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전하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 말씀하신다. 삼 년이나 열매 없는 무화과를 두고 과원지기가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 거름을 주리이다" 청한다. 안식일 한 회당에서 열여덟 해 굶은 여인을 퍼 주시니 여자가 영광을 돌리고, 분히 여기는 회당장에게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시매 무리가 기뻐한다. 겨자씨와 누룩의 자람을 들려주시고, 각 성으로 다니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닫힌 문 앞의 "알지 못하노라"와 "먼저와 나중"을 말씀하신다. 바리새인이 "헤롯을 피하소서" 하나 갈 길을 가야 한다 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모으려 하였으나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탄식하시는 데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 — 한 해 더 두는 손과 좁은 문"
- 초벌 부제: "한 해 더 두는 손과, 모으려는 날개 사이"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실로암 망대·아브라함의 딸·시 118 인용)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두 소식(피·망대)이 인과 교리로 굳지 않도록 → "회개하라" 후렴 위치만 기록.
- 좁은 문(24)이 구원론 설교로 흐르지 않도록 → stene "먼저와 나중" 어휘만 보존.
- 예루살렘 탄식(34)이 신학화되지 않도록 → 시 118:26 배경과 본문 표현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13장은 회개를 부르며 열매 없는 나무를 한 해 더 두고, 굵은 등을 펴며 좁은 문과 한 도성의 탄식으로 달히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피와 망대의 소식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를 두 번 말한다. 삼 년이나 열매 없는 무화과를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라며 한 해 더 두고, 안식일 회당에서 열여덟 해 굵은 여인을 펴 준다. 거자씨와 누룩의 자람을 들려준 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고, 닫힌 문과 "먼저와 나중"을 말한다. 끝에는 헤롯의 위협을 지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탄식이 놓이고, 새끼를 모으려는 날개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가 한 자리에 있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소식(1) → 포도원(6) → 회당(10) → 길(22) → 예루살렘(34). 소품 = 무화과·거름·굵은 여인·겨자씨·누룩. metanoeo·synkyptousa·stene.
2 첫 느낌·분위기	무거운 소식 → 퍼짐의 환함 → 슬픈 탄식. "회개하라"의 두 번. 작음→큰의 사람.
3 시작과 끝	시작 — 회개의 부름(1-3절). 끝 — 도성의 탄식(35절). 부름에서 탄식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소식 전한 이 / 과원지기 / 굵은 여인·회당장 / 헤롯·예루살렘. 사상 = 회개·열매·좁은 문. "아브라함의 딸"."먼저와 나중".
5 장면 컷	컷 1 파·망대(1-5). 컷 2 무화과(6-9). 컷 3 굵은 여인(10-17). 컷 4 겨자·누룩(18-21). 컷 5 좁은 문(22-30). 컷 6 탄식(31-35).
6 의문·발견·정보	똑같은 후렴. 한 해의 유예. 분노와 기쁨의 동석. 매임과 풀음. 실로암 망대 배경.
7 동영상	무거운 소식·회개 → 퍼지는 여인·좁은 문 → 한 도성의 탄식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 부제 — "한 해 더 두는 손과, 모으려는 날개 사이".
9 동영상 안건 기·기도	포도원과 회당과 도성을 바라보며 한 해를 더 받은 나무 곁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한 해의 유예:** 삼 년 열매 없는 나무를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 거름을 주리이다"(8절)며 한 해 더 둔다. 찍음과 기다림이 한 자리에 있다.
- 결 2 — 매임과 풀음:** 안식일에 짐승을 "풀어"(15절) 끌면서 열여덟 해 "매인"(16절) 여자를 퍼지 못하느냐 묻는다. 풀음과 매임이 대조로 놓인다.
- 결 3 — 좁은 문과 탄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24절)와 "모으려 하였으나 원하지 아니하였도다"(34절)가 한 장에 놓인다. 본문은 부름에서 탄식으로 흐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19:41-44** (예루살렘을 향한 우심)과 결을 잇고, **눅 14:15-24** (잔치·들어옴)로 이어진다.
- 다른 권 — **사 5:1-7** (포도원·열매), **마 7:13-14** (좁은 문), **마 23:37-39** (예루살렘 탄식), **시 118:26**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 정경 흐름 — 13장의 탄식은 9:51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여행의 끝(19장)을 미리 비춘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무거운 소식과 회개의 부름 앞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한 해를 더 받은 나무 곁에서 멈춘다.
- **멈춤 2:** 열여덟 해 만에 퍼지는 등을 보며 멈춘다.
- **멈춤 3:** 달힌 문 앞의 "알지 못하노라"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유예는 거름과 함께 온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한 해 더 두는 손과 모으려는 날개 사이\*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회개하라"가 두 번 똑같이 온다
- [x] 열매 없는 나무를 한 해 더 둔다
- [x] 열여덟 해 굶은 여인이 퍼진다
- [x] 겨자씨와 누룩이 자란다
- [x]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하신다
- [x] "먼저와 나중"이 뒤집힌다
- [x] 끝은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이다

####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13장은 그 호(arc)에서 **임한 나라 앞에서 주어진 유예의 시간과, 좁아져 가는 문을 보이는 국면**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여정(눅 9:51 이후) 가운데 놓인 이 장은, "회개하라"(3·5절)의 두 번 반복과 "한 해만 더"(8절)의 유예,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24절)의 다급함으로, 통치가 임한 시간이 한정된 기회임을 알린다. 겨자씨와 누룩(18-21절)처럼 작게 시작해 자라는 나라가, 끝내 "암탉이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도성을 모으려는 탄식(34절)으로 달린다. 임한 나라의 유예와 달혀 가는 문이 한 장에 맞물리는 — 그 좌표에 13장이 선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회개를 묻는 자리'→'예루살렘을 향한 탄식' / 베임의 위협→한 해 더 두어진 유예 / 굶은 몸→곧게 펴짐.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주어진 시간 안에 돌이켜 퍼지라는 부름으로 미는 운동이다. 회개의 두 번 촉구(3·5절) → 한 해 더 두어진 나무(8절) → 곧게 펴진 굶은 여인(13절) → 자라는 겨자씨·누룩 → 좁은 문과 달힘(24·25절) → 도성을 모으려는 탄식(34절). 한 나무에서 한 여인으로, 한 여인에서 한 도성으로 넓어지는 한 운동이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회개 촉구·안식일 치유·비유·도성을 향한 탄식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주어진 유예의 시간 안에 돌이켜 퍼지는 한 생명**이다. 마음을 돌이킴(metaneo)과 열여덟 해 굶은(synkruptousa) 몸이 "곧게 펴짐"(16절)이 한 결로 겹친다. 열매 없는 나무는 즉시 베이지 않고 "한 해만 더"(8절) 두루 파고 거름 받을 시간을 얻는다. 누가의 통치는 정죄로 베어 내는 것이 아니라, 유예의 시간을 주어 돌이켜 퍼지게 하는 인격적 다스림이다. 빙산의 수면 위는 회개의 경고와 달힐 문이지만, 아래는 한 해 더 두며 퍼지기를 기다리는 손이다.

####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그 한 해 안에서 있는가 — 베려는 손을 막고 "한 해만 더 두소서" 구하는 그 유예의 시간 안에서, 좁아져 가는 문을 향해 힘써 돌이키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한 해 더 두어진 나무 곁과 좁은 문 앞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유예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좁은 문.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던 부름이 한 잔치의 식탁으로 — 달려 가던 문이 "큰 잔치"의 활짝 열린 자리로 바뀌어, 길과 산울가의 손님까지 데려오는 채움으로 이어진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1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두 소식(피·망대)에 왜 같은 "회개하라"(3·5)가 두 번인가?**

- 똑같은 후렴이 두 번 붙음.
-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8절)인가?**

- 삼 년 열매 없음에도 한 해를 더 둬.
- 유예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3. 회당장의 분노와 무리의 기쁨(14·17)은 어떻게 함께인가?**

- 같은 장면에 분노와 기쁨이 놓임.
- 두 절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4.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나중 된 자로서 먼저"(30절)는 어떤 절인가?**

- 순서의 뒤집힘이 놓임.
- 그 절은 답하지 않고 보존.

**Q5. 헤롯의 위협 앞에서 "갈 길을 가야 하리니"(33)는 어떤 정함인가?**

- 예루살렘으로의 길이 굳어짐.
- 그 정함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Q6. 모으려는 날개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34)는 왜 함께인가?**

- 모으려는 손과 거절이 한 탄식에.
- 나란히 둬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14장

LUK-014 · 복음서 · 헬라어

한 식탁에서 고침과 자리를 묻고, 청함을 받은 자들이 사양하자 길에서 데려오며, 망대와 소금으로 대가를 가리키는 장.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안식일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식탁(1절) → 끝에 길의 수많은 무리(25절).
- 소품 = 수종병 든 사람(2절), 높은 자리·끝자리(8-10절), 청할/못 청할 손님 목록(12-13절), 소금(34절).
- 큰 잔치의 소품 = 종·청함·"준비되었나이다"(17절), 거리·골목·길·산울타리(21·23절).
- "수종병"이 hydropikos(2절), "높은 자리"가 protoklisia(8절), "강권"이 anankazo(23절).
- 썸의 그림 = 망대의 비용(28절), 임금의 헤아림(31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지켜보는 식탁("엿보고 있더라", 1절), 뒤로 갈수록 자리·손님·대가가 무거워짐.
-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11절)의 오르내림.
- 사양의 세 핑계(18-20절)와 썸의 두 비유(28-32절)의 리듬.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 지켜봄으로 열림.
- 35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 들음의 부름으로 닫힘.
- 지켜봄에서 들음으로 옮겨간다. 가운데 11절(낮춤과 높아짐).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바리새인 지도자·율법교사(1·3) / 수종병자(2) / 잔치 손님 / 잔치 주인·종·사양하는 자(16-20) / 길의 무리(25).
- 상황 = 시험("합당하냐", 3)과 잠잠함(4)이 함께.
- 사상 = 자리(8-11)와 잔치(16-24), 대가(25-33).
- "미워하지 아니하면"(26, 썸어식 강조)·"십자가를 지고"(bastazo, 27).
- 못 청하라던 네 부류(13)가 잔치의 손님(21)이 됨.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안식일 식탁, 수종병자 고침, 잠잠한 율법교사.
- 컷 2 (7-11): 높은 자리·끝자리.
- 컷 3 (12-14): 갚을 수 없는 자를 청하라.

- 컷 4 (15-24): 큰 잔치, 세 사양, 길로 데려옴.
- 컷 5 (25-27): 길의 무리, 자기 십자가.
- 컷 6 (28-35): 망대·임금의 셈, 소유를 버림, 맛 잃은 소금.

### 6 — (1) 원어 카드

- hydropikos(ὕδρωπικός) — 수종병 든. 2절.
- protoklisia(πρωτοκλισία) — 첫 자리·높은 자리. 8절.
- deipnon(δεῖπνον) — 잔치·저녁 식사. 16·17·24절.
- anankazo(ἀναγκάζω) — 강권하다. 23절.
- bastazo(βαστάζω) — 지다·짊어지다. 27절 "자기 십자가를".
- halas(ἄλας) — 소금. 34절.
- tapeinoo(ταπεινῶω) — 낮추다. 11절.

### 6 — (2) 문학 구조

- 식탁의 치유(1-6) → 자리(7-11) → 손님(12-14) → 잔치(15-24) → 대가(25-35)의 묶음.
- "높이는 자/낮추는 자"(11)의 대구.
- 세 사양(18-20)의 같은 결, 두 번의 보냄(21·23).
- 두 셈의 비유(망대 28, 임금 31)의 평행.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미워하다"(26)는 셈어식 강조(덜 사랑함의 대조) 표현으로 보는 배경 — 배경으로만.
- "산울타리 가"(23)는 성 밖 길가, 떠도는 이들이 있던 자리 — 배경으로만.
- 못 청하라던 네 부류(13)와 데려오는 네 부류(21)의 일치 — 본문 내 반복.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14:11 ↔ 눅 18:14 (낮춤과 높아짐의 반복)
- 눅 14:15-24 ↔ 마 22:1-14 (잔치 비유)
- 눅 14:26-27 ↔ 눅 9:23 (제자의 대가·십자가)
- 눅 14:13 ↔ 눅 14:21 (네 부류의 일치)
- 눅 14:34-35 ↔ 마 5:13 (맛 잃은 소금)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드시니 그들이 엿본다.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 보내시고, "아들이나 소가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매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다. 손님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끝자리에 앉으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하시고, "값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 하신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자 큰 잔치 비유를 주신다. 청함 받은 자들이 밭·소·장가들을 핑계로 사양하니, 주인이 거리·골목, 길·산울타리로 종을 보내 데려온다. 길에서 무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시고, 망대와 임금의 셈을 들어 "소유를 버리라" 하시며, "맛 잃은 소금"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데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끝자리에 앉으라 — 길에서 온 손님과 헤아리는 대가"
- 초벌 부제: "낮은 자리와 길의 손님을 지나, 헤아리는 대가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셈어식 "미워하다"·산울타리·네 부류 일치)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미워하다"(26)가 윤리 교리로 굳지 않도록 → 셈어식 강조 배경과 어휘 위치만 기록.
- 큰 잔치 비유가 알레고리 설교로 흐르지 않도록 → 세 사양·두 보냄의 구조만 보존.
- 맛 잃은 소금(34-35)이 적용 설교로 흐르지 않도록 → 본문 표현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14장은 엿보는 식탁에서 수종병자를 고치고, 낮은 자리와 길에서 온 손님을 지나 헤아리는 대가로 달히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안식일 식탁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며 잠잠한 율법교사를 마주한다. 손님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고 "끝자리에 앉으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하고, 갚을 수 없는 자를 청하라 한다. 큰 잔치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일상의 핑계로 사양하고, 주인은 거리와 길로 종을 두 번 보내 손님을 채운다. 끝에는 길의 무리에게 자기 십자가와 소유를 버림의 대가가 주어지고, 망대와 임금의 셈, 맛 잃은 소금으로 "들으라"는 부름이 담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안식일 식탁(1) → 길의 무리(25). 소품 = 수종병자·높은 자리·손님 목록·소금. hydropikos·protoklisia·anankazo.
2 첫 느낌·분위기	옛보는 식탁 → 무거워지는 자리·손님·대가. "높이는 자/낮추는 자"의 오르내림.
3 시작과 끝	시작 — 지켜봄(1절). 끝 — 들음의 부름(35절). 지켜봄에서 들음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바리새인·율법교사 / 수종병자 / 잔치 손님·주인·종 / 길의 무리. 사상 = 자리·잔치·대가. bastazo·"미워하다".
5 장면 컷	컷 1 식탁 치유(1-6). 컷 2 자리(7-11). 컷 3 손님(12-14). 컷 4 큰 잔치(15-24). 컷 5 십자가(25-27). 컷 6 썸·소금(28-35).
6 의문·발견·정보	세 사양의 일상. 두 번의 보냄. 네 부류의 일치(13·21). 썸어식 "미워하다".
7 동영상	옛보는 식탁 → 낮은 자리·길의 손님 → 썸과 소금의 대가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끝자리에 앉으라". 부제 — "낮은 자리와 길의 손님을 지나, 헤아리는 대가로".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식탁과 잔치와 길을 걸으며 높은 자리를 먼저 택하던 윗목을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자리의 오르내림:** 높은 자리를 택하는 손님에게 "끝자리에 앉으라"(10절) 하며 "낮추는 자가 높아 지리라"(11절) 한다. 오름과 내림이 한 식탁에 있다.
- 결 2 — 못 청할 자가 손님 됨:** 갚을 수 없어 못 청하러던 네 부류(13절)가 큰 잔치의 손님(21절)으로 데려 와진다. 사양과 데려오미 한 잔치에 있다.
- 결 3 — 헤아리는 대가:** 망대와 임금의 썸(28-32절)과 "소유를 버리라"(33절)가 한 장에 놓인다. 본문은 잔 치에서 대가로 좁아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9:23** (자기 십자가)과 결을 잇고, **눅 18:14** (낮춤과 높아짐)으로 이어진다.
- 다른 권 — **마 22:1-14** (잔치 비유), **마 5:13** (맛 잃은 소금).
- 정경 흐름 — 14장의 "길에서 온 손님"은 누가복음 여행 내러티브 안에서, 다음 장(15장)의 잃은 자를 찾는 결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옛보는 식탁 가운데 한 사람이 앉는다.
- **멈춤 1:** 높은 자리를 먼저 택하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일상의 핑계로 사양하는 손님을 보며 멈춘다.
- **멈춤 3:** 망대를 세우기 전 비용을 헤아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부름은 헤아림과 함께 온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높은 자리와 끝자리 사이\*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안식일 식탁에서 수종병자를 고치신다
- [x] "끝자리에 앉으라" 하신다
- [x] 갚을 수 없는 자를 청하라 하신다
- [x] 청함 받은 자들이 사양한다
- [x] 거리와 길로 손님을 데려온다
- [x] 망대와 임금의 썸을 들어 대가를 말씀하신다
- [x] 끝은 맛 잃은 소금과 "들으라"의 부름이다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14장은 그 호(arc)에서 **나라의 잔치가 안에서 바깥으로, 청함 받은 자에게서 길의 사람에게로 열리는** 국면이다. "큰 잔치"의 비유(16-24절)에서 처음 청함 받은 자들이 사양하자, 주인은 종을 거리와 골목으로, 다시 길과 산울가로 내보내 "내 집을 채우라"(23절) 한다. 이는 누가복음이 향하는 이방 선교 — 통치가 언약 백성을 넘어 바깥으로 번지는 — 를 잔치의 그림으로 예표하는 자리다. 동시에 그 잔치에 드는 길은 자기 십자가와 모든 소유를 헤아리는 대가(27-33절)를 지나야 함이 나란히 놓인다. 열리는 잔치와 치르는 대가가 한 장에 맞물리는 — 그 좌표에 14장이 선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탁의 윗자리'→'낮은 자리' / '청함 받았으나 사양한 자'→'길과 산울가에서 강권해 데려온 손님' / 거저 채움 →헤아려 치르는 대가.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닫힌 잔치에서 열린 잔치로 미는 운동이다. 윗자리를 택함(7절) → "끝자리에 앉으라"·"자기를 낮추는 자"(10-11절) → 갚을 수 없는 자를 청하라(13절) → 사양과 길의 손님으로 채움(21-23절) → 망대·임금의 썸으로 헤아리는 대가(28-32절) → 맛 잃은 소금. 한 식탁에서 거리로, 거리에서 길과 산울가로 번져 나가는 한 운동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안식일 치유·자리 다툼·잔치 비유·대가의 썸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자리의 전복, 곧 낮은 자가 높여지고 갚을 수 없는 자가 채워지는 통치**다. 스스로 낮춤(tapeinoo, 11절)과, 길의 사람을 "강권하여"(anankazo, 23절) 데려와 빈자리를 채움이 한 잔치 안에서 만난다. 잔치의 자리가 공로의 사다리에서 은혜의 채움으로 뒤집힌다 — "갚을 것이 없는" 자가 청함 받고, 청함 받았던 자는 자기 일로 빠진다. 빙산의 수면 위는 식탁 예절과 잔치의 비유지만, 아래는 낮은 자리를 높이고 빈자리를 길에서 채우는 인격적 통치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그 잔치의 빈자리로 데려와진 자인가 — 윗자리를 택하던 자리에서, 갚을 것 없이 길에서 강권받아 채워진 한 손님의 자리로 옮겨 앉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윗자리의 식탁과 길에서 데려와진 잔치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자리의 전복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길에서 온 손님.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길에서 데려와 채우던 잔치가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의 잔치로 — 빈자리를 채우려던 마음이, 잃은 양 하나·드라크마 하나·아들 하나를 찾아 벼를 모아 즐기는 세 번의 기쁨으로 이어진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1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식탁에서 그들이 "엿보고 있는가"(1절)?**

- 안식일 식탁에서 지켜봄으로 시작함.
-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세 사냥(18-20)의 까닭은 왜 다 일상의 것인가?**

- 밭·소·장가둠의 같은 결의 거절.
- 거절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3. 왜 종을 두 번(21·23) 내보내는가?**

- 거리·골목 뒤에 길·산울타리로 다시 보냄.
- 두 보냄의 결만 기록, 관계는 보류.

**Q4. "미워하지 아니하면"(26)은 어떤 강함인가?**

- 가족과 목숨까지의 강한 대조 표현.
- 그 강함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Q5. 못 청하라던 네 부류(13)가 왜 손님(21)이 되는가?**

- 같은 네 부류가 식탁과 잔치에 놓임.
- 두 자리의 일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6. 대가의 말씀 끝에 왜 "소금"(34)이 오는가?**

- 썸과 소유의 말씀 뒤에 맛 잃은 소금.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15장

LUK-015 · 복음서 · 헬라어

한 마리, 한 뉘, 한 아들의 잃음이 찾음과 기쁨으로 세 번 되풀이되고, 끝에 큰아들이 문밖에 남는 장.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셋: 양 있는 들(4절) → 등불 켜 집(8절) → 아버지의 집(11절). 시작은 수군거리는 자리(1-2절).
- 소품 = 어깨에 멘 양(5절), 등불·빗자루(8절), 제일 좋은 옷·가락지·신·살진 송아지(22-23절).
- 둘째 아들의 무대 = 먼 나라·흉년·돼지 들·취업 열매(13-16절).
- 큰아들의 무대 = 발·풍악과 춤추는 소리(25절).
- "잃었다"가 apollymi(4·8·24), "드라크마"가 drachme(8), "측은히 여겨"가 splagchnizomai(20).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수군거림(2절), 비유로 들어가면 잃음·찾음·잔치의 환함, 끝은 문밖의 그림자.
- "기뻐하라·즐기자"가 세 번 똑같이 돌아옴(6·9·32절).
- 세 비유의 같은 골격(잃음→찾음→기뻐함), 셋째만 큰아들이 더 붙음.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 수군거림으로 열림.
- 32절: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기뻐함이 마땅하다" — 기쁨의 마땅함으로 닫힘(열린 끝).
- 불평에서 기쁨의 마땅함으로, 끝은 큰아들이 들어갔는지 밝히지 않음.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세리·죄인 / 바리새인·서기관(2) / 목자(4) / 여인(8) / 아버지와 두 아들(11).
- 둘째 아들 = 떠남·낭비·흉년·돼지 들, "스스로 돌이켜"(17) 준비한 대사(18-19).
- 사상 = 잃음과 찾음. "잃었다가 얻었다·죽었다가 살아났다"(24·32)의 반복.
- 아버지의 splagchnizomai(20), 큰아들의 노함과 "여러 해 섬겼거늘"(29).
- 호칭 갈림 — 큰아들 "당신의 이 아들"(30) vs 아버지 "이 네 동생"(32).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 세리·죄인이 옴, 수군거림.
- 컷 2 (3-7): 잃은 양 하나, 어깨에 메고 기뻐함.
- 컷 3 (8-10): 잃은 드라크마 하나, 등불 켜고 찾아 기뻐함.

- 컷 4 (11-19): 둘째 아들의 떠남·흉년·돼지 들, 스스로 돌이킴.
- 컷 5 (20-24): 아버지의 달려감, 옷·가락지·신·송아지, 잔치.
- 컷 6 (25-32): 큰아들의 노함, 권면, 열린 끝.

## 6 — (1) 원어 카드

- apollymi(ἀπόλλυμι) — 잃다·망하다. 4·8·24·32절.
- drachme(δραχμή) — 드라크마, 은전 한 닢. 8-9절.
- splagchnizomai(σπλαγχνίζομαι) — 측은히 여기다. 20절.
- stole(στολή) — 긴 옷·예복. 22절 "제일 좋은 옷".
- euphraino(εὐφραίνω) — 즐거워하다. 23·24·29·32절.
- diaskorpizo(διασκορπίζω) — 흩다·낭비하다. 13절.
- presbyteros(πρεσβύτερος) — 더 나이 든·말이. 25절 "말아들".

## 6 — (2) 문학 구조

- 세 비유의 평행 — 잃음(4·8·13) → 찾음/돌아옴(5·9·20) → 기뻐함(6·9·23).
- "하늘에서·사자들 앞에서 기뻐함"(7·10)의 두 비유 후렴.
- 셋째 비유의 확장 — 큰아들 단락(25-32)이 더 붙음.
- 호칭의 대구 — "이 아들"(30) vs "이 네 동생"(32).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분깃을 내게 주소서"(12)는 아버지 생전 유산 요구로, 당시로선 드문 일 — 배경으로만.
- "쥐엄 열매"(16)는 돼지의 먹이, 가장 낮은 형편의 양식 — 배경으로만.
- "가락지·신"(22)은 종이 아닌 아들·자유인의 표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15:20 ↔ 눅 10:33 (측은히 여김, splagchnizomai)
- 눅 15:4-7 ↔ 마 18:12-14 (잃은 양)
- 눅 15:2 ↔ 눅 5:30 / 19:7 (죄인과 함께 먹음 시비)
- 눅 15:11-32 ↔ 눅 18:9-14 (두 사람의 자리 대조)
- 눅 15:24 ↔ 눅 15:32 ("죽었다가 살아남"의 반복)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아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먹는다" 수군거린다. 예수께서 세 비유를 드신다. 양 백 중 잃은 하나를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 벅을 불러 기뻐하고, 드라크마 열 중 잃은 하나를 등불 켜고 찾아 또한 기뻐한다. 둘째 아들이 분깃을 받아 먼 나라로 가 낭비하다 흉년을 만나 돼지를 치며 쥐엄 열매를 탐낸다.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명하며 살진 송아지로 잔치한다.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풍악 소리에 노하여 들어가지 않으려 하니, 아버지가 나와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함이 마땅하다" 권하는 데서, 큰아들이 들어갔는지 밝히지 않은 채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잃었다가 얻었노라 — 세 번의 기쁨과 문밖의 한 사람"
- 초벌 부제: "세 번의 잃음과 찾음을 지나, 열린 채 남은 문밖으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생전 유산 요구·취업 열매·가락지와 신)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탕자 비유가 회개론·구원론 교리로 굳지 않도록 → 잃음·찾음·기쁨의 구조와 어휘만 기록.
- 큰아들의 열린 끝(32)을 결론으로 닫지 않도록 → 본문이 밝히지 않음을 그대로 보존.
- 호칭 갈림("이 아들"."이 네 동생")은 어휘 위치만, 관계는 보류.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15장은 한 마리, 한 낚, 한 아들의 잃음이 찾음과 기쁨으로 세 번 되풀이되고 끝에 큰아들이 문밖에 남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죄인과 함께 먹는다"는 수군거림에서 세 비유로 들어간다. 잃은 양 하나를 어깨에 메고,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등불로 찾아, 두 번 모두 기뻐한다. 셋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낭비하다 돌아오고,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 옷과 가락지와 신을 명하며 잔치한다. 그러나 끝에는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풍악 소리에 노하여 문밖에서 서고, 본문은 그가 들어갔는지 밝히지 않은 채 닫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들(4) → 집(8) → 아버지의 집(11). 소품 = 어깨에 멘 양·등불·옷·가락지·신·송아지. apollymi·drachme·splugchnizomai.
2 첫 느낌·분위기	수군거림 → 잔치의 환함 → 문밖의 그림자. "기뻐하라"의 세 번.
3 시작과 끝	시작 — 수군거림(1-2절). 끝 — 기쁨의 마땅함, 열린 끝(32절). 불평에서 기쁨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세리·죄인 / 바리새인·서기관 / 목자 / 여인 / 아버지와 두 아들. 사상 = 잃음과 찾음. "죽었다가 살아남"의 반복.
5 장면 컷	컷 1 수군거림(1-2). 컷 2 양(3-7). 컷 3 드라크마(8-10). 컷 4 떠남·돌이킴(11-19). 컷 5 달려감·잔치(20-24). 컷 6 큰아들(25-32).
6 의문·발견·정보	세 후렴의 기쁨. 대사 전에 옷을 명함. 떠난 자·남은 자의 두 잃음. 호칭 갈림. 열린 끝.
7 동영상	수군거림 → 세 번 잃고 찾는 기쁨 → 문밖의 한 사람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잃었다가 얻었노라". 부제 — "세 번의 잃음과 찾음을 지나, 열린 채 남은 문밖으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들과 집과 아버지의 마당을 걸으며 풍악을 들으면서도 들어가지 못한 문밖을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세 번의 같은 골격:** 양(4-7절), 드라크마(8-10절), 아들(11-24절)이 잃음→찾음→기뻐함의 같은 결로 세 번 놓인다. 잃은 하나를 찾는 기쁨이 거듭된다.
2. **결 2 — 거리가 먼데 달려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20절)에서 기다림과 달려감이 한 줄에 놓인다.
3. **결 3 — 잔치 안과 문밖:** 살진 송아지의 잔치(23절)와 큰아들의 노함(28절)이 한 끝에 놓인다. 본문은 기쁨에서 문밖으로 좁아지며 열린 채 닫힌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10:33** (측은히 여김, splugchnizomai)과 결을 잇고, **눅 18:9-14** (두 사람의 자리)로 이어진다.
- 다른 권 — **마 18:12-14** (잃은 양).
- 정경 흐름 — 15장의 세 비유는 14장의 "길에서 온 손님"의 결을 이어, 잃은 자를 찾아 함께 먹는 식탁을 다시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죄인과 함께 먹는다"는 수군거림 끝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잃은 하나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림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거리가 먼데 달려가는 아버지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풍악 소리에 노하여 문밖에 선 큰아들 곁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문밖에 남는 것도 한 잃음이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잔치의 풍악과 닫힌 문 사이\*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죄인과 함께 먹음에 수군거린다
- [x] 잃은 양 하나를 찾아 기뻐한다
- [x]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 기뻐한다
- [x] 둘째 아들이 떠났다 돌아온다
- [x]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달려간다
- [x] 살진 송아지로 잔치한다
- [x] 끝은 문밖의 큰아들과 열린 권면이다

####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이며, 그 중심에는 잃은 자를 찾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15장은 그 호(arc)에서 통치자의 마음 자체가 가장 또렷이 드러나는 국면이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수군거림(2절)에 답하여, 잃은 양·잃은 드라크마·잃은 아들의 세 비유가 잇따른다. 누가의 통치가 정복이 아니라 잃은 한 사람을 찾아 끌어안는 인격적 다스림이기에, 하늘의 기쁨도 "회개하는 죄인 하나"(7·10절)를 두고 일어난다. 동시에 문밖의 큰아들(28절)은 그 찾음의 기쁨 바깥에 선 또 하나의 잃음을 가리킨다. 찾는 자의 기쁨과 그 기쁨에 들지 못한 자가 한 장에 맞물리는 — 그 좌표에 15장이 선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잃음'→'찾음의 기쁨'을 세 번 / 좁혀 들어간 잔치(안)→문밖의 큰아들(밖)로 다시 열림.**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잃음에서 찾음의 기쁨으로 세 번 미는 운동이다. 죄인과 먹음의 수군거림(2절) → 잃은 양 하나(4-7절) → 잃은 드라크마 하나(8-10절) → 떠났다 돌아온 둘째와 달려가는 아버지(11-24절) → 문밖에 노하여 선 큰아들과 "들어가자"는 권면(25-32절). 잃은 하나로 좁혀 들어갔다, 끝에 문밖의 또 하나를 향해 다시 열리는 한 운동이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잃음과 찾음과 잔치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잃은 하나를 그냥 두지 못하고 찾아 끌어안는 마음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splaighnizomai, 20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 10장 사마리아인에게 붙던 그 창자가 끌리는 자비가 여기 아버지에게 붙는다. 목자는 찾기까지 찾고, 여인은 등불을 켜고 쫓으며 찾는다. 죄인과 함께 먹음을 정죄하는 무대(2절) 아래에서, 잃은 자를 찾아 잔치하는 통치가 흐른다. 빙산의 수면 위는 세 비유의 그림이지만, 아래는 다 듣기도 전에 달려가 끌어안는 찾는 이의 기쁨이며, 그 기쁨이 문밖의 큰아들에게까지 손을 내민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찾아진 둘째인가, 문밖의 큰아들인가 — 달려와 끌어안는 그 자비 앞에서, 잔치 안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풍악을 들으며 문밖에 노하여 서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달려가는 아버지의 품과 문밖의 큰아들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 큰아들이 들어갔는지조차 달지 않고 — 다만 그 열린 문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잃었다가 얻음.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잃은 것을 찾아 잔치하던 기쁨이 재물의 셈으로 — 끌어안는 자비 곁에서, 줄이는 청지기와 두 주인을 겸할 수 없음, 그리고 건널 수 없는 두 자리의 갈림으로 이어진다.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1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세 비유는 왜 다 "기뻐하라·즐기자"(6·9·23)로 끝나는가?**

- 같은 후렴이 세 번 돌아옴.
-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아버지는 왜 준비한 대사를 다 듣기 전에 옷을 명하는가(22절)?**

- 사과가 끝나기 전에 옷·가락지·신을 명함.
-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3. 떠나서 잃은 자와 곁에서 남은 자(13·25)는 어떻게 함께인가?**

- 두 아들의 두 잃음이 한 비유에 놓임.
- 두 곁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4. "이 아들"(30)과 "이 네 동생"(32)의 호칭 갈림은 어떤 결인가?**

- 같은 사람을 두고 부르는 말이 갈림.
- 그 곁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Q5. 본문은 왜 큰아들이 들어갔는지 밝히지 않는가(32절)?**

- 권면의 말로 끝나고 곁말을 열어 둠.
- 열린 끝의 까닭은 보류.

**Q6. 잔치의 기쁨과 문밖의 노함은 왜 한 장에 함께인가?**

- 잔치 안과 문밖이 같은 끝에.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16장

LUK-016 · 복음서 · 헬라어

셈을 줄이는 청지기의 지혜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으로, 그리고 큰 구렁으로 갈린 두 자리로 닫히는 장.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둘: 청지기·주인의 셈하는 집(1절) → 부자의 대문과 나사로의 자리, 죽음 뒤의 두 곳(19-26절). 가운데 비웃는 바리새인(14절).
- 소품 = 빛 문서(기름 백 말→오십, 밀 백 석→팔십, 6-7절), 자색 옷·고운 베풀(19절), 헌데·개들(20-21절).
- 죽음 뒤의 소품 = 아브라함의 품(kolpos, 22절), 음부의 불꽃·물 한 방울(24절), 큰 구렁(chasma, 26절).
- "청지기"가 oikonomos(1·3·8), "재물"이 mamonas(9·11·13), "지혜 있게"가 phronimos(8).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셈의 분주한 움직임(빛 문서 고쳐 쓰기), 뒤는 갈린 두 자리의 멈춤.
- "재물"(mamonas)이 장 전체를 꿰는 말.
- "큰 구렁이 놓여 있어"(26절)의 건널 수 없음.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지라" — 셈의 위기로 열림.
- 31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 들음의 문제로 닫힘.
- 재물의 셈에서 들음의 거절로 옮겨간다. 가운데 13절(두 주인).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제자들(1) / 청지기·주인·빛진 자(1-7) / 비웃는 바리새인(14) / 부자·나사로·아브라함(19-31).
- 청지기는 혼잣말로 살 길을 헤아려(3) 문서를 줄이고, "지혜 있게" 칭찬받음(8).
- 사상 = 재물(9)과 충성(10-12), 두 주인(13).
- 부자(자색 옷·호화)와 나사로(헌데·부스러기)의 살았을 때 대조(19-21).
- 죽은 뒤 뒤바뀐 자리 — 아브라함의 품 vs 음부 고통(basanos, 23), 큰 구렁(26).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 낭비하던 청지기, 빛 문서 줄임, 지혜 있다는 칭찬.
- 컷 2 (9-13): 불의의 재물, 작은 것·큰 것의 충성, 두 주인.
- 컷 3 (14-18): 비웃는 바리새인, 율법·선지자, 한 획.

- 컷 4 (19-21): 부자의 호화, 대문의 나사로.
- 컷 5 (22-26): 두 죽음, 아브라함의 품·음부, 큰 구렁.
- 컷 6 (27-31): 다섯 형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 6 — (1) 원어 카드

- oikonomos(οἰκονόμος) — 청지기·집 관리인. 1·3·8절.
- mamonas(μαμωνᾶς) — 재물·맘몬. 9·11·13절.
- phronimos(φρόνιμος) — 슬기로운·지혜 있는. 8절.
- kolpos(κόλπος) — 품·가슴. 22·23절 "아브라함의 품".
- chasma(χάσμα) — 구렁·틈. 26절.
- porphyra(πορφύρα) — 자색 옷. 19절.
- basanos(βάσανος) — 고통·괴로움. 23·28절.

#### 6 — (2) 문학 구조

- 두 비유의 묶음 — 청지기·재물(1-13)과 부자·나사로(19-31), 가운데 바리새인 단락(14-18).
- "충성"의 작은 것·큰 것(10-12)의 대구.
- 살았을 때(대문 안·밖)와 죽은 뒤(품·음부)의 자리 뒤바뀜.
-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칭찬받는 긴장(8).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나사로"는 누가복음 비유 중 유일하게 이름이 붙은 인물 — 본문 특징.
- "아브라함의 품"·"음부"는 당시 죽음 뒤 자리의 익숙한 그림 언어 — 배경으로만.
- "자색 옷"(19)은 값비싼 염료의 옷, 부의 표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16:13 ↔ 마 6:24 (두 주인·하나님과 재물)
- 눅 16:9-12 ↔ 눅 19:11-27 (재물·충성의 결)
- 눅 16:19-31 ↔ 눅 6:20-25 (가난한 자의 복·부한 자의 화)
- 눅 16:29-31 ↔ 눅 24:27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음)
- 눅 16:17 ↔ 마 5:18 (율법의 한 획)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 청지기가, 쫓겨날 것을 알고 빚진 자들을 불러 기름 백 말을 오십으로, 밀 백 석을 팔십으로 줄여 준다. 주인이 그 지혜를 칭찬한다. 예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신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비웃자,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음을 말씀하신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즐기는 부자와 대문에 버려진 헌데투성이 나사로가 있다. 둘이 죽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 고통 중에 놓이고, 사이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 부자가 다섯 형제를 위해 보내 달라 청하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데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하나님과 재물 — 셈하는 청지기와 갈린 두 자리"
- 초벌 부제: "재물의 셈을 지나, 건널 수 없는 두 자리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이름 붙은 나사로·아브라함의 품·자색 옷)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윤리 교리로 굳지 않도록 → "지혜 있게"의 긴장과 어휘만 기록.
- 부자와 나사로의 두 자리가 사후 교리 체계로 굳지 않도록 → 그림 언어 배경과 본문 표현만 보존.
-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29·31)는 들음의 문제로만 기록, 신학화 보류.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16장은 셈을 줄이는 청지기의 지혜에서 시작해, '하나님과 재물'을 지나 건널 수 없는 두 자리로 달히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낭비하던 청지기가 빚 문서를 줄여 살 길을 마련하고 "지혜 있게" 칭찬받는 비유로 연다. 이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재물의 셈을 충성으로 잇는다. 끝에는 자색 옷의 부자와 대문 밖 나사로가 죽은 뒤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로 갈리고, 사이에 큰 구렁이 놓인다. 다섯 형제를 위한 청 앞에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들음의 문제로 달린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셈하는 집(1) → 부자의 대문·죽음 뒤 두 곳(19-26). 소품 = 빛 문서·자색 옷·헌데·큰 구렁. oikonomos·mamonas·chasma.
2 첫 느낌·분위기	셈의 움직임 → 갈린 두 자리의 멈춤. "재물"이 장을 꿰는 말. "큰 구렁"의 건널 수 없음.
3 시작과 끝	시작 — 셈의 위기(1절). 끝 — 들음의 거절(31절). 셈에서 들음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제자 / 청지기·주인·빛진 자 / 비웃는 바리새인 / 부자·나사로·아브라함. 사상 = 재물·충성·두 주인. kolpos·basanos.
5 장면 컷	컷 1 청지기(1-8). 컷 2 재물·두 주인(9-13). 컷 3 바리새인(14-18). 컷 4 부자·나사로(19-21). 컷 5 두 죽음·구렁(22-26). 컷 6 다섯 형제(27-31).
6 의문·발견·정보	불의와 칭찬의 긴장. "불의의 재물". 안과 밖의 뒤바뀜. 이름 붙은 나사로. 표적과 들음.
7 동영상	셈하는 청지기 → 두 주인의 갈림 → 건널 수 없는 두 자리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하나님과 재물". 부제 — "재물의 셈을 지나, 건널 수 없는 두 자리로".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셈하는 방과 대문과 갈린 자리를 걸으며 대문 밖 한 사람을 지나치던 문턱을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불의와 지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받는다(8절). 불의와 슬기가 한 문장에 놓인다.
- 결 2 —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13절)에서 두 주인이 한 줄에 갈린다. 재물의 셈이 섬김의 갈림으로 이어진다.
- 결 3 — 갈린 두 자리:** 대문 안과 밖(19-21절)이 죽은 뒤 품과 음부로 뒤바뀌고, 큰 구렁(26절)이 둘을 가른다. 본문은 셈에서 건널 수 없는 갈림으로 좁아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6:20-25** (가난한 자의 복·부한 자의 화)와 **결**을 잇고, **눅 12:13-21** (어리석은 부자)와 통한다.
- 다른 권 — **마 6:24** (두 주인), **마 5:18** (율법의 한 획).
- 정경 흐름 — 16장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누가복음 끝(24:27)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 주심"과 한 결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셈의 위기를 만난 청지기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불의한 자가 지혜로 칭찬받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대문 밖 나사로를 날마다 지나치던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건널 수 없는 사이는 대문에서 시작된다\*는 걸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재물의 셈과 갈린 두 자리 사이\*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청지기가 빛 문서를 줄여 칭찬받는다
- [x]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신다
- [x] 부자는 호화롭고 나사로는 대문 밖에 있다
- [x] 죽은 뒤 두 자리가 갈린다
- [x]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
- [x] 부자가 다섯 형제를 위해 청한다
- [x] 끝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이다

####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16장은 그 호(arc)에서 **임한 나라 앞에서 재물이 사람의 속을 가르는 시험대가 되는** 국면이다. 누가의 통치는 마음의 자리를 다스리기예, 그 다스림은 손에 쥐 재물을 통해 검증된다 —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10절),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11절). 재물(mamonas)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맡길지를 걸러내는 체로 놓인다. 그 체를 통과하지 못한 부자와 통과한 듯한 나사로의 자리가 죽음 뒤 큰 구렁으로 갈리고, 그 갈림은 "지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음"(29절)에 달려 있다. 재물의 여과와 영원한 두 자리가 한 장에 맞물리는 — 그 좌표에 16장이 선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물의 셈'→'건널 수 없는 두 자리'(큰 구렁, 26절) / 손안의 작은 것(불의한 재물)→걸러지는 참된 것·너희의 것.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손안의 재물에서 영원한 두 자리의 갈림으로 미는 운동이다. 낭비하던 청지기의 셈(1-8절) →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9절) → 작은 것·큰 것의 충성(10-12절) →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13절) → 부자와 나사로의 두 자리(19-25절) → 건널 수 없는 큰 구렁(26절) →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29절). 셈하는 방에서 갈린 두 세계로 옮겨가는 한 운동이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청지기의 빛 셈과 부자·나사로의 두 자리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재물을 통한 속의 여과**다.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10절)으로 불리는데, 바로 그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이 "참된 것"·"너희의 것"(11-12절)을 맡길지를 걸러낸다 — 재물이 사람을 거르는 체로 놓인다. 부자는 자색 옷과 날마다의 호화로운이라는 작은 것에 묶여 대문 밖 나사로를 지나치고, 그 묶임이 죽음 뒤 자리를 정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13절)는 두 주인의 단언이 그 여과의 핵이다. 빙산의 수면 위는 두 비유의 그림이지만, 아래는 손에 쥐 재물이 마음의 주인을 드러내어 사람을 거르는 시험대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지금 대문 밖 한 사람을 지나치고 있는가 — 건너간 뒤가 아니라, 아직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 수 있는 지금, 손안의 작은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썬하는 청지기의 방과 큰 구렁으로 갈린 두 자리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지금 들음"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건널 수 없는 구렁.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재물에 걸리지던 속이 믿음과 감사로 — 두 주인을 겸할 수 없던 마음이, 겨자씨만 한 믿음과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 그리고 "너희 안에" 임하는 나라로 이어진다.

### 미해결 질문

#### 누가복음 1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 Q1. 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8) 칭찬받는가?

- 불의와 칭찬이 한 문장에 함께 옴.
- 긴장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 Q2. 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9)인가?

- 불의의 재물로 영접받음을 말함.
-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 Q3. 대문 안과 밖의 자리는 죽은 뒤 어떻게 뒤바뀌는가(20·23)?

- 살았을 때와 죽은 뒤의 자리가 갈림.
- 두 결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 Q4. "큰 구렁"(26)은 어떤 사이인가?

-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는 사이.
- 그 사이의 결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 Q5. 표적("죽은 자가 살아나")과 "들음"(30-31)은 어떻게 함께인가?

- 표적을 구함과 들음의 거절이 나란히 놓임.
-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보존.

##### Q6. 재물의 썬과 갈린 두 자리는 왜 한 장에 함께인가?

- 청지기의 썬과 부자·나사로의 갈림이 같은 장에.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17장

LUK-017 · 복음서 · 헬라어

열이 깨끗해지는데 돌아와 감사한 자는 하나뿐. 작은 믿음과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가 한 장에 겹친다.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예루살렘 가는 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11절) → 한 마을 어귀(12절).
- 소품 = 연자 멧돌(2절), 뽕나무(6절), 밭 가는·양 치는 종(7절).
- 나병환자 열이 "멀리 서서" 부르짖음(12-13절).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길에 깨끗해짐(14절).
- 돌아온 자는 사마리아 사람(16절), 본문이 "이방인"(allogenes)이라 부름(18절).
- 후반 배경 = 노아의 홍수·롯의 소돔(27-29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는 일상.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짧은 가르침들이 토막토막 한 줄로 꿰임 — 실족·용서·믿음·종·나병환자·나라·날.
- 가운데 나병환자 장면(13-19)에서 분위기가 한 번 환해짐.
-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17절)가 답 없는 물음으로 남음.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 경고로 열림.
- 37절: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 심판의 그림으로 닫힘.
- 양 끝의 무게 사이에 나병환자 장면과 "나라는 너희 안에"(21절)의 밝음이 가운데로 끼어듦.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제자들 / 사도들("믿음을 더하소서", 5) / 나병환자 열(12) /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15-16) / 바리새인들(20).
- 겨자씨 믿음·뽕나무(6절), 무익한 종의 비유 —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10절).
- 한 사람에게 "영광 돌림"(doxazo, 15)과 "감사"(eucharisteo, 16)가 겹침.
- 바리새인 물음(20)과 답 —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entos, 21).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실족 경고, 하루 일곱 번 용서.
- 컷 2 (5-10): 믿음을 더하소서, 겨자씨·뽕나무, 무익한 종.
- 컷 3 (11-19): 마을 어귀, 열 나병환자, 가는 길에 깨끗, 돌아온 한 사마리아 사람.
- 컷 4 (20-21): 바리새인 물음, "나라는 너희 안에".

- 컷 5 (22-37): 인자의 날, 노아·룻,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 독수리.

## 6 — (1) 원어 카드

- pistis(πίστις) — 믿음. 6절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
- sykaminos(συκάμινος) — 뽕나무. 6절.
- doxazo(δοξάζω) — 영광 돌리다. 15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 eucharisteo(εὐχαριστέω) — 감사하다. 16절 "엎드리어 감사하니".
- allogenes(ἀλλογενής) — 다른 족속·이방인. 18절.
- entos(ἐντός) — 안에·가운데. 21절 "너희 안에".
- doulos(δοῦλος) — 종. 7-10절 무익한 종의 비유.

## 6 — (2) 문학 구조

- 듣는 대상의 이동 — 제자(1-10) → 사건(11-19) → 바리새인(20-21) → 제자(22-37).
- "노아의 때... 룻의 때"의 평행(26-29절) — 일상→갑작스런 끝.
- "하나는 데려감, 하나는 버려둠"의 짝(34-35절).
- 나병환자 장면이 본문 가운데 밝은 결로 박힘 — 열 중 하나의 돌아옴.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나병환자는 율법상 "멀리 서서" 거리를 둠(12절). 제사장의 확인이 깨끗함의 절차(14절, 레위기 배경).
- 돌아온 자가 사마리아 사람(16절)·이방인(18절)이라는 점을 본문이 직접 짚음 — 인물 표시로 기록.
- "룻의 처를 기억하라"(32절)는 창세기 소돔 전승을 한 줄로 환기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17:6 ↔ 마 17:20 / 막 11:23 (겨자씨 믿음·산·뽕나무)
- 눅 17:14 ↔ 레 13-14 (제사장에게 보임·나병 정결 절차)
- 눅 17:27 ↔ 창 7 (노아의 홍수), 눅 17:29 ↔ 창 19 (룻·소돔)
- 눅 17:31 ↔ 막 13:15-16 (지붕 위·밭의 사람)
- 눅 17:33 ↔ 눅 9:24 (목숨을 보존하려는 자·잃는 자)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제자들에게 실족시키지 말라,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다.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청하자 겨자씨 믿음과 무익한 종으로 받으신다.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한 마을에 이르고, 나병환자 열이 멀리 서서 부르짖는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시니 가는 길에 모두 깨끗해지고, 그 중 한 사람—사마리아 사람—이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느니라" 하신다. 바리새인의 물음에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노아·룻의 때처럼 임할 인자의 날과 "룻의 처를 기억하라"를 이르신 뒤, 독수리의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돌아온 한 사람 —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 초벌 부제: "열이 나왔으나 돌아온 하나,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나병 정결 절차·노아·룻·사마리아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나라는 너희 안에"(21)의 entos가 한 결로 굳지 않도록 → 두 결의 가능성만 기록.
- 돌아온 자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점이 교훈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 인물 표시로만 보존.
- 겨자씨 믿음을 분량 공식으로 굳히지 않고 → 어휘·이미지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17장은 짧은 가르침들 사이에서 돌아온 한 사람의 감사와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가 한 결로 만나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실족·용서·믿음·종의 가르침을 토막토막 잇다가, 길 위에서 열 나병환자를 만난다. 모두 가는 길에 깨끗해지지만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자는 한 사람—사마리아 사람—뿐이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물음이 답 없이 남고, 곧이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가 선포된다. 보이게 임하지 않는 나라와, 일상 가운데 갑자기 임하는 그 날이 장의 양 결을 이룬다.

#####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예루살렘 가는 길, 사마리아·갈릴리 사이(11) → 마을 어귀(12). 소품 = 연자 멧돌·뽕나무·종. 후반 = 노아·룻의 일상.

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토막 가르침의 연쇄, 가운데 나병환자 장면의 밝음, 답 없는 "그 아홉은".
3 시작과 끝	시작 — 실족의 화(1절). 끝 — 독수리·주검(37절). 양 끝의 무게.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제자·사도 / 나병환자 열 /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 바리새인. 사상 = 겨자씨 믿음, 무익한 종, "너희 안에"(entos).
5 장면 컷	컷 1 용서(1-4). 컷 2 믿음·종(5-10). 컷 3 열 나병환자(11-19). 컷 4 나라(20-21). 컷 5 인자의 날(22-37).
6 의문·발견·정보	"가다가" 나움(14). "그 아홉은"(17). 이방인(18). 노아·룻 평행. 데려감·버려둠(34-35).
7 동영상	용서·믿음 → 열 나병환자 → 돌아온 하나의 감사 → "너희 안에" → 그 날 → 독수리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돌아온 한 사람 —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부제 — "열이 나왔으나 돌아온 하나,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길과 마을 어귀를 걸으며 돌아오지 않은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열과 하나:** 열이 다 깨끗해지나 돌아온 자는 하나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17절)가 답 없이 남는다. 나움과 돌아옴이 같지 않다.
- 결 2 —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6절)이 뽕나무를 옮긴다. 분량이 아니라 있음이 말해진다.
- 결 3 — 보이지 않는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20-21절). 보이는 표가 아니라 entos의 자리로 나라가 말해진다.

###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9:24** (목숨을 잃는 자·얻는 자, 17:33과 짝), **눅 18:8**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 다른 권 — **창 7 / 창 19** (노아·룻), **레 13-14** (나병 정결), **마 17:20** (겨자씨 믿음).
- 정경 흐름 — 17장의 "너희 안에"는 누가복음의 나라 강론들과 18-21장의 종말 가르침으로 결을 잇는다.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작은 믿음을 청하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가는 길에 깨끗해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돌아와 발 아래 엎드린 한 사람을 본다.
- **멈춤 3:** "너희 안에 있느니라"가 선포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나움과 돌아옴은 같지 않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물음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하루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다
- [x] 겨자씨만 한 믿음이 뽕나무를 옮긴다
- [x] 열 나병환자가 가는 길에 깨끗해진다

- [x] 한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 감사한다
- [x]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가 답 없이 남는다
- [x]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신다
- [x] 끝은 노아·롯의 때와 독수리의 한 줄이다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이며, 그 통치 영역은 개개인의 내면이다. 17장은 그 호(arc)에서 나라의 자리가 가장 또렷이 "안"으로 선언되는 국면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는 바리새인의 물음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20-21절)는 답이 주어진다. 보이는 표적·때를 구하던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이미 임한 내면의 통치로 무게가 옮겨진다. 열 나병환자 중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19절)를 듣는 것도 같은 결이다 — 깨끗함은 밖에서 열에게 임했으나, 구원은 안에서 돌아온 하나에게 임한다. 사도행전의 권능 폭발에 앞서, 그 폭발의 진원인 내면의 통치가 선언되는 — 그 좌표에 17장이 선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밖에서 보이는 일·때'→'너희 안'(entos, 20-21절) / 열의 몸이 깨끗해짐→돌아온 한 사람의 구원.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바깥의 표적에서 안의 통치로 미는 운동이다. 용서·믿음·종의 비유 → 멀리 서서 부르짖는 열 나병환자(12-13절) → 가는 길에 깨끗해짐(14절) → 돌아와 발 아래 엎드린 한 사람(15-16절)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19절) →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20-21절) → 인자의 날. 멀리 선 무리에서 발 아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에서 그 안으로 좁혀 들어가는 한 운동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신유다 — 열 사람의 나병이 가는 길에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몸의 나음을 넘어 돌아와 엎드리는 한 사람의 속, 곧 내면화된 통치다. 본문은 깨끗함과 구원을 가르킨다 — 열이 다 "깨끗함"(14절)을 받았으나, "영광을 돌리며(doxazo) 돌아와... 감사한(eucharisteo)" 한 사람(15-16절)에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sozo, 19절)가 더해진다. 이 가름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entos) 있느니라"(21절)로 이어진다 — 나라는 볼 수 있게 밖에서 오는 표적이 아니라, 돌아와 엎드리는 한 사람의 안에서 다스린다. ('안에'와 '가운데'의 두 결은 보류하되, 보이지 않게 임한다는 공통의 결만 둔다.) 빙산의 수면 위는 열의 신유지만, 아래는 한 사람의 속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통치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내 안의 통치 —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데, 그 다스림이 받은 자리에 머무는 아홉이 아니라 돌아와 발 아래 엎드리는 한 사람의 감사로,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나았으나 돌아오지 않은 아홉과 돌아와 엎드린 하나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너희 안에" 임한 나라 앞에서 내 안의 통치를 묻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돌아옴.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너희 안에" 임한 나라가 끊임없는 기도로 — 보이지 않게 다스리는 통치가,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라는 과부의 간구와 세리의 가슴 침으로 이어진다.

## 미해결 질문

### 누가복음 17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 Q1. 왜 "가다가" 깨끗해지는가?(14절)

-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옴.
- 순종의 걸음과 나옴의 시점은 답하지 않고 보존.

#### Q2.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17절)는 왜 물으셨는가?

- 아홉도 다 나왔으나 돌아오지 않음.
- 물음의 무게는 답하지 않고 위치만 기록.

#### Q3. "너희 안에 있느니라"(21절)의 entos는 어느 결인가?

- '안에'와 '가운데' 두 결이 다 가능.
- 둘의 선택은 보류, 분포만 보존.

#### Q4. 노아·롯의 때가 왜 나란히 놓이는가?(26-29절)

- 두 일상이 갑자기 끝나는 그림으로 평행.
- 평행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 Q5.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34-35절)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 같은 자리의 두 사람이 갈림.
- 갈림의 기준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 Q6. "롯의 처를 기억하라"(32절)는 왜 한 줄로 박혔는가?

- 짧게 끼어든 명령.
- 돌아봄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18장

LUK-018 · 복음서 · 헬라어

낮아진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과부와 세리와 어린이와 맹인이 부자 관리와 엇갈리는 장.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비유 속 도시(재판관·과부, 2-3) → 성전(두 기도, 10) → 사람들 사이(어린이·부자 관리, 15·18) → 여리고 길가(맹인, 35).
- 소품 = 낙타와 바늘귀(25절)의 과장된 그림.
- 세리의 몸짓 — "멀리 서서...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13절).
- 방향 표지 =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31절).
- chera(과부)·telones(세리)·ekdikeo(신원)가 배경 어휘로 깔림.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작은 자들이 줄지어 나옴 — 과부·세리·어린이·맹인.
- 부자 관리 장면(18-23)에서 "근심하며" 가라앉음.
- 맹인의 "다윗의 자손이여" 두 번 외침(38-39)이 반복으로 들림.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 기도로 열림.
- 43절: "곧 보게 되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 봄·찬양으로 닫힘.
- 가운데 14절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가 세리·어린이·맹인으로 흐름.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재판관·과부 / 바리새인·세리 / 어린이·데려온 사람들 / 부자 관리 / 제자들 / 맹인 거지.
- 두 기도 — 바리새인 "나는 ~아니며"(11), 세리 "죄인어로소이다"(13).
- "의롭다 하심"(dikaioo, 14)과 "낮추는"(tapeinoo, 14)이 한 절에.
- 부자 관리 —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21), "근심하더라"(23).
- "영생"(aionios)이 부자(18)와 제자(30) 두 장면에 걸침.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 과부와 재판관, "낙심하지 말라", "믿음을 보겠느냐".
- 컷 2 (9-14): 성전 두 기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 컷 3 (15-17): 어린이, "어린이와 같이 받으라".
- 컷 4 (18-30): 부자 관리, "다 팔아 나누어 주라", 낙타·바늘귀.

- 컷 5 (31-34): 수난 예고, 깨닫지 못함.
- 컷 6 (35-43): 여리고 맹인,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봄.

## 6 – (1) 원어 카드

- chera(χήρα) – 과부. 3절.
- ekdikeo(ἐκδικέω) – 신원하다·원한을 풀다. 3·5절.
- telones(τελώνης) – 세리. 10·13절.
- dikaiō(δικαίω) – 의롭다 하다. 14절.
- tapeinoō(ταπεινῶ) – 낮추다. 14절.
- paidion(παιδίον) – 어린아이. 16-17절.
- kamelos(κάμηλος) – 낙타. 25절.
- anablepo(ἀναβλέπω) – 다시 보다·위를 보다. 41-43절.

## 6 – (2) 문학 구조

- 비유-사건의 교차 – 비유(1-14) → 사건(15-43).
- "낮춤-높임"의 짝(14절)이 세리·어린아이·맹인을 꺾는 결.
- 두 기도의 대조(11·13) – 같은 성전, 다른 자세.
- 부자(돌아감)와 맹인(따름)의 엇갈림(23·43).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과부와 재판관 비유는 약자의 끈질긴 호소를 배경으로 둠(2-5절).
- 세리는 당시 멀리받던 직군 – "멀리 서서"의 거리를 본문이 그림(13절).
- "낙타가 바늘귀로"(25절)는 본문 그대로의 과장 표현 – 배경으로만.
-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목(35·31절) – 지리 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18:14 ↔ 눅 14:11 (낮추는 자·높아지는 자)
- 눅 18:17 ↔ 막 10:15 / 마 18:3 (어린아이와 같이 받음)
- 눅 18:22 ↔ 눅 12:33 (소유를 팔아 구제)
- 눅 18:31-33 ↔ 눅 9:22 / 9:44 (수난 예고들)
- 눅 18:38 ↔ 눅 1:32 (다윗의 자손)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불의한 재판관도 끝내 신원하는 과부의 비유로 "낙심하지 말라" 하신다.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자랑하는 바리새인과 가슴을 치는 세리—가운데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에게 "용납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라" 하신다. 부자 관리가 영생을 묻자 "다 팔아 나누어 주라" 하시니 근심하며 돌아가고, 낙타와 바늘귀가 말해진다. 베드로의 말에 받을 것을 이르고, 예루살렘으로 오르며 수난을 예고하시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다. 여리고 길가의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봄을 구하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그가 곧 보게 되어 따르며, 백성이 찬양하는 한 줄로 달린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
- 초벌 부제: "낮아진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길가에서 다시 본다"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세리·과부·여리고 길목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두 기도(11·13)가 교훈 대조로 굳지 않도록 → 자세·발화의 위치만 기록.
- 부자 관리의 "근심"(23)을 정죄로 미끄러뜨리지 않고 → 본문 표현 그대로 보존.
- anablepo(42)의 '다시 봄/위를 봄' 두 결은 보류, 분포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18장은 과부·세리·어린이·맹인이라는 낮은 자리의 사람들이 부자 관리와 엇갈리며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의 결을 함께 그리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쉬지 않고 호소하는 과부의 비유로 열린다.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가운데 가슴을 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린아이는 막던 손을 지나 안긴다. 영생을 물은 부자 관리의 소유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가고, 낙타와 바늘귀가 말해진다.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의 여리고에서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다 다시 보게 되고, 백성의 찬양으로 장이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비유 속 도시 → 성전(10) → 사람들 사이(15·18) → 여리고 길가(35). 소품 = 낙타·바늘귀(25).
2 첫 느낌·분위기	작은 자들의 줄(과부·세리·어린이·맹인), 부자에서 가라앉음, 맹인의 반복된 외침.
3 시작과 끝	시작 — 항상 기도(1절). 끝 — 다시 봄·찬양(43절). 기도에서 봄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과부·재판관 / 바리새인·세리 / 어린이 / 부자 관리 / 맹인. 사상 =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tapeinoo-dikaioo).
5 장면 컷	컷 1 과부(1-8). 컷 2 두 기도(9-14). 컷 3 어린이(15-17). 컷 4 부자 관리(18-30). 컷 5 수난 예고(31-34). 컷 6 맹인(35-43).
6 의문·발견·정보	세리의 몸짓(13). "믿음을 보겠느냐"(8). 근심하는 부자(23). 깨닫지 못함(34). anablepo(42).
7 동영상	과부의 호소 → 두 기도 → 어린이 → 돌아간 부자 → 예루살렘 길 → 다시 본 맹인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 부제 — "낮아진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길가에서 다시 본다".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성전과 여리고 길가를 걸으며 낮은 자리와 돌아가는 자리 사이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두 기도:** 같은 성전에서 바리새인은 자랑하고 세리는 가슴을 친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14절)—자세의 차이만 본문이 그린다.
- 결 2 — 받음과 돌아감:** 어린아이는 "받아들이는" 자리에 있고(17절), 부자 관리는 소유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간다(23절). 받음과 돌아감이 나란하다.
- 결 3 — 구함에서 봄으로:** 쉬지 않는 기도(1절)로 열린 장이 "보기를 원하나이다"(41절)의 맹인에게서 봄으로 닫힌다. 구함이 봄이 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14:11** (낮춤·높임), **눅 19:1-10** (다음 장 삭개오, 부자의 다른 결).
- 다른 권 — **막 10:13-52** (어린이·부자·맹인의 같은 묶음), **마 18:3** (어린이가 됨).
- 정경 흐름 — 18장의 부자 관리(돌아감)와 19장의 삭개오(내려옴)가 부의 두 결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쉬지 않고 구하는 과부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가슴을 친 세리의 기도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의 뒷모습에서 멈춘다.
- **멈춤 3:**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맹인의 청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낮아진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결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세리의 자리와 부자의 자리 사이\*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과부가 쉬지 않고 신원을 구한다
- [x] 세리가 가슴을 치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 [x] 어린아이와 같이 나라를 받으라 하신다
- [x] 부자 관리가 근심하며 돌아간다
- [x] 낙타와 바늘귀가 말해진다
- [x]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외친다
- [x] 끝은 다시 보게 된 눈과 찬양이다

---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이 책은 사도행전의 전서(前書)로, 개개인의 내면에 임한 통치가 끝내 땅끝으로 폭발하는 호(arc)를 그린다. 18장은 그 호에서 통치가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못 박는 자리다. 통치는 신원할 힘 없는 과부, 자랑 없는 세리, 빈손의 어린이, 길가의 맹인 — 곧 낮은 자리의 내면에 임한다. 자기 의로 무장한 바리새인과 소유로 가득 찬 부자 관리는 도리어 비껴간다. 이는 누가가 32-33절(다윗의 위)에서 약속한 나라가 외적 정복이 아니라 비천한 개인의 내면으로 들어오음을 보여주는 한 국면이다. 31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가 그 통치가 십자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가리킨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기 의(바리새인·부자 관리)→의롭다 하심(세리) / 스스로 높임→낮아져 받음 / 구함→다시 봄.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높은 손에서 빈손으로 미는 운동이다. 쉬지 않는 기도(1절) → 가슴을 친 세리의 의롭다 하심(14절) → 어린아이처럼 받음(17절) →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23절) → 예루살렘 길(31절) → 다시 본 맹인(43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자기를 채운 손이 빈손으로 비워져 받는 자리로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기도·헌신 요구·치유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비천한 자의 내면에 임하는 의롭다 하심이다. "dikaiōo(의롭다 하다)"라는 법정 단어가 성전 뒤편 세리에게 선언되는 것은, 통치가 공로의 저울이 아니라 빈손의 받음으로 임함을 드러낸다. 부자 관리가 "근심하며" 돌아간 까닭도 같은 결이다 — 손에 쥘 것이 가득해 받을 자리가 없었다. 빙산의 수면 위는 두 기도와 한 치유지만, 아래는 높임과 낮춤의 방향이 뒤집히는 통치, 곧 낮은 내면에 들어오는 나라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내 손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큼 비어 있는가, 아니면 가득 차 근심하며 돌아갈 만큼 채워져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세리의 빈손 결과 부자 관리의 가득 찬 손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갈림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낮아짐.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돌아간 부자(18장)와 달리, 19장의 또 다른 부자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 한 집에 구원을 맞는다 — 낮아져 받음의 운동이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구원으로 이어진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18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비유 끝의 "믿음을 보겠느냐"(8절)는 왜 붙는가?**

- 기도 비유 끝에 인자의 음과 믿음 물음이 이어짐.
- 기도와 믿음의 연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같은 성전의 두 기도는 무엇으로 갈리는가?(11·13절)**

- 자랑과 가슴 침의 자세 차이만 본문이 그림.
- 갈림의 결은 위치만 기록.

**Q3. 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 하는가?(17절)**

- 받음의 방식이 어린아이에 비유됨.
- 비유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Q4. 부자 관리는 왜 "근심하며" 돌아갔는가?(23절)**

- "심히 부자이므로"라고 본문이 까닭을 밝힘.
- 근심의 깊이는 답하지 않고 보존.

**Q5. 제자들은 왜 수난 예고를 깨닫지 못했는가?(34절)**

-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라고 본문이 말함.
- 감추어짐의 까닭은 보류.

**Q6. 맹인은 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는가?(39절)**

- 잠잠하라는 꾸짖음에 더 크게 부름.
- 외침의 절박함은 위치만 기록.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누가복음 19장

LUK-019 · 복음서 · 헬라어

잃은 자를 찾아 한 집에 구원이 임하고, 환호 속 입성 한가운데서 성을 보고 우신다.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여리고 거리(1) → 비유 속 먼 나라(12) → 감람산 길·성문(29) → 성을 보는 언덕(41) → 성전(45).
- 소품 = 돌무화과나무(4), 은 열 므나(13), 나귀 새끼와 겂옷(35).
- 한 집(삭개오)에서 성 전체로 무대가 커짐.
- architelones(세리장)·mna(므나)가 배경 어휘로 깔림.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따뜻함(삭개오의 영접), 입성 한가운데 갑작스런 눈물(41).
- 찬송과 눈물이 같은 길에 붙어 있음.
- 끝의 성전 =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의 대조(46).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 한 도시 통과로 열림.
-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 가르침·적대의 긴장으로 닫힘.
- 가운데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가 장의 결을 엮.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삭개오 / 수군거리는 무리 / 비유의 귀인·열 종·백성 / 제자들 / 바리새인 / 성전 장사꾼 / 대제사장·서기관.
- 삭개오 — "키가 작고"(3),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6), 절반·갑절(8).
- 므나 비유 — 남긴 종(16·18)과 묻어 둔 종(20).
- 입성 —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38), 비유의 "왕위"(basileus)와 겹침.
- 성을 보고 우심(klaio, 41), "평화"(eirene, 42), "보살피는 날"(episkope, 44).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0): 삭개오,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 집에".
- 컷 2 (11-27): 열 므나, 남긴 종·묻어 둔 종, 왕을 싫어한 백성.
- 컷 3 (28-40): 나귀 새끼, 겂옷, 찬송, 바리새인의 항의.
- 컷 4 (41-44): 성을 보고 우심, "평화", "보살피는 날".

- 컷 5 (45-46): 성전 정화, "기도하는 집"·"강도의 소굴".
- 컷 6 (47-48): 날마다 가르치심, 적대와 들음.

## 6 – (1) 원어 카드

- architelones(ἀρχιτελώνης) – 세리장. 2절.
- soteria(σωτηρία) – 구원. 9절 "구원이 이 집에".
- mna(μνᾶ) – 므나(화폐). 13절 이하.
- basileus(βασιλεύς) – 왕. 38절 입성 / 비유의 "왕위"(12·14·27).
- klaio(κλαίω) – 소리 내어 울다. 41절.
- eirene(εἰρήνη) – 평화. 38·42절.
- episkope(ἐπισκοπή) – 보살핌·찾아오심. 44절.
- proseuche(προσευχή) – 기도. 46절 "기도하는 집".

## 6 – (2) 문학 구조

- 한 집(1-10) → 비유(11-27) → 성(28-48)의 확대.
- "잃은 자를 찾음"(10)과 "보살피는 날을 알지 못함"(44)의 대비.
- 찬송(38)과 눈물(41)의 인접.
- 성전의 두 인용 겹침 – "기도하는 집"·"강도의 소굴"(46).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세리장은 세리들의 우두머리 – 부와 멸시가 함께한 직군(2절 배경).
- 나귀 새끼·겂옷 깔기는 왕의 입성 그림(35절, 속 9:9의 결).
- 38절 외침은 시 118:26의 구절을 입성에 엮음 – 배경으로만.
- 46절은 사 56:7과 렘 7:11의 결을 한 문장에 겹쳐 인용.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19:10 ↔ 눅 15 (잃은 양·동전·아들, 찾음의 결)
- 눅 19:11-27 ↔ 마 25:14-30 (달란트 비유와 결이 닿음)
- 눅 19:38 ↔ 시 118:26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 눅 19:46 ↔ 사 56:7 / 렘 7:11 (기도하는 집·강도의 소굴)
- 눅 19:44 ↔ 눅 21:6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음)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여리고를 지나실 때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보려 한다.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그가 즐거워 영접하고, 절반과 갑절을 말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는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하신다. 예루살렘이 가까우매 열 므나 비유를 주시어 남긴 종과 물어 둔 종을 가르신다. 감람산 길에서 나귀 새끼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겂옷을 깔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한다. 성을 보시고 우시며 "보살피는 날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신 뒤, 성전을 비우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다. 날마다 가르치시니 지도자들은 죽이려 하나 백성이 귀를 기울이는 한 줄로 달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오늘 구원이 이 집에 — 성을 보고 우시며"
- 초벌 부제: "한 집에 임한 구원, 환호 한가운데 흘린 눈물"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세리장·나귀 입성·성전 인용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삭개오의 절반·갑절(8)이 공로 공식으로 굳지 않도록 → 부름이 먼저임(5)과 함께 위치만 기록.
- 입성의 "왕"(38)과 우심(41)을 하나의 교훈으로 통합하지 않고 → 두 장면의 인접만 보존.
- 성전 두 인용(46)의 관계는 보류, 겹침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19장은 잃은 한 사람을 찾아 한 집에 임한 구원이, 환호하는 입성 한가운데 성을 보고 흘린 눈물로 이어지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여리고에서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부르시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하신다. 곧 열 마리의 비유로 말김과 결산을 가르치시고, 나귀 위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드신다.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는 그 길에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보살피는 날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신다. 성전을 비우시며 "기도하는 집"을 말씀하시고, 날마다 가르치시는 가운데 적대와 들음이 맞선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여리고(1) → 비유 먼 나라(12) → 감람산 길(29) → 성 앞 언덕(41) → 성전(45). 소품 = 돌무화과나무·므나·나귀.
2 첫 느낌·분위기	삭개오의 따뜻함, 입성 한가운데 눈물(41), 성전의 두 걸.
3 시작과 끝	시작 — 여리고 통과(1). 끝 — 가르침·적대의 긴장(48). 한 집에서 성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삭개오 / 무리 / 비유의 종들 / 제자 / 바리새인 / 성전 장사꾼 / 지도자. 사상 = 잃은 자를 찾음, 말김, 왕, 우심.
5 장면 컷	컷 1 삭개오(1-10). 컷 2 열 므나(11-27). 컷 3 입성(28-40). 컷 4 우심(41-44). 컷 5 성전(45-46). 컷 6 가르침(47-48).
6 의문·발견·정보	먼저 부르심(5). "빼앗기리라"(26). 돌들의 외침(40). 우심의 까닭(41). 두 인용 겹침(46).
7 동영상	나무의 삭개오 → 구원이 이 집에 → 열 므나 → 나귀 입성 → 성을 보고 우심 → 성전 정확히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오늘 구원이 이 집에 — 성을 보고 우시며". 부제 — "한 집에 임한 구원, 환호 한가운데 흘린 눈물".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여리고 거리와 성 앞 언덕을 걸으며 찾음과 눈물 사이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먼저 찾음:** 삭개오가 청하기 전에 "속히 내려오라"(5절) 이름이 불린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10절)—찾음이 먼저다.
- 결 2 — 말김과 결산:** 열 므나가 종들에게 맡겨지고(13절), 남긴 종과 묻어 둔 종이 갈린다. 말김 뒤에 결산이 있다.
- 결 3 — 환호와 눈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38절)의 찬송 한가운데 성을 보고 우신다(41절). 같은 길에 환호와 눈물이 함께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15** (잃은 것을 찾음, 19:10과 한 걸), **눅 18:18-23** (앞 장 부자 관리, 삭개오와 대조).
- 다른 권 — **속 9:9** (나귀 위의 왕), **시 118:26** (오시는 이), **사 56:7 / 렘 7:11** (성전).
- 정경 흐름 — 19장의 입성·성전 정확히는 20-21장의 성전 논쟁과 종말 강론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나무 위에서 보려 애쓰는 한 사람 곁에 선다.
- **멈춤 1:** 이름이 먼저 불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수건에 싸 둔 한 므나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찬송 한가운데 흐르는 눈물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찾으심이 먼저고, 그 길 위에 눈물이 있다\*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환호와 눈물이 만나는 길 곁\*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영접한다
- [x]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가 선언된다
- [x] 열 르나가 맡겨지고 결산된다
- [x] 나귀 위에서 "왕이여" 찬송이 오른다
- [x] 성을 보시고 우신다
- [x]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다
- [x] 끝은 가르침과 적대의 긴장이다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19장은 그 호에서 **찾아 오심(episkope)**이 갈라지는 분수령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10절)는 누가복음의 사명 선언으로, 한 개인(삭개오)의 내면에 임한 구원이 책 전체의 표제어가 된다. 동시에 41-44절에서 그 통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우신다 — 찾아오신 분을 성이 알지 못한 까닭이다. 18장에서 시작된 '낮은 자리에 임하는 나라'가, 한 집에서는 구원으로 맞아지고 한 성에서는 눈물로 비껴가는 갈림이 여기서 못 박힌다. 이어지는 수난 주간(20장 이하)의 문턱이 이 성을 보고 우심에서 열린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나무에서 내려온 한 사람(삭개오)에 임한 구원 → 환호 속에서 성을 보고 우심 / 맞이함 → 농침.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한 집의 받음에서 한 성의 농침으로 미는 운동이다. 나무에서 내려옴(6절) → "오늘 구원이 이 집에"(9절) → 잃은 자를 찾는 사명(10절) → 르나의 활용과 묻어 둠(11-27절) → 환호의 입성(37절) → 성을 보고 우심(41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찾아오심 앞에서 맞이함과 농침이 갈라지는 한 운동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한 부자의 회개와 왕의 입성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찾아오신 통치를 알아보는 내면과 알아보지 못하는 내면의 갈림**이다. 삭개오는 작은 키로 나무에 올랐다가 내려와 그분을 맞고, 큰 성은 환호하면서도 "권고받는 날"(episkope, 44절)을 알지 못한다. 빙산의 수면 위는 환호하는 종려의 길이지만, 아래는 **그 환호의 한복판에서 흘리시는 눈물**, 곧 알아보지 못한 자를 향한 통치의 슬픔이다. 외적 왕의 등극처럼 보이나, 본질은 인격적으로 찾아와 맞아지기를 구하는 나라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찾아오신 그분을 내려와 맞이하는 삭개오인가, 환호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해 우심을 사는 성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삭개오의 맞이함 결과 예루살렘의 농침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갈림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찾으심.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우심을 산 성에 들어가신 그분이, 20장에서 성전 뜰의 권위 물음에 맞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비유로 답하신다 — 알아보지 못한 자들의 거부가 도리어 모퉁이의 머릿돌을 세운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19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예수께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는가?(5절)**

- 삭개오가 청하기 전에 부름이 먼저 옴.
- 먼저 부름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26절)는 무엇인가?**

- 묻어 둔 종의 결말에 이어진 말.
- 이 무계의 결은 위치만 기록.

**Q3. 환호 한가운데서 왜 우셨는가?(41절)**

- 찬송과 눈물이 같은 길에 있음.
- 눈물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4. "보살피는 날을 알지 못함"(44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episkope의 날을 알지 못함이 까닭으로 제시됨.
- 그 날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Q5.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40절)는 어떤 그림인가?**

- 잠잠하면 돌이 외친다는 멈출 수 없는 결.
- 이미지의 결은 보류, 위치만 기록.

**Q6. 성전의 두 인용은 어떻게 한 문장에 겹치는가?(46절)**

-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함께 놓임.
- 두 본문의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누가복음 20장

LUK-020 · 복음서 · 헬라어

권위를 묻는 자리에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고, 형상과 부활을 두고 덧과 답이 오간다.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성전 가르침의 자리(1절). 19장에 이어 성전에서 물음과 답이 오감.
- 비유 속 무대 = 포도원, 농부·종들·아들(9-15).
- 소품 = 데나리온 동전과 그 형상(24).
-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 입장을 들고 옴(27).
- exousia(권위)·ampelon(포도원)·lithos(돌)가 배경 어휘로 깔림.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묻고 답하는 팽팽한 결, 여러 무리가 차례로 시험.
- 포도원 비유(9-18)에서 무거워짐.
- "버린 돌이 머릿돌"(17)이 물음들 사이에 박힘.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라" — 권위의 물음으로 열림.
- 47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 서기관 경고로 닫힘.
- 가운데 17-18절 "버린 돌이 머릿돌"과 "떨어지는 자"가 축으로 박힘.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대제사장·서기관·장로(1) / 정탐꾼(20) / 사두개인(27) / 백성(45) / 비유의 주인·농부·종·아들.
- 본문이 의도 밝힘 — "의인인 체하며... 책잡고자"(20).
- 포도원 비유 — 보냄과 거절, "사랑하는 아들"을 죽임(15).
- "가이사"(Kaisar)·"형상"(eikon, 24),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25).
- 부활(anastasis)·"천사와 동등"(isangelos, 36), "산 자의 하나님"(38).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 권위 논쟁, 요한의 세례로 되물으심.
- 컷 2 (9-19): 포도원·악한 농부, "버린 돌이 머릿돌".
- 컷 3 (20-26): 가이사의 세금, 형상, 두 뭉.
- 컷 4 (27-40): 일곱 형제, 부활 논쟁, "산 자의 하나님".

- 컷 5 (41-44): 다윗과 그리스도, 시편 110편.
- 컷 6 (45-47): 서기관을 삼가라, 더 엄중한 심판.

## 6 – (1) 원어 카드

- exousia(ἐξουσία) — 권위. 2·8절.
- ampelon(ἀμπελών) — 포도원. 9절 이하.
- georgos(γεωργός) — 농부. 9·10·14·16절.
- lithos(λίθος) — 돌. 17-18절.
- Kaisar(Καῖσαρ) — 가이사. 22·24·25절.
- eikon(εἰκών) — 형상·이미지. 24절.
- anastasis(ἀνάστασις) — 부활. 27·33·35-36절.
- isangelos(ἰσάγγελος) — 천사와 동등·천사 같은. 36절.

## 6 – (2) 문학 구조

- 받음(시험-답: 1·3·4컷)과 여심(예수의 말씀: 2·5·6컷)의 번갈음.
- 포도원 비유의 점층 — 종→종→종→아들(10-15).
- "버린 돌-머릿돌"(17)과 "떨어지는 자"(18)의 두 결.
- 덮이 빛나감을 감싸는 틀 — "책잡고자"(20)·"책잡지 못하고 잠잠"(26).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입장 — 본문이 그 전제를 밝힘(27절).
-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로마 화폐(24절 배경).
- 17절은 시 118:22을, 42-43절은 시 110:1을 직접 인용 — 배경으로만.
- 37절 모세의 떨기나무(출 3:6)를 부활 논거로 드심 — 인용 위치로 기록.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20:17 ↔ 시 118:22 (버린 돌·머릿돌)
- 눅 20:9-16 ↔ 사 5:1-7 (포도원의 노래)
- 눅 20:37 ↔ 출 3:6 (떨기나무·조상의 하나님)
- 눅 20:42-43 ↔ 시 110:1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 눅 20:47 ↔ 눅 21:1-4 (과부의 가산·과부의 헌금)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이 권위를 묻자, 요한의 세례로 되물어 그들을 잠잠케 하신다. 포도원과 악한 농부의 비유로 보냄과 거절을 그리시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하시니 듣는 이들이 물러선다. 정탐꾼들이 가이사의 세금을 묻자 데나리온의 형상을 물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신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이 일곱 형제 이야기를 들고 오나,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신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시편을 드신 뒤, 서기관을 삼가라 경고하며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버린 돌이 머릿돌 — 산 자의 하나님이라"
- 초벌 부제: "묻는 덧 사이에서, 버린 돌과 산 자의 하나님"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사두개인·데나리온·시편 인용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가이사 의 것·하나님의 것"(25)이 정치 원리로 굳지 않도록 → 형상과 두 뭉의 위치만 기록.
- 포도원 비유의 "아들"(15)을 알레고리로 봉합하지 않고 → 보냄·거절의 점층만 보존.
- "산 자의 하나님"(38)을 교리 명제로 굳히지 않고 → 떨기나무 인용 위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20장은 권위를 묻는 덧들 사이에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고 산 자의 하나님이 답으로 놓이는, 성전의 물음-답의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물음으로 열린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세례로 되물으시고, 포도원과 악한 농부의 비유로 보냄과 거절을 그리시며 "버린 돌이 머릿돌"을 드신다. 가이사의 세금을 묻는 덧에는 데나리온의 형상을 물으시고 두 뭉을 나누시며,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에게는 "산 자의 하나님"을 답으로 두신다. 끝은 다윗의 시편과 서기관 경고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성전 가르침(1) / 비유 속 포도원(9). 소품 = 데나리온·형상(24). 사두개인의 부활 부인(27).
2 첫 느낌·분위기	묻고 답하는 팽팽함, 포도원 비유의 무거움, "버린 돌"의 매듭.
3 시작과 끝	시작 — 권위의 물음(2). 끝 — 더 엄중한 심판(47). 물음에서 경고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지도자 / 정탐꾼 / 사두개인 / 백성 / 비유의 인물들. 사상 = 권위, 보냄·거절, 형상·두 몫, 부활.
5 장면 컷	컷 1 권위(1-8). 컷 2 포도원(9-19). 컷 3 세금(20-26). 컷 4 부활(27-40). 컷 5 다윗(41-44). 컷 6 서기관(45-47).
6 의문·발견·정보	되물으심(3). 듣는 반응(16). 두 결의 돌(17-18). 형상·두 몫(24-25). 떨기나무(37).
7 동영상	권위 물음 → 포도원·머릿돌 → 가이사의 형상 → 산 자의 하나님 → 다윗의 주 → 서기관 경고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버린 돌이 머릿돌 —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부제 — "묻는 덧 사이에서, 버린 돌과 산 자의 하나님".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성전 뜰과 묻는 무리 사이를 걸으며 덧과 답 사이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러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버린 돌:** 포도원 비유 끝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17절)가 놓인다. 버려짐과 머릿돌이 한 돌에 겹친다.
2. **결 2 — 두 몫:** 데나리온의 형상을 물으신 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25절). 형상의 입자와 하나님의 몫이 나란하다.
3. **결 3 — 산 자의 하나님:** 부활 논쟁에서 떨기나무의 칭함을 드시며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38절). 죽음의 물음에 산 자가 답으로 놓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19:47** (앞 장 적대의 시작), **눅 21:1-4** (서기관 경고에 이은 과부의 헌금).
- 다른 권 — **사 5:1-7** (포도원의 노래), **시 118:22** (버린 돌), **출 3:6** (떨기나무), **시 110:1** (다윗의 주).
- 정경 흐름 — 20장의 성전 논쟁은 21장의 성전 멸망·종말 강론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권위를 묻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사랑하는 아들이 내쫓겨 죽는 비유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데나리온의 형상을 들여다보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답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결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덧과 답이 오가는 성전 뜰 결\*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무슨 권위로"에 되물으신다
- [x] 포도원에서 아들마저 죽임당한다
- [x]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 [x] 데나리온의 형상을 물으신다
- [x]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신다
- [x]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신다
- [x] 끝은 서기관을 삼가라는 경고다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20장은 그 호에서 통치의 권위가 거부 한복판에서 드러나는 자리다. 성전 들의 권위 물음(2절)으로 시작된 이 장은, 포도원 농부 비유(9-19절)에서 상속자를 죽여 던지는 거부를 그리고, 곧 시편 118편 "버린 돌이 머릿돌"(17절)로 그 거부가 도리어 머릿돌을 세움을 선언한다.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27-40절)은 "산 자의 하나님"(출 3장을 다시 여는 자리)으로 답해져, 통치가 죽음 너머의 생명에 뿌리내림을 드러낸다. 19장에서 알아보지 못한 성의 거부가, 여기서 머릿돌을 세우는 역설로 이어진다 — 수난(22-23장)을 향한 호의 결정적 한 매듭이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권위를 묻는 덧→권위가 스스로 드러남 / 건축자가 버린 돌→모퉁이의 머릿돌 / 죽은 자의 물음→산 자의 하나님.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거부에서 머릿돌로 미는 운동이다. 권위 물음(2절) → 포도원 농부 비유(9-19절) → 버린 돌·머릿돌(17절) →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25절) → 산 자의 하나님(38절) → 묻는 입의 다물림(40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던진 덧들이 도리어 권위를 드러내는 빛으로 되돌려지는 한 운동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일련의 논쟁과 덧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사람이 버린 것을 세우는 통치의 전복이다. 농부들이 상속자를 죽여 포도원 밖에 던지지만, 그 버려진 아들이 곧 "머릿돌"이 된다. 사두개인이 죽음을 전제로 부활을 조롱하지만, 그분은 "산 자의 하나님"으로 죽음의 전제 자체를 뒤집으신다. 빙산의 수면 위는 권위 다툼이지만, 아래는 거부와 죽음을 통과해 도리어 세워지는 나라, 곧 인간의 버림으로 무너지지 않는 통치의 견고함이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권위를 덧으로 묻는 자리에 서 있는가, 버려진 돌이 머릿돌 됨을 알아보는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묻는 자들의 덧 결과 머릿돌을 보는 눈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갈림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머릿돌.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머릿돌의 권위로 성전 뜰에 서신 그분이, 21장에서 그 성전의 끝을 예고하시고 과부의 전부와 종말의 깨어 기도로 시선을 돌리신다 — 버려질 성전에서 깨어 기다리는 마음으로 카메라가 옮겨 간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20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권위 물음에 물음으로 되물으셨는가?(3절)**

- 요한의 세례를 되물어 답을 정하지 못하게 하심.
- 되물음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비유 끝에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16절)는 왜 끼어드는가?**

- 듣는 이들의 반응이 비유 끝에 박힘.
- 반응의 결은 위치만 기록.

**Q3. "버린 돌이 머릿돌"(17절)과 "떨어지는 자"(18절)는 어떻게 함께인가?**

- 한 돌의 두 결이 나란히 놓임.
- 두 결의 관계는 보류.

**Q4. "형상"을 묻고 "두 뭇"으로 나누심(24-25절)은 어떤 결인가?**

- 형상의 입자와 하나님의 뭇이 한 장면에.
- 두 뭇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5. 왜 떨기나무의 모세를 부활 논거로 드셨는가?(37절)**

-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칭함을 근거로 드심.
- 논거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Q6.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주"는 어떻게 함께인가?(41-44절)**

- 시편 110편으로 자손과 주가 나란히 놓임.
- 둘의 관계는 보류, 위치만 기록.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누가복음 21장

LUK-021 · 복음서 · 헬라어

부족한 중에 전부를 넣은 과부 곁에서 성전의 끝이 예고되고, 흔들림 가운데 깨어 기도가 남는다.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성전 헌금함 앞(1) → 성전 건물(5) → 세상·예루살렘(10·20) → 하늘 천체(25) → 감람산·성전(37).
- 소품 = 두 렙돈(2), 아름다운 돌과 헌물(5), 무화과나무 잎(29).
- 헌금함에서 천체까지 무대가 확대.
- lepton(렙돈)·husteresis(구차함)·hieron(성전)이 배경 어휘로 깔림.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작은 데서 큰 데로 확대 — 동전 돌 → 성전 멸망 → 천체 흔들림.
- 조용한 과부 장면 뒤 "돌이 남지 않으리라"로 정적이 깨짐.
- 큰 흔들림 끝에 "깨어 기도하라"로 조용히 닫힘.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4절: 과부의 두 렙돈 — 작은 헌금으로 열림.
- 37-38절: "낮에는 가르치시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 매일의 가르침·들음으로 닫힘.
- 가운데 3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가 흔들림의 결론으로 박힘.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부자들(1) / 가난한 과부(2) / 성전을 칭찬하는 사람들(5) / 묻는 제자들(7) / 강론의 "너희".
- 과부 — "그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4).
- 흔들림과 견딤 — "미움을 받을 것이나"(17),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19).
- "징조"(semeion, 25), "환난"(thlipsis, 23), "속량"(apolytroisis, 28).
- 잡힘·넘겨짐(paradidomi, 12·16)이 증언의 자리로(15).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과부의 두 렙돈, "전부를 넣었느니라".
- 컷 2 (5-7): 성전의 돌, "남지 않으리라", 제자의 물음.
- 컷 3 (8-19): 미혹·전쟁·지진, 잡힘과 증언, 인내.
- 컷 4 (20-24): 예루살렘 에워싸임, "이방인의 때".

- 컷 5 (25-28): 천체 징조, 인자의 음,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 컷 6 (29-38): 무화과나무,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깨어 기도하라".

## 6 – (1) 원어 카드

- lepton(λεπτόν) — 렙돈(가장 작은 동전). 2절.
- husteresis(ὑστέρησις) — 부족·구차함. 4절.
- hieron(ἱερόν) — 성전. 5절.
- semeion(σημεῖον) — 징조. 7·11·25절.
- thlipsis(θλίψις) — 환난·눌림. 23절.
- apolytrois(ἀπολύτρωσις) — 속량·놓아 풀어 줌. 28절.
- agrupneo(ἀγρυπνέω) — 깨어 있다. 36절.
- deomai(δέομαι) — 간구하다·기도하다. 36절.

## 6 – (2) 문학 구조

- 스케일의 확대 — 동전 둘(1-4) → 성전(5-7) → 세상(8-24) → 천체(25-28) → 자연 비유·깨어 기도(29-38).
- "미움"(17)과 "인내로 영혼을 얻음"(19)의 짝.
- 잡힘(paradidomi)이 증언으로 뒤집힘(12-15).
- 흔들림의 결론이 "깨어 기도"(36)로 수렴.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 — 과부의 "전부"의 작음을 본문이 그림(2-4절).
- 성전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건물 — 칭찬의 배경(5절).
-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임"(20절)은 성의 포위 그림 — 배경으로만.
- 6절 "돌 위에 돌"은 19:44와 같은 결을 다시 이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21:6 ↔ 눅 19:44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음)
- 눅 21:1-4 ↔ 막 12:41-44 (과부의 두 렙돈)
- 눅 21:27 ↔ 단 7:13 (구름 타고 오는 인자)
- 눅 21:12-15 ↔ 눅 12:11-12 (잡힐 때의 변명·성령)
- 눅 21:36 ↔ 눅 18:1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던 중,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생활비 전부—을 넣는 것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신다. 성전의 아름다운 돌을 칭찬하는 이들에게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징조를 묻는다. 미혹을 경계하라 하시고 전쟁·지진·기근·잡힘을 말씀하시며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하신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거든 도망하라 하시고, 천체의 징조와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말씀하시며 "머리를 들라, 속량이 가까웠다" 하신다. 무화과나무를 보라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하신 뒤, 낮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엔 감람산에서 쉬시는 매일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두 렘돈에서 깨어 기도까지 — 흔들림 가운데 머리를 들라"
- 초벌 부제: "작은 두 뉘에서 큰 흔들림까지, 그리고 깨어 기도"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렘돈·성전 건물·예루살렘 포위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천체 징조(25-26)가 연대표로 굳지 않도록 → 본문의 그림·순서만 기록.
- 과부의 "전부"(4)를 현금 공식으로 굳히지 않고 → 셈하는 기준의 차이만 보존.
- "이 세대"(32)와 "내 말"(33)의 관계는 보류, 위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21장은 구차한 중에 전부를 넣은 과부의 두 렘돈에서 성전의 끝과 큰 흔들림으로 넓어졌다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로 돌아오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부자들 곁에서 두 렘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를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보신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이들에게 "둘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하시고, 미혹·전쟁·지진·잡힘의 흔들림을 말씀하시며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하신다. 예루살렘의 포위와 천체의 징조를 지나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말씀하시며 "머리를 들라, 속량이 가까웠다" 하신다. 무화과나무 비유 끝에 "깨어 기도하라"가 결론으로 놓이고, 매일의 가르침으로 장이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헌금함(1) → 성전 건물(5) → 세상·예루살렘(10·20) → 천체(25) → 감람산(37). 소품 = 두 렵돈·돌·무화과 잎.
2 첫 느낌·분위기	작은 데서 큰 데로 확대, 조용한 과부 뒤 정적이 깨짐, 끝의 "깨어 기도".
3 시작과 끝	시작 — 과부의 두 렵돈(1-4). 끝 — 매일의 가르침·들음(37-38). 작은 헌금에서 매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부자·과부 / 성전 칭찬하는 이 / 제자. 사상 = 전부, 흔들림·인내, 징조·속량, 깨어 기도.
5 장면 컷	컷 1 과부(1-4). 컷 2 성전 멸망(5-7). 컷 3 흔들림·증언(8-19). 컷 4 예루살렘(20-24). 컷 5 천체·인자(25-28). 컷 6 무화과·깨어 기도(29-38).
6 의문·발견·정보	전부의 셈(3-4). 미혹 경계가 먼저(8). 미리 공리 말라(14). 둔해짐 경계(34). agrupneo·deomai(36).
7 동영상	두 렵돈 → 성전의 끝 → 흔들림·증언 → 예루살렘 포위 → 인자의 옴 → 깨어 기도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두 렵돈에서 깨어 기도까지 — 흔들림 가운데 머리를 들라". 부제 — "작은 두 닢에서 큰 흔들림까지, 그리고 깨어 기도".
9 동영상 안건기·기도	헌금함 앞과 성전 뜰을 걸으며 풍족과 전부 사이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전부의 작음:** 두 렵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3절)로 셈해진다. 금액이 아니라 "구차한 중에서 전부"(4절)가 기준이다.
- 결 2 — 흔들림과 인내:** 전쟁·지진·잡힘이 이어지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19절). 흔들림 끝에 건담이 놓인다.
- 결 3 — 머리를 들라:** 천체가 흔들릴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속량이 가까웠느니라"(28절). 두려움의 자리에서 머리를 드는 결이 말해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19:44 (돌 위에 돌, 21:6과 한 결), 눅 18:1 (항상 기도, 21:36과 짝).
- 다른 권 — 막 12:41-44 (과부의 두 렵돈), 단 7:13 (구름 타고 오는 인자).
- 정경 흐름 — 21장의 "깨어 기도"는 22장 갯세마네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로 곧장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헌금함 앞에서 두 렵돈을 넣는 과부 곁에 선다.
- 멈춤 1: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잡힘이 증언이 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흔들리는 하늘 아래 "머리를 들라"는 부름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흔들림 가운데 깨어 기도가 남는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풍족과 전부 사이, 흔들림과 깨어 있음 사이\*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
- [x] 성전의 돌이 남지 않으리라 하신다
- [x] 잡힘이 증언의 기회가 된다
- [x]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
- [x]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 [x] "머리를 들라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신다
- [x] 끝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이다

####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21장은 그 호에서 **능동적 고대(능동적으로 기다림)**의 자리다 — book-telos가 누가의 특징으로 꼽는 결이다. 무너질 성전(6절)과 민족의 환난(10-24절), 인자의 오심(27절)을 예고하면서도, 본문은 "머리를 들라 속량이 가까웠다"(28절)와 "항상 깨어 기도하라"(36절)로 끝을 향한 마음을 빛낸다. 18-20장에서 낮은 자리에 임하고(18장), 한 집을 찾으며(19장), 머릿돌로 드러난(20장) 통치가, 여기서 **역사의 끝까지 깨어 기다리는 내면**으로 확장된다. 이는 사도행전(성령 받아 땅끝까지)이 그릴 '깨어 증언하는 교회'의 마음 바탕이 되는 국면이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부의 전부(가장 작은 헌신)→성전의 끝(가장 큰 종말)→머리를 들어 깨어 기도(능동적 고대).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작은 헌신에서 깨어 기다림으로 미는 운동이다. 두 렵돈을 넣은 과부(2절) → 돌 하나 남지 않을 성전(6절) → 환난의 징조(10절) → 인자의 오심(27절) → 무화과나무의 잎(29절) →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아니라"(33절) → 깨어 기도(36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헌금함 앞 한 점에서 우주적 끝과 깨어 있는 마음으로 카메라가 열리는 한 운동이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헌금과 성전 멸망 예고와 종말의 징조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사라질 것과 사라지지 않을 것의 분별**이다. 화려한 돌로 꾸민 성전은 무너지고,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은 "전부"로 기억된다 — 외적 크기와 내적 전부의 가치가 뒤집힌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33절)가 그 결을 못 박는다. 빙산의 수면 위는 환난과 멸망의 징조지만, 아래는 **그 끝을 통과해 머리를 드는 능동적 고대**, 곧 두려움이 아니라 속량을 기다리는 깨어 있는 내면이다.

####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끝 앞에서 움츠려 머리를 숙이는가, 속량이 가까웠음에 머리를 들어 깨어 기도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과부의 전부 결과 깨어 기도하라는 부름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깨어 있음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깨어 기도.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깨어 기도하라 하신 그분이, 22장에서 친히 떡과 잔의 새 언약을 세우시고 감람산에서 홀로 기도하신다 — 깨어 기도의 부름이, 제자들이 졸고 그분만 깨어 계신 어둠의 밤으로 이어진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2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금액이 아니라 "전부"가 썸의 기준인가?(3-4절)

- "구차한 중에서 전부"가 "많이 넣음"의 기준으로 제시됨.
- 썸의 기준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강론 맨 앞에 "미혹 경계"가 오는가?(8절)

- 징조보다 미혹 경고가 먼저 놓임.
- 순서의 결은 위치만 기록.

Q3. 왜 "미리 궁리하지 말라"(14절)인가?

- 준비 대신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 하심.
- 준비 없음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4.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24절)는 무엇인가?

- 예루살렘이 밟힐 기한으로 제시됨.
- 그 때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Q5. "이 세대"(32절)와 "내 말"(33절)은 어떻게 함께인가?

- 지나감과 없어지지 않음이 나란히 놓임.
- 둘의 관계는 보류, 위치만 기록.

Q6. 큰 징조 끝에 왜 "일상의 둔해짐"(34절)을 말씀하시는가?

- 방탕·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 하심.
- 큰 일과 일상의 연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22장

LUK-022 · 복음서 · 헬라어

떡과 잔으로 새 언약이 세워지는 밤, 기도와 입맞춤과 부인이 한 어둠 안에서 엇갈린다.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다락방(10-12) → 감람산(39) → 잡히는 자리(47) → 대제사장의 집 뜰(54-55) → 공회(66).
- 시간 배경 = 무교절·유월절(1·7).
- 소품 = 떡과 잔(19-20), 검과 몽치(52), 딸의 모닥불(55).
- 한 밤 사이에 무대가 거듭 옮겨감 — 빛(언약)에서 어둠(체포·부인)으로.
- pascha(유월절)·diatheke(언약)·anamnesis(기념)가 배경 어휘로 깔림.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점점 어두워짐 — 만찬의 따뜻함에서 겿세마네·체포·부인으로.
- 한 식탁에 새 언약과 배신 예고가 함께(20·21).
- 닭 울음(60-61)이 부인의 끝에 박힘.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 죽일 모의로 열림.
- 71절: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 공회의 정죄로 닫힘.
- 가운데 떡·잔(19-20)과 "아버지의 원대로"(42)가 언약·순종으로 박힘.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대제사장·서기관 / 유다 / 베드로·요한 / 열두 사도 / 종·여종 / 잡으러 온 무리·공회.
- 한 식탁에 언약(20)·배신(21)·다툼(24)이 겹침.
- 겿세마네 — "아버지의 원대로"(42), 천사(43), "고민하여"(agonia, 44).
- "시험"(peirasmos, 40·46)이 기도 자리를 감쌌.
- 부인(arneomai, 34·57·61)과 돌이킴(epistrepho, 32)이 한 인물에 걸침.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죽일 모의, 유다의 약속.
- 컷 2 (7-23): 다락방, 떡과 잔, 새 언약, "파는 자의 손".
- 컷 3 (24-38): 다툼, 시몬을 위한 기도, 부인 예고, 검 들.
- 컷 4 (39-46): 감람산, "아버지의 원대로", 천사, 핏방울 같은 땀.

- 컷 5 (47-53): 입맞춤, 종의 귀, 고치심, "어둠의 권세".
- 컷 6 (54-62): 모닥불, 세 번 부인, 닭 울음, 돌이켜 보심, 통곡.
- 컷 7 (63-71): 희롱, 공회, 정죄.

## 6 — (1) 원어 카드

- pascha(πάσχα) — 유월절. 1·7·8·11·13·15절.
- diatheke(διαθήκη) — 언약. 20절 "새 언약".
- anamnesis(ἀνάμνησις) — 기념. 19절 "나를 기념하라".
- agonia(ἀγωνία) — 고민·깊은 분투. 44절.
- peirasmos(πειρασμός) — 시험. 40·46절.
- philema(φίλημα) — 입맞춤. 47-48절.
- arneomai(ἀρνέομαι) — 부인하다. 34·57·61절.
- epistrepho(ἐπιστρέφω) — 돌이키다. 32절.

## 6 — (2) 문학 구조

- 한 밤의 빛-어둠 교차 — 언약(2컷)과 체포·부인(5-6컷).
- 떡-잔의 짝(19-20) — 몸과 피.
- 예고-성취의 틀 — 부인 예고(34)와 부인·닭 울음(60-61).
- 기도가 부인보다 먼저 놓임(32 → 34).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유월절·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 만찬의 시간 배경(1·7절).
-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10절)은 다락방을 찾는 표지 — 본문의 그림.
- 43-44절(천사·핏방울 같은 땀)은 사본 간 표기 차이가 알려진 대목 — 배경으로만, 본문 그림은 그대로 관찰.
- 뜰의 모닥불(55절)은 밤·추위의 배경 — 부인 장면의 무대.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22:20 ↔ 렘 31:31 / 출 24:8 (새 언약·언약의 피)
- 눅 22:19 ↔ 고전 11:23-25 (떡과 잔·기념)
- 눅 22:42 ↔ 눅 11:2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 눅 22:37 ↔ 사 53:12 (불법자와 함께 헤아림을 받음)
- 눅 22:61 ↔ 눅 22:34 (부인 예고와 닭 울음)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유월절이 가까운데 지도자들이 죽일 방도를 궁리하고 유다가 은을 받기로 한다. 큰 다락방에서 떡을 떼어 "내 몸"이라, 잔을 들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시며, 같은 식탁의 "파는 자의 손"을 짚으신다. 다툼에 섬김을 말씀하시고 시문을 위해 기도하신 뒤 부인을 예고하신다. 감람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시니 천사가 힘을 더하고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진다. 유다가 입맞춤으로 신호하자 잡히시며 종의 귀를 고치시고 "어

뚝의 권세"라 하신다. 뜰의 모닥불 곁에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돌이켜 보시는 눈에 그가 밖에서 나가 통곡한다. 날이 새매 공회의 정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새 언약의 밤 – 기도와 부인 사이"
- 초벌 부제: "떡과 잔의 밤, 기도와 입맞춤과 부인이 엇갈리는 어둠"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유월절·다락방·사본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7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떡·잔(19-20)이 성례 신학으로 굳지 않도록 → 몸·피·언약의 어휘 위치만 기록.
- 겻세마네(42-44)를 심리 분석으로 미끄러뜨리지 않고 → 본문이 적은 기도·천사·땀의 그림만 보존.
- 입맞춤(47-48)과 부인(57-61)을 정죄 서사로 봉합하지 않고 → 신호·돌이킴의 어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22장은 떡과 잔으로 새 언약이 세워지는 밤에, 감람산의 기도와 입맞춤의 신호와 세 번의 부인이 한 어둠 안에서 엇갈리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죽일 방도를 궁리하는 모의로 열린다. 다락방에서 떡과 잔으로 새 언약이 세워지나, 같은 식탁에 "파는 자의 손"과 "누가 크냐"는 다툼이 함께 있다. 감람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시며 핏방울 같

은 땀을 흘리신 뒤, 유다의 입맞춤으로 잡히신다. 딸의 모닥불 곁에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돌이켜 보시는 눈에 그가 통곡한다. 장은 공회의 정죄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다락방(10) → 감람산(39) → 잡히는 자리(47) → 딸(54) → 공회(66). 시간 = 유월절(1·7). 소품 = 떡·잔·검·모닥불.
2 첫 느낌·분위기	점점 어두워짐, 한 식탁의 언약과 배신, 닭 울음의 매듭.
3 시작과 끝	시작 — 죽일 모의(2). 끝 — 공회의 정죄(71). 모의에서 정죄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지도자 / 유다 / 베드로·요한 / 사도 / 종·여종 / 공회. 사상 = 새 언약, 순종, 부인·돌이킴.
5 장면 컷	컷 1 모의(1-6). 컷 2 만찬(7-23). 컷 3 다툼·예고(24-38). 컷 4 겹세마네(39-46). 컷 5 체포(47-53). 컷 6 부인(54-62). 컷 7 공회(63-71).
6 의문·발견·정보	떡·잔의 짝(19-20). 기도가 먼저(32). 종의 귀 고치심(51). "어둠의 권세"(53). 돌이켜 보심(61).
7 동영상	모의 → 떡과 잔의 언약 → 감람산 기도 → 입맞춤·체포 → 세 번 부인 → 공회 정죄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새 언약의 밤 — 기도와 부인 사이". 부제 — "떡과 잔의 밤, 기도와 입맞춤과 부인이 엇갈리는 어둠".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다락방·감람산·딸의 모닥불 곁을 걸으며 언약과 부인 사이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한 식탁의 두 손:** 떡과 잔으로 새 언약이 세워지는 그 식탁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함께 있도다"(21절). 언약과 배신이 한 자리에 있다.
- 결 2 —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42절). 옮겨 달라는 청과 순종이 한 기도 안에 놓인다.
- 결 3 — 돌이켜 보심:**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61절). 부인의 끝에 봄이 놓이고, 그 봄에 통곡이 따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21:36 (깨어 기도, 22:40·46과 짝), 눅 22:32 (기도)와 눅 24:34 (시몬에게 나타나심).
- 다른 권 — 렘 31:31 (새 언약), 출 24:8 (언약의 피), 사 53:12 (불법자와 함께).
- 정경 흐름 — 22장의 체포·정죄는 23장의 빌라도·십자가로 곧장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떡과 잔이 도는 식탁 곁에 한 사람이 앉는다.
- 멈춤 1: "파는 자의 손"이 같은 상에 있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기도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닭이 울고 돌이켜 보시는 눈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언약과 부인이 한 밤 안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식탁의 언약과 들의 부인 사이\*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떡과 잔으로 새 언약이 세워진다
- [x] 같은 식탁에 파는 자의 손이 있다
- [x]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신다
- [x] 입맞춤으로 잡히신다
- [x] 종의 귀를 고치신다
- [x]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다
- [x] 돌이켜 보시니 통곡한다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22장은 그 호에서 새 언약이 세워지는 때들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20절)는 출애굽기 24장의 옛 언약 피와, 예레미야 31장의 약속된 새 언약을 한 식탁에서 잇는 자리다. 21장에서 깨어 기도하라 하신 통치가, 여기서 친히 잔을 들어 새 언약의 토대를 놓고, 감람산에서 홀로 깨어 기도하는 한 분으로 구체화된다. 동시에 이 밤은 흠어짐의 밤이다 — 다툼·줄음·배신·부인이 잇따른다. 새 언약의 통치가 인간의 흠어짐을 통과해 세워짐을 보여주는, 수난(23장)으로 내려가는 결정적 한 국면이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 식탁의 새 언약(떡·잔)→한 어둠 속 흠어짐(기도·입맞춤·부인) / 함께→흠어짐, 그 한복판에 홀로 깨어 기도하는 한 분.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식탁의 빛에서 어둠의 권세로 미는 운동이다. 떡과 잔의 새 언약(19-20절) → 누가 크냐의 다툼(24절) → 감람산의 기도(42절) → 입맞춤의 배신(47절) → 어둠의 권세(53절) → 모닥불의 부인(57-60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함께한 식탁이 흠어진 밤으로 가라앉으며 그 바닥에 홀로 기도하는 한 분이 남는 한 운동이다. (수난의 무게는 절제하여, 본문이 보고하는 흐름만 남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만찬·기도·배신·체포·부인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흠어지는 인간 한복판에서 홀로 세워지는 언약이다. 제자들은 다툼고 줄고 부인하며 흠어지지만, 그분만 "원대로 되기를"(42절) 기도하며 깨어 계신다. 새 언약은 사람의 충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흠어짐을 통과해 한 분의 받아 드림으로 세워진다. 빙산의 수면 위는 어둠의 권세와 흠어짐이지만, 아래는 그 어둠을 받아 안는 한 분의 기도, 곧 인간의 무너짐 위에 놓이는 새 언약의 토대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식탁에서 함께였으나 어둠 속에 흠어지는 자리에 있는가, 그 한복판에서 "원대로 되기를"로 깨어 기도하는 자리를 향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흠여지는 제자들 곁과 홀로 깨어 기도하는 한 분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밤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새 언약.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어둠 속에 흠여진 밤이, 23장에서 재판이 손에서 손으로 오가는 낮으로 이어진다 — 흠여진 제자들 자리에, 십자가 곁의 사함("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과 강도의 청이 새로 들어선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2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떡과 잔은 왜 그 순서로 짝지어지는가?(19-20절)**

- 떡—몸, 잔—피·새 언약으로 짝이 놓임.
- 짝의 곁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기도가 부인 예고보다 먼저 오는가?(32·34절)**

-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가 부인 예고 앞에.
- 순서의 곁은 위치만 기록.

**Q3. 잡히시는 자리에서 왜 종의 귀를 고치셨는가?(51절)**

- 체포의 자리에 고치심이 끼어듦.
- 고치심의 곁은 답하지 않고 보존.

**Q4. "어둠의 권세"(53절)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그 밤을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 부르심.
- 그 부름의 곁은 묵상에서 다시.

**Q5. 입맞춤이 어떻게 넘김의 신호가 되는가?(47-48절)**

- 친밀의 몸짓과 넘김이 한 입맞춤에 놓임.
- 겹침의 관계는 보류, 위치만 기록.

**Q6. "돌이켜 베드로를 보심"(61절)은 어떤 봄인가?**

- 본문은 봄만 적고 말은 적지 않음.
- 그 봄의 곁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23장

LUK-023 · 복음서 · 헬라어

재판이 두 손을 오가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사함의 말과 한 강도의 청이 마지막 빛으로 놓인다.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2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빌라도(1) → 헤롯(7) → 다시 빌라도(11-13) → 길(26) → 해골의 곳(33) → 새 무덤(53).
- 소품 = 신 포도주(36), 명패 "유대인의 왕"(38), 성소 휘장(45), 세마포(53).
- 시간 배경 = 준비일, 안식일이 거의 됨(54).
- 재판의 옮김이 십자가의 멈춤으로, 멈춤이 무덤의 쉼으로 가라앉음.
- aphiemi(사함)·kakourgos(행악자)·paradeisos(낙원)가 배경 어휘로 깔림.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조용하고 무거움 — 앞은 부산한 재판, 십자가 자리에 이르러 정적이 깊어짐.
- 무거운 자리에서 사함의 말(34)과 낙원의 약속(43)이 빛처럼 놓임.
- 어둠·휘장 찢어짐(45)과 새 무덤·안식의 쉼(53·56)으로 닫힘.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끌고 가서" — 끌려가심으로 열림.
- 56절: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 안식의 쉼으로 닫힘.
- 가운데 34절(사함)과 46절(영혼을 부탁)이 축으로 박힘.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빌라도 / 헤롯 / 무리·대제사장 / 구레네 시몬 / 우는 여인들 / 두 행악자 / 백부장 / 아리마대 요셉 / 따라온 여자들.
- 빌라도의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세 번(4·14·22).
- 십자가의 사함(34)과 약속(43).
- 두 행악자의 갈림 — 비방(39)과 청(40-42, mnaomai).
- 마지막 발화 "영혼을 부탁하나다"(paratithemi, 46), 백부장 "의인"(dikaios, 47).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2): 빌라도·헤롯·다시 빌라도, 둘이 친구가 됨.
- 컷 2 (13-25): "죄를 찾지 못함"의 거듭, 바라바, 넘겨짐.
- 컷 3 (26-31): 구레네 시몬, 우는 여인들.

- 컷 4 (32-43): 해골의 곳, 사함의 말, 두 행악자, "낙원".
- 컷 5 (44-49): 어둠, 휘장, "영혼을 부탁", 숨지심, 백부장.
- 컷 6 (50-56): 요셉, 새 무덤, 세마포, 안식의 쉽.

## 6 – (1) 원어 카드

- aphiemi(ἀφίημι) – 놓아 주다·용서하다. 34절.
- kakourgos(κακοῦργος) – 행악자. 32·33·39절.
- paradeisos(παράδεισος) – 낙원. 43절.
- mnaiomai(μνάομαι) – 기억하다. 42절 "나를 기억하소서".
- paratithemi(παρατίθημι) – 부탁하다·맡기다. 46절.
- katapetasma(καταπέτασμα) – 성소 휘장. 45절.
- dikaios(δίκαιος) – 의인. 47절(백부장)·50절(요셉, "의로운").
- tafos(τάφος) 결의 무덤 – 53절 "바위에 판 무덤".

## 6 – (2) 문학 구조

- 재판의 옮김(빌라도-헤롯-빌라도)이 십자가의 멈춤으로 수렴.
- "죄를 찾지 못함" 세 번의 반복(4·14·22).
- 두 행악자의 대조(39·40-42) – 같은 형틀, 다른 입.
- 십자가에 사함·약속·부탁의 세 마디가 모임(34·43·46).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빌라도는 로마 총독, 헤롯은 분봉왕 – 두 권력 사이의 이송(7·11절 배경).
-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26절) – 길의 그림.
- 34절 사함의 기도는 일부 사본에 표기 차이가 알려진 대목 – 배경으로만, 본문 그림은 그대로 관찰.
-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세마포(53절)는 안식일 전 장사의 절차 그림.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23:46 ↔ 시 31:5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 눅 23:34 ↔ 사 53:12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함)
- 눅 23:30 ↔ 호 10:8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 눅 23:47 ↔ 눅 23:4 (죄를 찾지 못함 ↔ 의인)
- 눅 23:53 ↔ 눅 24:1-3 (새 무덤과 빈 무덤)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우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낸다. 헤롯이 돌려보내자 빌라도는 거듭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 우리가 외쳐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넘기게 한다. 끌려가는 길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신다. 해골의 곳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두 행악자 중 청하는 한 사람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다.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며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지시니, 백부장이 "정녕 의인이었도다" 한다. 요셉이 새 무덤에 두고, 여자들이 보고 돌아가 안식일에 쉬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 사함의 말이 놓인 자리"
- 초벌 부제: "재판의 두 손 사이에서, 사함의 말과 새 무덤"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빌라도·헤롯·새 무덤·사본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수난 절제 유지)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수난 장면을 감정 묘사로 부풀리지 않도록 → 절제하여 본문이 적은 말·사건만 기록.
- 휘장 찢어짐(45)을 신학 명제로 굳히지 않고 → 어둠·찢어짐의 위치만 보존.
- 두 행악자의 갈림(39-43)을 교훈으로 봉합하지 않고 → 두 입의 대조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23장은 빌라도와 헤롯 사이를 오간 재판 끝에, 십자가의 사함의 말과 한 강도의 청이 마지막 빛으로 놓이고 새 무덤의 씌움으로 가라앉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빌라도와 헤롯 사이의 이송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의 거듭 끝에, 무리의 외침으로 넘겨짐을 적는다. 절제된 필치로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와 청하는 한 행악자에게 주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를 둔다. 어둠과 휘장 찢어짐 가운데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지시니, 백부장이 "의인"을 말한다.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에 두고, 여자들이 보고 돌아가 안식일에 쉬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빌라도(1)→헤롯(7)→빌라도(13)→길(26)→해골의 곳(33)→새 무덤(53). 소품 = 명패·휘장·세마포. 시간 = 준비일·안식(54).
2 첫 느낌·분위기	조용하고 무거움, 십자가 자리의 정적, 사함·낙원의 빛.
3 시작과 끝	시작 — 끌려가심(1). 끝 — 안식의 쉽(56). 소란이 정적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빌라도·헤롯 / 무리 / 시몬·여인들 / 두 행악자 / 백부장 / 요셉. 사상 = 사함, 약속, 부탁.
5 장면 컷	컷 1 재판 이송(1-12). 컷 2 넘겨짐(13-25). 컷 3 길(26-31). 컷 4 십자가·사함(32-43). 컷 5 숨지심(44-49). 컷 6 장사(50-56).
6 의문·발견·정보	"저들을" 위한 사함(34). "울지 말라"(28). 두 행악자(39-43). 어둠·휘장(44-45). 의인 요셉(51).
7 동영상	재판의 두 손 → "죄를 찾지 못함" → 사함의 말 → 한 강도의 청 → 숨지심 → 새 무덤·안식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 사함의 말이 놓인 자리". 부제 — "재판의 두 손 사이에서, 사함의 말과 새 무덤".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길과 해골의 곳과 새 무덤 곁을 걸으며 비방과 청 사이를 본다. 절제하여,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먼저 사함:** 해골의 곳의 첫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34절)다. 자기 일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청이 먼저 놓인다.
- 결 2 — 같은 형틀, 다른 입:** 한 행악자는 비방하고(39절), 다른 한 사람은 "나를 기억하소서"(42절) 한다.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43절)가 주어진다.
- 결 3 — 부탁과 쉽:**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46절)로 숨지시고, 새 무덤과 안식의 쉽(53·56절)으로 장이 가라앉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23:4 (죄를 찾지 못함)과 눅 23:47 (의인), 눅 24:1-3 (새 무덤과 빈 무덤).
- 다른 권 — 시 31:5 (영혼을 부탁), 사 53:12 (범죄자를 위한 기도), 호 10:8 (산들아 무너지라).
- 정경 흐름 — 23장의 새 무덤은 24장의 부활·엠마오·승천으로 곧장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두 손을 오가는 재판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청하는 한 행악자의 입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어둠과 찢어진 휘장 아래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사함의 말이 마지막 자리에 놓인다\*는 곁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비방과 청 사이, 새 무덤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재판이 빌라도와 헤롯 사이를 오간다
- [x]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가 거듭된다
- [x]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다
- [x] 한 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다
- [x]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지신다
- [x] 백부장이 "의인이었도다" 한다
- [x] 끝은 새 무덤과 안식의 쉽이다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다. 23장은 그 호에서 **인성 회복과 사함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베풀어지는** 국면이다 — book-telos가 누가의 특징으로 꼽는 '인성 회복'의 결이 여기서 십자가의 사함으로 드러난다. 재판은 빌라도와 헤롯 사이를 오가며 책임을 떠넘기고(7-12절), 무리는 바라바를 택한다(18절). 그 떠넘김의 끝에서, 도리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34절)와 강도를 향한 "낙원"의 약속(43절)이 놓인다. 22장의 새 언약(잔의 피)이, 여기서 사함의 베품으로 구체화된다. 본문은 절제하여 보고하되, 이 자리가 24장의 빈 무덤으로 이어지는 호의 가장 낮은 골을 그린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손에서 손으로 오가는 재판(빌라도·헤롯·무리)→사함의 말과 청하는 말이 놓이는 자리("사하여 주옵소서"."나를 기억하소서").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떠넘기는 손에서 받아 안는 입으로 미는 운동이다. 빌라도·헤롯을 오간 재판(7·11절) → 바라바의 택함(18절) → 길의 여인들(28절) → 비방하는 입과 청하는 입(39·42절) → 사하는 입(34절) → 새 무덤(53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책임을 미루는 손들 끝에 도리어 사함과 청이 놓이는 한 운동이다. (수난의 무게는 절제하여, 본문이 보고하는 손과 입의 오감만 남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재판과 형 집행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떠넘기는 인간과 사함을 베푸는 통치의 대조**다. 권력자들은 책임을 손에서 손으로 미루고 무리는 다른 이를 택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함의 말이 흘러나온다. 강도의 늦은 한 청("나를 기억하소서")에 "오늘... 낙원에"라는 답이 임한다 — 가장 어두운 자리가 사함과 약속의 자리가 된다. 빙산의 수면 위는 재판과 어둠(44절)이지만, 아래는 **떠넘김을 받아 안아 사함으로 돌리는 인격적 통치**다. 절제하여 보아도, 그 방향은 보고된다.

##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책임을 손에서 손으로 떠넘기는 자리에 있는가, 가장 늦은 자리에서라도 "나를 기억하소서"를 드리는 자리를 향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떠넘기는 손들 결과 사함·청이 놓인 자리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자리에 절제하여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새 무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새 무덤에 안식한 한 밤이, 24장에서 빈 무덤으로 열린다 — 사함이 놓인 가장 낮은 골에서, 길에서 떡 뭉 때 눈이 열리고 손을 들어 축복하는 권의 단힘(승천)으로 호가 솟아오른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2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십자가의 첫 말씀이 "저들을" 위한 사함인가?(34절)

- 자기 일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청이 먼저.
- 먼저 됨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28절)는 왜 길에서 나오는가?

- 우는 이들에게 울 곳을 옮겨 주심.
- 울김의 결은 위치만 기록.

Q3. 같은 형틀의 두 행악자는 무엇으로 갈리는가?(39-42절)

- 한 입은 비방, 한 입은 청.
- 갈림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4. 어둠과 휘장 찢어짐은 왜 숨지심과 함께 놓이는가?(44-46절)

- 어둠·찢어짐이 그 자리에 같이 있음.
- 함께 놓임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Q5. 빌라도의 "죄를 찾지 못함"은 왜 세 번 거듭되는가?(4·14·22절)

- 같은 말이 세 번 반복됨.
- 반복의 결은 보류, 위치만 기록.

Q6.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이 나오는 까닭은?(51절)

-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한 사람이 시신을 거둬.
- 그 등장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누가복음 24장

LUK-024 · 복음서 · 헬라어

빈 무덤에서 시작해 길에서 떡을 떼 때 눈이 열리고,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자리에서 권이 닫힌다.

## 관찰된 사실

### 누가복음 2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빈 무덤(1) → 엠마오 가는 길(13) → 예루살렘 방 안(33·36) → 베다니 앞(50) → 성전(53).
- 시간 배경 = "안식 후 첫날 새벽"(1), 하루의 흐름.
- 소품 = 향품·굴린 돌·세마포(1·2·12), 떡(30), 구운 생선(42), 손과 발(39).
- 어둠(무덤)에서 밝음(축복·찬송)으로 무대가 흐름.
- anistemi(부활)·klasis(떡 뺨)·dianoigo(열다)가 배경 어휘로 깔림.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어둠에서 밝아짐 — 빈 무덤→살아 계심→열린 눈→축복.
- 알아본 순간 보이지 않음(31)의 결.
-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50-51)로 권이 조용히·환히 닫힘.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3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 빈 무덤으로 열림.
- 52-53절: "경배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 경배·찬송으로 닫힘.
- 가운데 31절(눈이 밝아짐)과 45절(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심)이 두 매듭으로 박힘.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자들(막달라 마리아·요안나·마리아, 10) / 두 사자(4) / 베드로(12) / 엠마오 두 제자(글로바, 18) / 열한 사도와 일행(33) / 예수.
- 엠마오 —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17), 눈이 가리어짐(16).
- 풀어 주심 —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세히 설명"(27),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45).
- "증인"(martys, 48), "약속하신 것"(epangelia, 49).
- 축복(eulogeo, 50-51)과 올려지심(anaphero 결, 51).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2): 빈 무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베드로.
- 컷 2 (13-27): 엠마오 길, 슬픈 두 사람, 성경을 풀어 주심.
- 컷 3 (28-35): 머무심, 떡을 떼심, 열린 눈, 되돌아가 알림.

- 컷 4 (36-43): 방 안, "평강", 손·발, 생선.
- 컷 5 (44-49): 깨닫게 하심, "증인이라", "약속을 기다리라".
- 컷 6 (50-53): 베다니 앞, 축복, 올려지심, 경배·찬송.

## 6 – (1) 원어 카드

- anistemi(ἀνίστημι) – 일어서다·부활하다. 7·46절.
- klasis(κλάσις) – 떡을 땀. 35절.
- dianoigo(διανοίγω) – 열다·풀다. 31(눈)·32·45(성경·마음)절.
- martyrs(μάρτυς) – 증인. 48절.
- epangelia(ἐπαγγελία) – 약속. 49절.
- eulogeo(εὐλογέω) – 복을 빌다·축복하다. 50·51·53절.
- graphe(γραφή) – 성경. 27·32·45절.
- anaphero(ἀναφέρω) – 들어 올려짐. 51절.

## 6 – (2) 문학 구조

- 하루의 흐름 – 새벽 무덤 → 낮 길 → 저녁 방 → 베다니 앞.
- 두 매듭 – 눈 열림(31)과 마음 열림(45), 같은 dianoigo 절.
-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5)의 되물음으로 빈 무덤을 엮.
- "떡을 떼심"이 알아봄과 묶임(30-31·35) – 22장 만찬의 몸짓과 닿음.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안식 후 첫날 새벽"(1)은 향품을 가지고 가는 장례 마무리의 때 – 시간 배경.
-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약 11km) 거리(13절) – 지리 배경.
- "모세·선지자·시편"(44)은 당시 성경의 세 묶음을 가리킴 – 배경으로만.
- "위로부터 능력"(49)은 머물러 기다릴 약속 –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결(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눅 24:30 ↔ 눅 22:19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 눅 24:6-7 ↔ 눅 9:22 / 18:31-33 (수난·부활 예고의 성취)
- 눅 24:49 ↔ 행 1:4-8 (약속·위로부터 능력)
- 눅 24:44 ↔ 눅 24:27 (모세·선지자·시편)
- 눅 24:51 ↔ 행 1:9 (올려지심·승천)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니 무덤이 비어 있고, 두 사자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느냐" 한다. 사도들은 믿지 않고 베드로가 달려가 세마포만 본다. 그 날 두 사람이 슬픈 빛으로 엠마오로 걷는데, 함께 걸으신 분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성경을 풀어 주신다. 머무시며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져 알아보나 곧 보이지 않으시니, 그들이 되돌아가 알린다. 그들이 말할 때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며 생선을 잡수신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증인이라, 능력을 입을 때까지 머물라"

하신 뒤, 베다니 앞에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올려지신다.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찬송하며 권이 달한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떡을 떼실 때에 눈이 밝아져 —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 초벌 부제: "빈 무덤에서 축복까지, 눈과 마음이 열리는 하루"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안식 후 첫날·엠마오 거리·세 묶음 성경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떡을 떼심"(30-35)을 성례 신학으로 굳히지 않도록 → 알아봄과 묶인 몸짓의 위치만 기록.
- 눈 열림(31)·마음 열림(45)을 한 교리로 통합하지 않고 → 같은 dianoigo 결의 분포만 보존.
- 승천(51)을 시간표로 굳히지 않고 → 축복하시며 올려지심의 그림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누가복음 24장은 빈 무덤에서 시작해 엠마오 길에서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리고, 손을 들어 축복하는 자리에서 이 권이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새벽의 빈 무덤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되물음으로 열린다. 슬픈 빛으로 엠마오를 걷던 두 사람에게 함께 걸으시며 성경을 풀어 주시고,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다. 예루살렘 방 안에서 손과 발을 보이고 생선을 잡수시며,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증인이라" 하신다. 베다니 앞에

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올려지시니, 제자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찬송하며 누가복음이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빈 무덤(1) → 엠마오 길(13) → 예루살렘 방(36) → 베다니 앞(50) → 성전(53). 시간 = 안식 후 첫날(1). 소품 = 향품·떡·생선·손·발.
2 첫 느낌·분위기	어둠에서 밝아짐, 알아본 순간 보이지 않으심(31), 축복으로 닫힘.
3 시작과 끝	시작 — 빈 무덤(1-3). 끝 — 경배·찬송(52-53). 빈 자리에서 찬송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여자들 / 두 사자 / 베드로 / 엠마오 두 제자 / 사도 일행 / 예수. 사상 = 살아나심, 풀어 주심, 증인, 축복.
5 장면 컷	컷 1 빈 무덤(1-12). 컷 2 엠마오 길(13-27). 컷 3 떡 땀(28-35). 컷 4 방 안(36-43). 컷 5 증인(44-49). 컷 6 승천(50-53).
6 의문·발견·정보	되물음(5). 가리어진 눈(16). 떡 땀 때 열림(30-31). 기쁨과 못 믿음(41). 두 dianoigo(31·45).
7 동영상	빈 무덤 → 엠마오 길의 풀어 주심 → 떡 땀·열린 눈 → 방 안 손·발 → 증인 위임 → 축복·올려지심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떡을 떼실 때에 눈이 밝아져 —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부제 — "빈 무덤에서 축복까지, 눈과 마음이 열리는 하루".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빈 무덤·엠마오 길·베다니 앞을 걸으며 슬픔과 열린 눈 사이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되물음으로 여는 빈 무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5절). 답이 아니라 물음이 빈 무덤을 연다.
- 결 2 — 떡을 떼실 때:** 성경을 풀어 주실 때가 아니라 "떡을 떼실 때"(30-31·35절) 눈이 밝아진다. 알아봄이 그 몸짓에 묶인다.
- 결 3 — 축복 안의 떠나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50-51절). 떠나심이 축복의 몸짓 안에서 일어난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눅 22:19** (떡을 떼심, 24:30과 한 몸짓), **눅 9:22 / 18:31-33** (수난·부활 예고의 성취, 24:6-7).
- 다른 권 — **행 1:4-9** (약속·위로부터 능력·승천), **시·선지서** (24:44의 세 묵음).
- 정경 흐름 — 24장의 "증인이라"와 "위로부터 능력"은 사도행전의 문을 열며, 누가의 두 권을 잇는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비어 있는 무덤 앞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슬픈 빛으로 걷는 두 사람 곁에서 멈춘다.
- **멈춤 2:** 떡이 떼어지고 눈이 밝아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손과 발을 보이시는 방 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리고, 축복 안에서 떠나신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빈 무덤과 축복하시는 손 사이\*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무덤이 비어 있고 살아나셨다 한다
- [x] 길에서 성경을 풀어 주신다
- [x]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진다
- [x] 손과 발을 보이며 생선을 잡수신다
- [x] "너희는 증인이라" 하신다
- [x]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올리지신다
- [x] 끝은 경배와 성전의 찬송이다

####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운동은 "내면(나라)에서 성령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는 인격적 통치이며, book-telos가 못 박듯 이 책은 **사도행전의 전서(前書)**다. 24장은 그 전서가 후서로 넘어가는 **매듭 그 자체**다. 빈 무덤(3절)과 부활의 나타나심으로 시작해, 본문은 두 방향으로 손을 뻗는다. 안으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27·45절)하여 구약 전체가 이 부활을 향해 흘러왔음을 담고, 밖으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47절)과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에 머물라"(49절)로 다음 권을 향해 연다. 곧 47절(예루살렘→모든 족속)은 사도행전 1:8(예루살렘→유대·사마리아→땅끝)의 씨앗이고, 49절(아버지의 약속·능력)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충만의 예고다. 51절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리지시니라"는 승천으로, 사도행전 1:9-11이 그 장면을 다시 받아 후서를 시작한다. book-telos의 LUK movement("내면→성령→열방") 그대로, 한 개인의 내면에 임한 통치가 여기서 성령을 받아 열방으로 폭발하는 ACT movement("예루살렘→유대·사마리아→땅끝")로 넘겨진다. 누가복음 24장은 그 두 호가 맞물리는 **경첩**이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빈 무덤→길에서 떡 떼 때 열린 눈→손 들어 축복하시며 올리지심(승천) / 누가복음의 닫힘이 곧 사도행전의 열림: 내면의 타오름→위로부터의 능력→땅끝의 증인.**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무덤의 빈자리에서 하늘로 들린 손으로 솟아오르되, 그 손이 땅끝을 가리키는 운동이다. 빈 무덤(3절) → 엠마오 길(15절) → 떡 떼 때 열린 눈(31절) → 마음의 타오름(32절) → 성경 풀어 주심(45절) → 모든 족속에게의 증인(47-48절) → 머물라는 명(49절) → 축복하며 올리지심(51절) → 큰 기쁨으로 성에 머물(52-53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한 권이 닫히면서 동시에 다음 권(사도행전)을 향해 열리는 한 운동이다 — 끝이 곧 새 시작인 매듭.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부활의 발현과 승천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닫힌 인식이 열리고, 내면의 불이 붙어 열방으로 보내지는 통치**다. 엠마오의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다가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져" 알아본다(31절) — 부활은 무덤의 빈자리만이 아니라 **닫혔던 마음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는 사건**이다.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32절, kaiomene) 그 불은, 49절의 "위로부터 입을 능

력"(성령)으로 이어진다. 빙산의 수면 위는 부활과 승천이지만, 아래는 **내면에 붙은 불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 땅끝의 증언으로 폭발하는 연쇄**다 —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펼칠 통치의 씨앗이 여기 묻힌다. 손을 들어 축복하며 올려지신 그 손은, 닫는 손이 아니라 보내는 손이다.

####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내 안에서든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 그 타오름이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어 땅끝을 향한 걸음이 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엠마오의 타오른 마음 결과 "머물라"는 기다림의 자리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닫히되 보내는 그 매듭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축복하시며.

**다음 권으로 미는 운동:** 누가복음의 마지막 손(축복하며 올려지심)이, 사도행전 1장에서 같은 승천 장면으로 다시 받아진다 — "머물라"는 기다림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증인이 유대·사마리아를 지나 땅끝으로 연쇄폭발한다. 전서의 닫힘이 후서의 열림이 되는 한 매듭이다.

#### 미해결 질문

누가복음 2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5절)는 물음으로 무덤을 여는가?**

- 답이 아니라 되물음으로 빈 무덤이 열림.
- 되물음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처음엔 눈이 가리어졌는가?(16절)**

- 알아봄이 끝(31)에야 옴.
- 가리어짐의 결은 위치만 기록.

**Q3. 왜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지는가?(30-31절)**

- 말씀 풀이 때가 아니라 떡 떼 때 알아봄.
- 묵임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4. 기쁨과 못 믿음은 어떻게 함께인가?(41절)**

-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 둘의 함께함은 묵상에서 다시.

**Q5. 눈 열림(31)과 마음 열림(45)은 어떻게 짝지어지는가?**

- 같은 dianoigo 결로 두 매듭이 놓임.
- 둘의 관계는 보류, 분포만 기록.

**Q6. 떠나심이 왜 "축복하실 때"에 일어나는가?(51절)**

-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몸짓 안에서 올려지심.
- 축복과 떠나심의 함께함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